

국립국어원 2010-03-09

바른 국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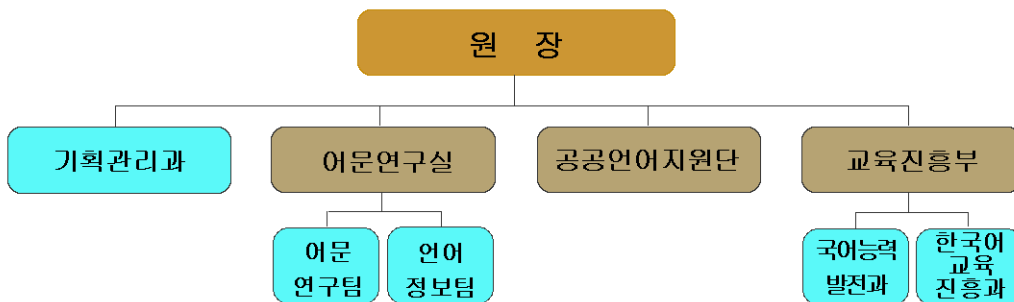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 연구실	◆ 어문연구팀 -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언어정보화팀 -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원단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육 진흥부	◆ 국어능력발전과 -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교육진흥과 -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ii 바른 국어 생활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 oz121@korea.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문] 국어문화학교 소개 [국문].....●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0년에는 1,100여 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약 2,400여 명에 이르러, 9년간 총 1만 5천여 명 이상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2009. 11.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2009. 12.	원내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 워크숍 개최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연 도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반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22	19	1,292	123	15,412
2002년	25	19	1,452	185	16,970
2003년	29	16	1,486	157	17,890
2004년	30	17	1,458	176	16,332
2005년	30	17	1,765	195	15,655
2006년	32	18	1,921	190	12,926
2007년	38	22	2,354	253	19,305
2008년	38	22	2,443	148	10,275
2009년	44	27	2,733	297	19,062
합 계	288개반	177회	16,904명	1,724회	143,827명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 ·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전월 15일까지 접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29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합니다.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한글 맞춤법’ 강의를, 2009년부터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 순화’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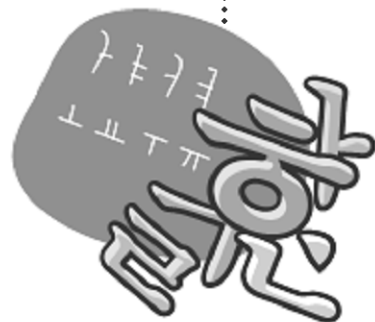
차례

제 1 부 :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3
2. 한글 맞춤법 연습	27
3. 띄어쓰기	43
4. 띄어쓰기 연습	59
5. 표준어 규정	79
6. 표준 발음법	97
7. 외래어 표기법	119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35

제 2 부 :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147
2. 공문서 바로 쓰기	183
3. 생활 글쓰기	197
4.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213
5. 협력적 의사소통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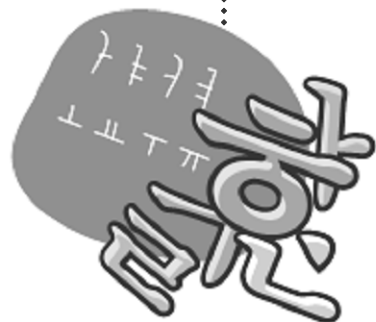




제 1 부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 3
2. 한글 맞춤법 연습 | 27
3. 띄어쓰기 | 43
4. 띄어쓰기 연습 | 59
5. 표준어 규정 | 79
6. 표준 발음법 | 97
7. 외래어 표기법 | 119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35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¹를 소리대로 적되², 어법에 맞도록³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법이다.
- (2)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가]’는 ‘가’로 적고 ‘[나]’는 ‘나’로 적는다. ‘[꼬치]’, ‘[꼰만]’, ‘[꼬또]’로 소리 나는 표준어는 ‘꽃이/꼬치’, ‘꽃만/꼰만/꼰만’, ‘꽃도/꼰또/꼬또’ 등으로 적을 수 있다.
- (3) 그러나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花’를 의미하는 단어가 ‘꽃/꽃/꼰/꼰’과 같이 여러 형태가 되어 언어생활이 혼란스러워지고 독서의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① 꼬치, 꼬츨, 꼬또, 꼰만 / 감쌌, 감쌌, 감또, 감만 / 떠기, 떠글, 띄또, 띄만

② 꽃이, 꽃을, 꽃도, 꽃만 / 값이, 값을, 값도, 값만 / 떡이, 떡을, 떡도, 떡만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하지만,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법에 맞도록 함’이란 어떤 한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여 표기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어떤 단어의 원형을 고



려하는 일이다. 어떤 말을 표기할 때 그 모양과 의미가 유사한 다른 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관련지을 수 있다면 원형을 살려 쓰고 그렇지 않다면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된다. 예컨대 [깨끄시 사용해라]에서 [깨끄시]라는 말은 ‘깨끗하다[깨끗하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 원형인 ‘깨끗’을 고려하여 ‘깨끗이, 깨끗하다’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지그시 누르다]에서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의미하는 [지그시]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지긋지긋, *지긋하다’와 같은 관련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원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지그시’로 적게 된다. 한편,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의 [지그시]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지긋하다’가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혀 ‘지긋이’로 적는다.

2. 한글 맞춤법 익히기

2.1. 같아/*갈애(한글 맞춤법 제15항)

“좋을 것 같아.”의 ‘같아’를 [*가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어간 ‘갈-’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가태]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같아’로 적고 [가타]로 발음해야 한다. ‘같아, 같아요, 같았어, 같았다’와 같이 활용한다.
[참고] 바라/*바래

2.2. 거친/*거칠은(한글 맞춤법 제18항)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ㄹ’이 탈락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칠은, *날으는, *눅슬은’이 아니라 ‘거친, 나는, 눅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놀이터에서 놀으는’, ‘*칼을 갈으는’ 등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놀으는, *갈으는’은 잘못된 활용형이다.

[참고] 낫설다(→ 낫선), 내걸다(→ 내전), 절다(→ 전)

- ㄱ. 하늘을 {나는/*날으는} 비행기, 하늘을 {날/*날을} 것 같은 기분
- ㄴ. {거친/*거칠은} 피부, 피부가 {거치니/*거칠으니} 로션을 발라라.

4 바른 국어 생활

- ㄷ. 옥외에 {내건/*내걸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거니/*내걸으니}
 ㄹ. {녹슨/*녹슬은} 철모, 철모가 {녹스니/*녹슬으니}

그러나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속이 물크러져 상하다)이고 이 말의 ‘ㄷ’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은 국수’, ‘홍수로 불은 강물’의 ‘불은’은 기본형이 ‘붙다’(물에 젖어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이므로 ‘*분 국수’가 될 수 없다. 이는 ㄷ불규칙 용언인 ‘듣다, 싣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 등과 같이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붙다’는 ‘붙고, 붙지, 붙게, 붙으면, 붙어서, 붙었다, 붙은, 붙을,’과 같이 활용한다.

2.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 소문이 금세 퍼졌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 밤새 비가 내렸나 봐.

2.4. 깨끗이/*깨끗히(한글 맞춤법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 ㄱ. ‘이’로 적는 경우
 ① ‘이’로만 나는 것: 가뜩이, 고즈넉이, 그윽이, 깊숙이, 끔찍이,
 길쭉이, 멀찍이, 나직이, 느긋이, 두둑이
 ②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

- ③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 ④ 부사 뒤: 꼼꼼이,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
- ⑤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

ㄴ.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뚝뚝히 ……
- ②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
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
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

2.5. 나무꾼/*나뭇꾼/*나뭇꾼(한글 맞춤법 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뉘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 ‘빚깎’, ‘성깎’ 등도 *‘땃깎’, *‘빚깎’, *‘성깎’ 등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단 ‘젓깎’은 *‘젓깎’이 아니라 ‘젓깎’이 옳다.

[참고]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게꾼, ……

2.6. 늘이다/늘리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늘이다’는 ‘힘을 가해서 본디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는 의미이고, ‘늘리다’는 ‘늘게 하다’는 의미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용수철을 늘이다’와 ‘재산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와 같이 쓰인다. ‘바지를 {늘이다/늘리다}’의 경우는 옷감을 덧대어서 길게 하는 경우는 ‘늘리다’이지만 탄력성이 있는 바지를 당겨서 길게 한다는 뜻일 때는 ‘늘이다’가 된다. ‘수출량, 강의 시간’ 등은 ‘늘리다’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7. 더욱이/*더우기(한글 맞춤법 제25항)

‘더욱이’, ‘일찍이’, ‘오뚝이’는 ‘더욱’, ‘일찍’, ‘오뚝’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더우기’, *‘일찌기’, *‘오뚜기’로 적지 않는다. *‘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와 ‘오늘은 일찍이 일어났다.’를 구분하는 일이 있지만 어느 경우나 ‘일찍이’로 적는다. 그러나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반듯이’와, 관련이 없는 ‘반드시[必]’는 구분하여 적는다.

2.8. 덮이다/*덮히다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다.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히-’는 주로 ‘ㄱ’, ‘ㄷ’, ‘ㅌ’, ‘ㅍ’ 받침을 가진 말에 결합한다.

[참고] 먹히다, 막히다 / 굶히다, 읽히다 / 넓히다, 밝히다 / 굵히다, 입히다, 잡히다

2.9. 되라/돼라(한글 맞춤법 제35항)

‘되라’와 ‘돼라’의 차이는 전자는 ‘되- + -(으)라’이고 후자는 ‘되- + -어라’라는 점이다. ‘되-’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드는 경우 ‘돼’가 된다.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 + -(으)라고] 말씀하셨다.”와 “성실한 사람이 돼라(되- + -어라).”와 같이 구분된다. 한편 ㄷ.과 같이 의고체의 명령형인 ‘-(으)라’가 연결되면 ‘되라’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되다’의 활용형 ‘되어’가 ‘돼’로 줄어드는 것은 ‘하다’의 활용형 ‘하여’가 ‘해’로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다. 그러므로 ‘하다’의 활용형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돼(되어)’가 가능하다.

[참고] 피다, 피다, 뇌다, 되다, 뵈다(‘모이다’의 준말), 비다, 쇠다, 썩다, 죄다, 쪼다

ㄱ. 되지 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되- + -어).

※ 해

돼먹지 못한 놈 / 막돼먹은 인간은 되지 마라.

※ 해 먹다 / 하지 마라



그가 과연 회장이 될까? / 되었어(됐어)/되었네(됐네).

※ 할까 / 했어 / 했네

후보 가운데 누가 회장으로 선정되어도(선정돼도) 좋다. ※ 해도

얼굴이 안돼 보인다. / 그 사람 참 안됐군. ※ 했군

공부 더 해도 돼요? /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 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 해라

ㄴ. 어머니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라고

ㄷ. 공부를 열심히 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되- + -(으)라]. ※ 하라

ㄹ. 선생님, 내일 되어요/돼요/*되요.

이번 명절은 고향에서 되어요/돼요/*되요?

2.10. 디었다/*딴었다(한글 맞춤법 제32항)

‘딴다’는 ‘디디다’의 준말로, ‘딴고, 딴자, 딴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딴어’, *‘딴었다’, *‘딴으며’, *‘딴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이 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디디다’와만 결합하여 ‘디디어(디더), 디디었다(디뎠다)’로 활용한다. ‘가지다/갖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미	기본형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 (디더)	디디니	디디며	디딘
딴다		딴고	딴지	딴니?	*딴어	*딴으니	*딴으며	*딴은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 (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 *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이와 조금 다른 것으로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이 있다.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와만 결합하지 못한다.

8 바른 국어 생활



기본형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2.11. -ㄴ 걸/*-ㄴ 걸

‘집에 갈까?’, ‘불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ㄴ까’, ‘-ㄴ쏘냐’, ‘-ㄴ꼬’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는 없다.

- ㄱ. 이미 {도착했을걸/*도착했을걸}.
- ㄴ. 내가 해 {줄게/*줄게}.
- ㄷ. 점심은 국수를 {먹을까/*먹을가}?

2.12. -(으)로서/-(으)로써(한글 맞춤법 제57항)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와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가 구분된다. ‘-(으)므로(써)’와 ‘-므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므로(써)’는 ‘써’가 붙을 수 있지만 ‘-므로’에는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그는 부지런하므로 돈을 많이 벌었다.’와 ‘그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었다.’가 구분된다.

2.13. 마라/*말아라(한글 맞춤법 제18항)

‘말다’에 ‘-아(라)’의 명령형 어미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하지만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 ㄷ.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

2.14. 맞추다/맞히다/마치다(한글 맞춤법 제55항, 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라고 할 때는 ‘*맞췄어’가 아니라 ‘맞혔어’라고 해야 한다. 또한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 보세요.”에는 ‘알아맞혀’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 보았다.”라고 할 때는 ‘비교하다’의 의미인 ‘맞추어(맞춰)’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벌써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2.15. 머릿기름/*머리기름(한글 맞춤법 제30항)

- ㄱ.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
 - ① 합성어(명사)의 두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은 고유어일 것.
 - ②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ㄴ. 위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음.
 -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변할 때 (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 꺾병, 기댓값, 대폿값, 등곶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 보랏빛, 빨랫줄, 성곶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 횃집
 -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콧날, 콧노래, 콧물, 콧마루, 뺨머리, 수돗물, 뒤텔마루



-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 껏읻, 나뭇읻, 배껏읻, 읻읻, 예삿읻, 사삿읻
- ㄷ. 예외(다음의 6개 한자어에서만 ‘ㅅ’ 표기 허용)
→ 곳간(庫間), 찻간(車間), 퇴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횃수(回數)
※ ‘기차간(汽車間, ← 기차 + 간)’, ‘전세방(傳貰房, ← 전세 + 방)’은
위 6개 한자어 외의 것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음.
- ㄹ. 위 ㄴ.의 음운 현상이 없으면(즉, 소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ㅅ’을 표기
하지 않음.
→ 머리말, 머리글, 나무다리, 인사말
- ㄴ. 된소리,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는 ‘ㅅ’을 표기하지 않음.
→ 쥐뿔, 뒤편이, 뒤흔, 뒤편, 위뿔, 위칸
- ㄴ. 외래어와 고유어의 결합일 경우에도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음.
→ 핑크빛, 피자집 등

2.16. 며칠/*몇일/*몇 일(한글 맞춤법 제27항)

한글 맞춤법 제27항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면 ‘몇 + 일’은 ‘몇일’로 적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항의 [붙임] 항목에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하고 예로 ‘골병, 골탕, 며칠’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몇일’이 아니라 ‘며칠’로 적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 예로 미루어 보면, ‘몇’ 다음에 ‘일(日)’이 오면 [며딜]로 소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 ㄱ. 몇 월 → [며월], 몇 인 → [며딘], 몇 억 → [며덕], 몇 원 → [며원]
ㄴ. 몇 향 → ([면향]) → [며탕], 몇 해 → ([면해]) → [며태],
 몇 호 → ([면호]) → [며토]
ㄷ. 몇 날 → ([면날]) → [면날], 몇 년 → ([면년]) → [면년],



몇 묶음 → ([몇무름]) → [면무름]

ㄹ. 몇 일(日) → * [며딜]

‘몇’ 다음에 명사가 오면 끝소리의 ‘ㅈ’은 중화되어 ‘ㄷ’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ㄱ.과 같이 ‘몇 + 월’은 [며칠]이 아니라 [며월]이 되고, ‘몇 + 억’은 [며척]이 아니라 [며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웃 + 안’이나 ‘꽃 + 위’, ‘날 + 알’이 [오산], [꼬취], [나탈]이 아니라 [오단], [꼬뒤], [나달]로 소리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몇 + 일’의 구성은 [며딜]로 소리가 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며딜]이라고 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은 이 말이 ‘몇 + 일(日)’의 구성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며칠]은 현대 국어에서 그 어원(원형)을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적게 되는 것이다.¹⁾

‘며칠’은 또 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일부에서는 ‘몇 일’과 ‘며칠’을 의미를 구분해서 적는 일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어떤 뜻이든지 ‘며칠’이라고 써야 한다.

ㄱ.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 →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ㄴ. 며칠 동안 휴가를 다녀왔다.(○)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2.17. 문득/문뜩(한글 맞춤법 제5항)

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자.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ㄴ.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1) 사실 ‘며칠’은 중세 국어에서 이미 현대 국어와 같이 두 가지 의미(1. 그달의 몇째 되는 날, 2. 몇 날)로 모두 쓰이던 말이었다. 이 말이 현대 국어 ‘며칠’에까지 전해져서 쓰이는 것이다.

ㄱ. 오늘이 며칠고 《朴通事諺解(1677년) 중:53》

ㄴ. 며츠를 설워 히리러노 《翻譯朴通事(1517년) 상:75》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는다. 하지만 ‘문득’은 [문뜩],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그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참고] 깜박/깜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덕끈덕, 방긋/방긋, 번득/번득, 번듯/번듯, 번적/번적, 생긋/생긋, 싱긋/싱긋, 흘긋/흘긋, 흘깃/흘깃

2.18. -박이/-배기/-빼기(한글 맞춤법 제54항)

접미사	의미	단어 형성의 예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 짐승, 사물, 장소 등을 나타내는 접미사	덧니박이, 점박이, 외눈박이, 토박이, 불박이, 오이소박이, 차돌박이, 장승박이
-배기	1. 그 나이를 먹은 아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2. 어떤 것이 짝 차 있음.	알배기, 나이배기
	3.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 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공짜배기, 진짜배기, 대짜배기
-빼기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마빼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예외) 뚝배기, 언덕배기

2.19. 백분율/*백분률(한글 맞춤법 제11항)

한자어 ‘률, 률’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올 때는 ‘열, 율’로 적는다. 그 외의 경우와 외래어 다음에는 ‘률, 률’로 적는다.

한자	사용 환경	음	보기
率 律 栗 慄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률	악률(樂律), 출석률(出席率), 굴절률(屈折率), 음률(音律), 결합률(結合率), 법률(法律), 성공률(成功率), 생률(生栗), 영률(Young率: 고체 탄성률의 하나)
	모음, ㄴ 받침 다음	율	규율(規律), 분해율, 비율(比率), 실패율, 참가율, 백분율, 불문율(不文律), 선율(旋律), 진율(戰慄), 평균율(平均律)



列 例 劣 烈 裂	ㄴ을 제외한 자음이 나 외래어 다음	렬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 결렬(決裂), 멸렬(滅裂) / 졸렬(拙劣), 용렬(庸劣) /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모음, ㄴ 받침 다음	열	선열(先烈), 치열(熾烈) / 균열(龜裂), 분열(分裂) / 우열(優劣) / 계열(系列), 대열(隊列), 반열(班列)

2.20. 부딪치다/부딪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전거에 부딪쳤다.’는 상호작용으로 자전거와 충돌했다는 의미로, ‘자전거에 부딪혔다.’는 피동적으로 자전거에 충돌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부딪치다’는 ‘마주’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 ㄱ. 차와 차가 마주 부딪쳤다.
- ㄴ.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마주 부딪쳤다.
- ㄷ.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마주 부딪혔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와 같은 문장에서는 ‘부딪혔다’로 써야 한다.

2.21. 붙이다/부치다(한글 맞춤법 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 ㄱ. 붙이다: 반창고를 붙이다 / 불을 붙이다 / 흥정을 붙이다 / 감시원을 붙이다 / 주석을 붙이다 / 번호를 붙이다 // 파귀를 올려붙이다 // 소매를 걷어붙이다 // 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 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극비에 부치다 /

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 / 식목일에 부치는 글 // 기운이 부치다
// 논밭을 부치다 // 부침개를 부치다 // 부채를 부치다

2.22. 사귀어/*사겨/*사귀

“둘이 한번 사귀어 봐.”의 ‘사귀어’는 ‘*사겨/*사귀’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뀐’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졌니? / 짝이 또 *바졌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참고] 지저귀어, 바뀌어, 나뉘어, 야위어, 비취어, 할퀴어

2.23. 시원찮다/*시원찮다(한글 맞춤법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찮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찮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잖’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찮’이나 ‘잖’으로 적는다.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찮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찮다

2.24. 벌에 쏘였다/쐬었다(한글 맞춤법 제37항)

동사의 사동형 혹은 피동형의 준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한글 맞춤법 제 37항에 근거한다. 한글 맞춤법 제37항에서는 “ㄱ, ㅋ, ㆁ, ㄷ, ㅌ, ㄴ’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ㄱ, ㅋ, ㆁ, ㄷ, ㅌ, 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밝혀 ‘쏘이다 ~ 쐬다’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꼬다, 눅다, 뜨다, 보다, 쓰다’ 등에 사동 혹은 피동의



접미사 ‘-이-’가 결합한 ‘꼬이다, 누이다, 뜨이다, 보이다, 쓰이다’ 등은 모두 ‘피다, 뉘다, 띄다, 뵈다, 씌다’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표기가 모두 가능한 것이다.

- | | |
|-----------------|---------------------------------|
| ㄱ. (쏘- + -이- →) | 쏘이다 ~ 췌다: 벌에 손등을 {쏘였다/췌었다}. |
| ㄴ. (꼬- + -이- →) | 꼬이다 ~ 꺾다: {몸이/일이} 점점 {꼬였다/꺾었다}. |
| ㄷ. (눕- + -이- →) | 누이다 ~ 뉘다: 아이를 침대에 {누였다/뉘었다}. |
| ㄹ. (뜨- + -이- →) | 뜨이다 ~ 띄다: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띄었다}. |
| ㅁ. (쓰- + -이- →) | 쓰이다 ~ 씌다: 글씨가 {쓰여/씌어} 있는 공책. |

다만, ‘고이다/꺾다’의 쌍에서 도출되는 것이지만, ‘고인돌’은 쓸 수 있고 ‘권돌’은 쓸 수 없다.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기인한 것이다.

2.25. 아니꼬워/*아니꼬와(한글 맞춤법 제18항)

ㅂ변칙 용언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ㅂ’이 ‘ㅍ’로 바뀌므로, ‘안타깝다’, ‘가깝다’, ‘아니깝다’ 등은 ‘*안타까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안타까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곶-[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곶-’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 | | | | | |
|---------|-------|-------|-------|--------|-------|
| ㄱ. 가깝다: | 가깝고 | 가깝지 | 가까워 | 가까우니 | 가까운 |
|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고 | 자랑스럽지 | 자랑스러워 | 자랑스러우니 | 자랑스러운 |
| ㄴ. 곶다: | 곶고 | 곶지 | 고와 | 고우니 | 고운 |
| 돕다: | 돕고 | 돕지 | 도와 | 도우니 | 도운 |

2.26. 아니요/아니오

‘아니’라는 형태를 가지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 ㄷ. 나는 밥을 {*먹/*먹었} / 철수 시골 {*다녀오/*다녀왔습니다} → 어미 생략
 ㄹ. 철수가요 어제는요 학교에서도요 만화책을요 보았어요. → 조사 겹침 / 해요체
 ㅁ. 비행기가 {빨리도/빨리만/빨리는} 나는구나. → 부사 + 보조사
 ㅂ. 그런 소문을 {들어도/들어만/들어는} 보았어. → 동사 + 보조사
 ㅅ. 그는 친구를 {좋아도/좋아만/좋아는} 한다. → 형용사 + 보조사
 ㅇ. 이리로 앉으요. / 좋도록 하요. / 이 문을 여시오.
 ㅈ. 이리로 앉아요. / 좋도록 해요. / 이 문을 열어요.

그런데 ‘요’는 해요체의 보조사이고 ‘-오’는 하오체의 어미이므로, ‘요’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어미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못한다. 이 둘을 구별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 차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즉, 그 ‘요/오’를 생략해서 문장이 성립하면 보조사 ‘요’가 쓰인 것이고 성립하지 않으면 어미 ‘-오’가 쓰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ㅇ.에서 ‘-오’를 생략하면 문장이 모두 비문이 되지만 ㅈ.에서는 ‘요’를 생략하더라도 해요체에서 해체로 준대의 등급은 낮아지지만 문장 자체는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이므로 둘 다 인정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요 그것은 공책이다.”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은 내 책이요.”처럼 ‘이오’(서술격 조사 ‘이-’ + 하오체 어미 ‘-오’)를 쓴다(한글 맞춤법 제15항).

2.27. 아무튼/*아뭇튼(한글 맞춤법 제40항)

용언의 활용형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뭇-’에 어미 ‘-든’이 결합한 형태만 쓰이고 그 이외의 활용형은 전혀 쓰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참고] 결단코, 절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하지만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등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므로 ‘-든’으로 적지 않는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2.28. 안/않-

“다시는 담배를 안/*않 피우겠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부사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않다’, ‘않았다’, ‘않겠다’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다. 즉, ‘안’은 다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 /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 / 보이지 않니?

2.29. 안치다/얹히다(한글 맞춤법 제57항)

‘안치다’는 기원적으로는 ‘얹다’에서 온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의 관련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안치다’는 ‘끓이거나 찹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는 뜻으로 ‘쌀을 안치다’, ‘밥을 안치다’와 같이 쓰인다. 반면 ‘얹히다’(‘얹다’의 사동형)는 ‘얹게 하다’의 뜻이므로 ‘아이를 자리에 얹히다’와 같이 쓰인다.

2.30. 어떡해/어떻게/*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문장을 맺는 서술어이고,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으로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한다.

ㄱ.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 (※ ‘어떻게 하다’가 줄어들어 ‘어떡하다’가 됨.)



어떡하든 성공해야 해. / 어떡하면 좋아. / 어떡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 나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 아이들은 어떡하고 있어?

- ㄴ. ‘어떡하다(<어떻게 하다<어떠하게 하다)’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 이력하면 어떡하니? 그럼 그럭해도 돼? 이력하나 저력하나 혼나는 건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떡해 풀지?’는 잘못이다. ‘어떻게’로 써야 한다.
[참고] 이력하다(이렇게 하다), 그럭하다(그렇게 하다), 저럭하다(저렇게 하다)

2.31.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아.”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 “이게 웬 날벼락이냐?”,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참고] 웬걸, 웬만하다, 웬만큼, 웬일

2.32. 이에요/이어요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다시 ‘-어요’는 어미 ‘-어/-아’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으로 ‘하다’ 어간 뒤에서는 ‘-여요’로 실현되고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에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요/이어요’의 ‘이’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만 붙는데,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에요/여요’로 줄어든다. 한편 ‘아니다’는 용언이므로 ‘이에요/이어요’가 연결될 수 없고 어미인 ‘-에요/-어요’가 연결되므로 ‘아니에요(아네요)/아니어요(아녀요)’와 같이 쓸 수 있다. ‘아니다’에 ‘이에요’와 ‘이어요’가 붙은 ‘*아니에요’, ‘*아니여요’는 잘못이다.



경우	환경	용례
인명	받침 있는 인명	영숙이 + 이에요 → 영숙이에요 영숙이 + 이어요 → 영숙이여요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접미사 ‘-이’가 붙는다. ‘영숙이가, 영숙이를, 영숙이도, 영숙이에게, 영숙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영수기예요]처럼 말하는 것은 조사결합체인 ‘이에요’가 ‘영숙’ 다음에 곧바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숙이’에 결합되는 것으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숙이 + 이에요’의 구성으로 파악하여, ‘영숙이 + 예요 → 영숙이에요’로 적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은 사람은 *영숙이에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받침 없는 인명	영희 + 이에요 → 영희예요 영희 + 이어요 → 영희여요
명사	받침 있는 명사	집 + 이에요 → 집이에요 집 + 이어요 → 집이여요
	받침 없는 명사	회사 + 이에요 → 회사예요 회사 + 이어요 → 회사여요
아니다	형용사 다음	아니 + (이)예요 → 아니예요(아녜요) 아니 + (이)어요 → 아니어요(아녀요) ※ *아니예요/*아니여요’는 잘못.

2.33. 있음/*있슴

‘있음’은 ‘있-’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결합된 것이므로 ‘있음’이 옳다. ‘떡- + -(으)ㅁ’일 때는 ‘*떡슴’이 아니라 ‘떡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쓰던 ‘있습니다, 먹읍니다’의 ‘-읍니다’를 현행 맞춤법에서 ‘-습니다’로 적기로 한 사실에서 유추하여 ‘있음’, ‘없음’을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2.34. 자랑스러운/*자랑스런

‘자랑스럽다’와 ‘부끄럽다’에서 온 ‘자랑스러운’과 ‘부끄러운’은 ‘*자랑스런’과 ‘*부끄스런’으로 줄지 않는다. 이는 ‘깎다, 늡다, 줍다, 가깝다, 무겁다, 쉽다’ 등의 활용형인 ‘기운, 누운, 주운, 가까운, 무거운, 쉬운’ 따위가 ‘*긴, *눈, *준, *가깐, *무건, *쉽’으로 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35. 치러/*치뤘 (한글 맞춤법 제18항)

‘(시험을) 치르다’는 ‘치러(치르- + -어)’, ‘치렀다(치르- + -었다)’처럼 된다. 일부에서는 ‘*치루고, *치뤘, *치뤘다’로, 심지어는 ‘*칠렀다’처럼 쓰기도 하나 이들은 모두 잘못이다. 또한 ‘김치를 담갔다’를 ‘*김치를 담궜다’로, ‘문을 잠갔다’를 ‘*문을 잠궜다’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담그다, 잠그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면 ‘담그- + -어/아 → 담가’, ‘잠그- + -어/아 → 잠가’와 같이 활용하므로 ‘문을 잠가라, 김치를 담가 먹었다’와 같이 적어야 한다.

- ㄱ. 시험을 {치르/*치룬} 후 집안에 잔치를 {치렀다/*치뤘다}.
- ㄴ.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담궜/*담아} 주셔서 우리는 {담글/*담굴/*담을} 필요가 없었다.
- 며칠 전에 김치를 {담갔다/*담궜다/*담졌다}.
- ㄷ. 현관문을 먼저 {잠근/*잠군} 후에 안방 문을 {잠가라/*잠궜라}.

2.36. 통틀어/*통털어

‘있는 대로 모두 한데 묶다’의 뜻을 가진 말은 ‘*통털다’가 아니라 ‘통틀다’이다. ‘통틀다’는 현대국어에서 그 활용에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말로 주로 ‘통틀어(서), 통틀고, 통틀면’ 정도의 예만 보인다. 또한 활용형 ‘통틀어’는 현대국어에서는 부사로 쓰인다.

- ㄱ. 있는 돈을 통틀면 모두 5만 원쯤 됩니다.
부여와 공주를 통틀고 나서도 아직 3천에선 2백여 명이 모자랐다.
〈이청준, 춤추는 사제〉
- ㄴ. 이사하는 데 통틀어 2백만 원이 들어갔다.
자녀는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릴 통틀어 경멸하는 소리는 삼가 쥐. 〈박완서, 도시의 흥년〉



(3) 대로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법대로, 약속대로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 띄어 씀.)
(예) 아는√대로 말한다. 약속한√대로 이행한다.

(4) 만큼

- ㉠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 붙여 씀.)
(예)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 또는 ‘실컷’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볼√만큼 보았다. 애쓴√만큼 얻는다.

(5) 만

- ㉠ 체언에 붙어서 한정 또는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조사(→ 붙여 씀.)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떠난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온 지 1년√만에 떠나갔다.

(6) 지

-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킴 : 어미
(→ 붙여 씀.)
(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 띄어 씀.)
(예) 그가 떠난√지 보름이 지났다. /
은행에 간√지 한 시간 만에 돌아왔다.



(7) 차(次)

- ㉠ 명사 뒤에 붙어서 ‘...하려고’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접미사(→ 붙여 씀.)
(예) 연수차(研修次) 도미(渡美)한다.
- ㉡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어떤 기회에 겹쳐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고향에 갔던√차에 선을 보았다.

(8) 판

- ㉠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 명사(→ 붙여 씀.)
(예)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 ㉡ 수 관형사 뒤에서 승부를 겨루는 일의 수효를 나타내는 경우: 의존 명사(→ 띄어 씀.)
(예) 바둑 한√판 두자. 장기를 세√판이나 두었다.



한글 맞춤법 연습

1. 두음 법칙

1.1. 난/란, 량/양

① 답난	답란	答欄
② 가십난	가십란	gossip欄
③ 어린이 난	어린이란	어린이欄
④ 생산량	생산양	生産量
⑤ 스칼라량	스칼라양	scalar量
⑥ 기름량	기름 양	기름量

☞ ‘난/란’, ‘량/양’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로 구분된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일 때는 그대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자어	고유어나 외래어
난/란	독자란, 답란, 의견란	어머니 난, 어린이 난, 가십난
량/양	수입량, 수출량, 생산량	기름양, 벡터양, 알칼리 양

1.2. 률/율

① 합격률	합격율	合格率
② 기준률	기준율	基準率
③ 감소률	감소율	減少率

☞ ‘률/율’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받침에 따라 구분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ㄴ’이면 ‘을’로 적고, ‘ㄴ’ 이외의 받침으로 끝나면 ‘를’로 적는다.

1.3. 기타

① 반립자	반입자	反粒子
② 소립자	소입자	素粒子
③ 몰럼치	몰염치	沒廉恥
④ 파렴치	파염치	破廉恥
⑤ 오뉴월	오유월	五六月
⑥ 삼십륙	삼십육	三十六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그대로 표기에 굳어진 것도 있다.

[생각할 문제]

- 성씨나 이름을 쓸 때도 두음법칙에 따라야 하나요?

2. 사이시옷

2.1. ~국

① 김치국	김칫국 [--ㅅ]
② 고기국	고깃국 [--ㅅ]
③ 선지국	선깃국 [--ㅅ]
④ 북어국	북엇국 [--ㅅ]
⑤ 만두국	만듯국 [--ㅅ]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2.2. ~말

① 혼자말	혼잣말 [혼잔말]	혼잣속, 혼잣소리
② 뒤말	뒷말 [뒤말]	뒷가지, 뒷감당
③ 시체말	시킷말 [시첸말]	시체병(유행병)
④ 머리말	머리말 [머리말]	머릿돌
⑤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인사치레
⑥ 나라말	나라말 [나라말]	나라돈, 나라일

-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ㄹ’일 때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잇몸[인몸], 빗물[빈물]

2.3. ~방

① 빨래방	빨랫방 [--방]	빨랫감
② 노래방	노랫방 [--방]	노랫말
③ 가게방	가겟방 [--뺑]	
④ 구두방	구둣방 [--뺑]	
⑤ 공부방	공붓방 [--뺑]	공붓벌레
⑥ 전세방	전세방 [--뺑]	전셋집, 셋방

-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백지장(白紙張), 기차간(汽車間)



- ☞ ‘한자어+한자어’ 구성이지만 사이시옷이 붙는 것이 있다.(6개)
 곳간, 찻간, 뒷간, 셋방, 숫자, 횃수

2.4. 위/윗

- | | |
|------|----|
| ① 위면 | 윗면 |
| ② 위옷 | 윗옷 |
| ③ 위쪽 | 윗쪽 |
| ④ 위층 | 윗층 |

- ☞ 합성어에서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ㄱ, ㄷ, ㅂ, ㅅ)이거나 거센소리(ㅋ, ㅌ, ㅍ)이면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 ☞ 위·아래의 구분이 있으면 ‘위-’나 ‘윗-’을 쓰고 위·아래의 구분이 없으면 ‘옷-’을 쓴다.
 웃어른, 웃돈, 웃국¹⁾

2.5. 외래어

- | | |
|-------|-----------|
| ① 장미빛 | 장밋빛 [--빨] |
| ② 핑크빛 | 핑크빛 [--빨] |
| ③ 고기집 | 고깃집 [--찜] |
| ④ 피자집 | 피자집 [--찜] |

- ☞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2.6. 수학 용어

- | | |
|-------|-----|
| ① 꼭지점 | 꼭짓점 |
|-------|-----|

1) 웃국: 간장이나 술 따위를 담가서 익힌 뒤에 맨 처음에 떠낸 진한 국.



② 소수점	소숫점	
③ 대표값	대푯값	대표치
④ 절대값	절댓값	절대치
⑤ 최소값	최솟값	최소치
⑥ 최대값	최댓값	최대치
⑦ 근사값	근삿값	근사치
⑧ 고유값	고윳값	고유근, 고유치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생각할 문제]

- ‘햇님’과 ‘해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 도로명 ‘개나리길’은 ‘개나릿길’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3. 활용

3.1. ‘날다’와 ‘거칠다’의 활용

- ① 나는 하늘을 {나는/날으는} 슈퍼맨이다.
- ② {거친/거칠은} 별판으로 달려가자.
- ③ {낯선/낯설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연은 보통 바람이 불 때 잘 {날/날음}.
- ⑤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몹시 {낯설/낯설음}.

☞ ‘ㄹ’ 받침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ㄴ’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어간의 ‘ㄹ’이 떨어진다.



날- + -는 ⇒ 나는

알- + -는 ⇒ 아는

거칠- + -(으)ㄴ ⇒ 거친

낮설- + -(으)ㄴ ⇒ 낮선

☞ 명사형 어미 ‘-ㅁ/음’은 결합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는 ‘-ㅁ’이 붙고 받침이 있는 어간에는 ‘-음’이 붙는다.

가- + -ㅁ ⇒ 감

예쁘- + -ㅁ ⇒ 예쁨

날- + -ㅁ ⇒ 낱

낮설- + -ㅁ ⇒ 낮섬

먹- + -음 ⇒ 먹음

좋- + -음 ⇒ 좋음

3.2. ‘맞다’와 ‘알맞다’의 활용

① 내 육감은 잘 {맞는/맞은} 편이다.

② 그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않은} 것 같다.

③ 이 집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않은} 적이 없다.

④ 빈칸에 {알맞는/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⑤ 학생 신분에 알맞지 {않는/않은} 옷차림

⑥ 분위기에 {걸맞는/걸맞은} 옷차림

☞ ‘맞다’와 ‘알맞다, 걸맞다’는 품사가 달라서 활용하는 모습도 다르다.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가 결합하면 ‘맞다’는 ‘맞는’이 되고 ‘알맞다, 걸맞다’는 ‘알맞은, 걸맞은’이 된다.

맞- + -는 ⇒ 맞는

가는 사람, 먹는 곳

알맞- + -은 ⇒ 알맞은

예쁜 사람, 좋은 곳

☞ ‘-지 않다’에서 보조 용언 ‘않다’의 품사는 앞에 오는 말의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않는 옷

가지 않는 사람

알맞지 않은 옷

예쁘지 않은 사람

3.3. ‘되다’의 활용

- | | |
|--------------------------------|------|
| ① {됐으니까/됐으니까} 그만 가자. | 했으니까 |
| ② 어서 의사가 {되라/돼라}. | 해라 |
| ③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기도했다. | 하라고 |
| ④ 의사가 {되니까/돼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 하니까 |

☞ ‘되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되어’가 되고 ‘되어’가 줄면 ‘돼’가 된다.

되- + -어서 ⇒ 되어서/돼서 되- + -었- + -다 ⇒ 되었다/됐다

☞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고’이므로 ‘되어/돼’가 될 수 없다.

되- + -(으)라고 ⇒ 되라고 되- + -어라 ⇒ 되어라/돼라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문어체)로 ‘-(으)라’를 쓸 수도 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써라.(쓰- + -어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라.(쓰- + -(으)라)

3.4. 명령형 어미

- ① 어서 집에 {가라/가거라}.
- ②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가져가거라}.
- ③ 여기 좀 앉아 {있어라/있거라}.
- ④ 피곤할 텐데 어서 {자라/자거라}.
- ⑤ 떠들지 {말아라/마라}.

☞ 해라할 자리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는 ‘-아라/어라’이다. 다만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해라할 자리에 ‘-거라’가 쓰일 수 있다. 참고로 ‘-너라’는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 ‘말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가 된다.

제발 떠나지 마.(말- + -아) 제발 떠나지 마라.(말- + -아라)

☞ 다만 문어체 명령형 어미 ‘-(으)라’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하면 ‘말라’가 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말- + -(으)라)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말- + -(으)라고 하는)

3.5. 어미 ‘-아/어’

① 보라색 옷과 함께 빨았더니 흰옷이 {파래졌다/파레졌다}.

②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퍼래졌다/퍼레졌다}.

③ 아이가 친구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진다/빨게진다}.

④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빨게져서} 들어왔다.

⑤ 누가 {그래/그레}?

☞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ㅗ’면 ‘-아’ 계열의 어미가 붙고 어간의 모음이 ‘ㅓ’나 ‘ㅜ’가 아니면 ‘-어’ 계열의 어미가 붙는다. ‘파랳다’의 어간에 ‘-아’가 붙으면 ‘파래’가 되고, ‘퍼렇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퍼레’가 된다.

파랳- + -아 ⇒ 파래 퍼렇- + -어 ⇒ 퍼레

빨강- + -아 ⇒ 빨개 벌겁- + -어 ⇒ 벌게

다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래, 그래, 저래’가 된다.

[잠깐] 색채어에 붙는 접두사 ‘시-/짓-/세-/셋-’도 뒤에 오는 말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어두음 \ 모음	양성모음	음성 모음
원소리, 거센소리, ‘ㅎ’	새빨갳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시허옇다
울림소리	셋노랑다, 셋말갳다	싯누렇다, 싯털겋다

4. 된소리 표기

4.1. 단어 내부

- | | | |
|--------|------|----|
| ① 깎두기 | 깎뚜기 | |
| ② 딱다구리 | 딱따구리 | 딱딱 |
| ③ 안쓰럽다 | 안쓰럽다 | |
| ④ 눈곱 | 눈꼽 | |
| ⑤ 눈살 | 눈쌀 | |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오빠, 아끼다, 기쁘다, 해쓱하다
‘ㄴ, ㄷ,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살짝, 훨씬, 움짤, 몽땅, 번쩍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국수, 짹둑, 딱지, 낙지, 납작하다

☞ ‘눈곱’과 ‘눈살’은 [눈꼽, 눈쌀]로 소리 나므로 ‘눈꼽, 눈쌀’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곱, 눈살’로 적는다.

곱: 여드름에 앓은 딱지가 떨어져 곱이 흐른다.

살: 주름살, 이맛살

4.2. 어미

- ① 나 집에 {갈게/갈께}.
- ② 아까 집에 같이 {갈걸/갈겔}.
- ③ 시간이 {갈수록/갈쭝록} 일이 더 힘들다.
- ④ 우리, 집에 {갈가/갈까}?



⑤ 이 일을 {어찌할꼬/어찌할꼬}?

☞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ㄹ까?, -ㄹ꼬?, -ㄹ쏘냐?
그렇지 않은 경우	-ㄹ게, -ㄹ걸, -ㄹ시, -ㄹ지, -ㄹ지언정, -ㄹ지라도

4.3. 겹쳐 나는 소리

- | | |
|--------|------|
| ① 푹푹하다 | 쫄쫄하다 |
| ② 쓱쓱쓱 | 썉썉썉 |
| ③ 쓱쓱하다 | 썉썉하다 |
| ④ 유유상종 | 유류상종 |

[생각할 문제]

· ‘낭랑하다, 녹록하다’를 보면 ‘누루이’로 쓸 것 같은데 왜 ‘누누이’로 적을까요?

5. 박이/배기/빼기

5.1. 박이/배기

- | | | |
|---------|-------|--------------------|
| ① 두 살박이 | 두 살배기 | |
| ② 차돌박이 | 차돌배기 | |
| ③ 장승박이 | 장승배기 |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 두는 물건 |
| ④ 알박이 | 알배기 |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

☞ ‘박이’와 ‘배기’의 구분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박다’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은 ‘-박이’를 쓰고 ‘박다’의 의미에서 떨어진 것은 ‘-배기’를 쓴다.



-박이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불박이
-배기	다섯 살배기, 나이배기, 공짜배기

5.2. 배기/빼기

- | | | |
|--------|------|-----------------|
| ① 진짜배기 | 진짜빼기 | |
| ② 이마배기 | 이마빼기 | |
| ③ 육자배기 | 육자빼기 | |
| ④ 악착배기 | 악착빼기 | |
| ⑤ 뚝배기 | 뚝빼기 | |
| ⑥ 곱배기 | 곱빼기 | 곱: 네 곱 다섯 곱의 고통 |

☞ ‘배기’와 ‘빼기’의 구분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배기]로 소리 나는 것은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다만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ㄱ, ㄴ’ 받침 뒤에 쓰인 ‘ㅂ’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빼기’로 적지 않고 ‘배기’로 적는다.

~배기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	포배기 ²⁾ , 주정배기, 혀짤배기
	한 형태소 내부, ‘ㄱ, ㄴ’ 받침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학배기 ³⁾ , 뚝배기
~빼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밥빼기 ⁴⁾ , 억척빼기, 코빼기

[생각할 문제]

- 서울 상도동에 있는 지명 ‘장승배기’는 ‘장승박이’와 다른 것일까요?

6. -이/히

- ① 깨끗이 깨끗히

- 2) 포배기: 한 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일. /포: ‘거듭’의 옛말. 포배기(胞胚期)
 3) 학배기: 잠자리의 애벌레.
 4) 밥빼기: 동생이 생긴 뒤에 샘내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



- | | |
|-------|-----------|
| ② 같이 | 같이 |
| ③ 곰곰이 | 곰곰히 |
| ④ 번번이 | 번번히 |
| ⑤ 급이 | 급히 [그피] |
| ⑥ 깊숙이 | 깊숙이 [김쭈기] |
| ⑦ 솔직이 | 솔직히 [솔찌키] |

☞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발음이다.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사전을 확인해 봐야 한다.

- 1) ‘ㅅ’ 받침 뒤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 2)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이나 ‘ㄷ’ 불규칙 용언 뒤
굳이, 깊이, 많이, 실없이/ 가벼이, 기꺼이, 너그럽이, 즐거이, 새로이
- 3) 부사 뒤
더욱이, 오뚝이, 일찍이, 허죽이
- 4) 첩어 또는 준첩어 명사 뒤
간간이, 나날이, 곳곳이, 째째이, 철철이

7. 이에요/이에요

- | | |
|-------------|-----------|
| ① 학생이에요 | 학생이에요 |
| ② 친구예요 | 친구여요 |
| ③ 김진석이에요 | 김진석이에요 |
| ④ 김진수예요 | 김진수여요 |
| ⑤ 영숙이에요 | 영숙이에요 |
| ⑥ 아니에요(아녜요) | 아니여요(아녀요) |



☞ ‘이에요’와 ‘이어요’는 복수 표준어로 ‘이다’에 ‘-에요’, ‘-어요’가 붙은 말이다.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가 되고, 받침 없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학생이에요’처럼 쓸 수 없다.

☞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어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예요, 여요’가 붙는다. ⑤의 ‘영숙이에요, 영숙이여요’는 ‘영숙이’에 ‘예요, 여요’가 붙은 것이다.

☞ ‘아니다’의 어간에 ‘-에요, -어요’가 붙으면 ‘아니에요, 아니어요’가 되며 이들은 ‘아녜요, 아녀요’로 줄 수 있다.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8.1. -던/든

- ① 예전에 {먹던/먹든} 음식
- ② 내일 {가던지/가든지} 해라.
- ③ 철수가 {뒤편가/뒤편가}?

☞ ‘-던’과 ‘-든’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의미가 다른 말이다.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든’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던’이 들어 있는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등도 모두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8.2. 그리고 나서

- 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차를 마셨다.
- ②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차를 마셨다.



☞ ‘-고 나서’는 ‘가고 나서, 먹고 나서’처럼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고 나서’가 붙은 말이므로 ‘그러고 나서’로 쓰는 것이 맞다.

☞ ‘-고는’도 ‘먹고는, 쉬고는, 말하고는’처럼 ‘-고’ 앞에 동사의 어간이 온다. 그러므로 ‘그러고는’이 맞다.

8.3. 하므로/함으로

- ①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 ②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낀다.

☞ ‘하므로’는 ‘하다’의 어간에 어미 ‘-(으)므로’가 붙은 말이고,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가 붙은 말이다. 조사 ‘으로’ 뒤에는 ‘씨’가 붙을 수 있지만 어미 ‘-(으)므로’ 뒤에는 ‘씨’가 붙을 수 없다.

8.4. 떼다/떠다/띄다

- ①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떼기로/띄기로} 했다.
- ② 미소를 {띤/떠} 얼굴
- ③ 멀리서도 눈에 {띤다/떠다}.

☞ ‘떼다, 떠다, 띄다’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뜻이 다르다.

떼다	벽보를 떼다, 한글을 떼다, 젓을 떼다, 눈을 떼다, 입을 떼다
떠다	허리띠를 떠다, 임무를 떠다, 미소를 떠다, 흥조를 떠다
띄다	① 눈에 띄다(뜨이다) ② 두 줄을 띄다(띄우다)

◆ 정 답 ◆

1. 두음법칙

- 1.1. ①답란 ②가십난 ③어린이 난 ④생산량 ⑤스칼라양 ⑥기름 양
1.2. ①합격률 ②기준율 ③감소율
1.3. ①반입자 ②소립자 ③물염치 ④파렴치 ⑤오뉴월 ⑥삼십육

2. 사이시옷

- 2.1. ①김칫국 ②고깃국 ③선짓국 ④복엿국 ⑤만듯국
2.2. ①혼잣말 ②뒷말 ③시쳇말 ④머리말 ⑤인사말 ⑥나라말
2.3. ①빨래방 ②노래방 ③가갯방 ④구뚫방 ⑤공부방 ⑥전세방
2.4. ①윗면 ②윗옷 ③위쪽 ④위층
2.5. ①장밋빛 ②핑크빛 ③고깃집 ④피자집
2.6. ①꼭짓점 ②소수점 ③대푯값 ④절댓값 ⑤최솟값 ⑥최댓값 ⑦근삿값 ⑧고삿값

3. 활용

- 3.1. ①나는 ②거친 ③낮선 ④낯 ⑤낯설
3.2. ①맞는 ②얙는 ③얙은 ④알맞은 ⑤얙은 ⑥결맞은
3.3. ①됐으니까 ②돼라 ③되라고 ④되니까
3.4. ①가라/가거라 ②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있어라 ④자라 ⑤마라
3.5. ①파래졌다 ②퍼레졌다 ③빨개진다 ④빨개져서 ⑤그래

4. 된소리 표기

- 4.1. ①깍두기 ②딱따구리 ③안쓰럽다 ④눈곱 ⑤눈살
4.2. ①갈게 ②갈걸 ③갈수록 ④갈까 ⑤어찌할꼬
4.3. ①끗끗하다 ②쓱쓱하다 ③쓱쓸하다 ④유유상종

5. 박이/배기/빼기

- 5.1. ①두 살배기 ②차돌박이 ③장승박이 ④알배기
5.2. ①진짜배기 ②이마빼기 ③육자배기 ④악착빼기 ⑤뚝배기 ⑥곶빼기

6. -이/히

- ①깨끗이 ②같이 ③곰곰이 ④번번이 ⑤급히 ⑥깊숙이 ⑦솔직히



7. 이에요/이어요

- ①학생이에요/학생이어요 ②친구예요/친구여요 ③김진석이에요/김진석이어요
④김진수예요/김진수여요 ⑤영숙이에요/영숙이여요 ⑥아니예요/아니어요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 8.1. ①먹던 ②가든지 ③뭐라던
8.2. ①그리고 나서 ②그리고는
8.3. ①공부하므로 ②공부함으로(써)
8.4. ①떼기로 ②땀 ③뵈다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원리

띄어쓰기 원리는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으로 제시한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¹⁾ 흔히 조사는 단어로 다루어진다. 그렇지만 조사를 띄어 쓰는 일은 없다.

《한글 맞춤법》 제41항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사가 단어인데도 붙여 쓰는 것을 보면 단어의 개념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단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자립성과 의존성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1)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2)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1) 띄어쓰기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 만한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국어사전 찾기를 불편해한다면 컴퓨터의 한글 문서 편집기에 들어 있는 문서 교정 기능을 이용하기를 권하고 싶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의 문서 편집기는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 놓아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3) ㄱ. 무얼 보니? 하늘

ㄴ. 어딜 가니? 바다

(3)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4)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4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의존하고 있고 (4ㄴ)의 ‘-습니다’는 ‘먹-’에, (4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는 말들을 떼어 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존적인 요소가 둘 이상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다.

(5) ㄱ. 서울에서처럼만

ㄴ. 좋-습니다그러

(5ㄱ)의 ‘에서’, ‘처럼’, ‘만’과 (5ㄴ)의 ‘-습니다’, ‘그러’는 모두 의존적인 요소이므로 언제나 붙여 쓴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자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판정하는 일은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만 띄어 쓰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가 바로 그것이다.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말에 의존적이다. 그렇지만 (6)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와 의미와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명사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6) 먹을 것(밥)이 없다.

국어에서 의존적인 요소로는 ‘어미, 조사, 접사’ 등을 들 수 있다. 사전에는 의존 요소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띄어쓰기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7) ㄱ. 개-

ㄴ. -었-

ㄷ. -는구나

위의 ‘개-’는 ‘개살구’와 같이 뒤에 오는 말에 의존한다는 뜻이고 ‘-었-’은 ‘먹었다’와 같이, ‘-는구나’는 ‘먹는구나’와 같이 다른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띄어쓰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자립적인 요소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한다.

(8) ㄱ. 어디선가 귀를 찢을 듯한 큰 소리가 들렸다.

ㄴ. 철수는 말로는 언제나 큰소리만 친다.

(8ㄱ)의 ‘큰 소리’와 (8ㄴ)의 ‘큰소리’는 의미가 다르다. ‘큰 소리’는 소리가



큰 것이지만 ‘큰소리’는 소리가 큰 것과는 관계없이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

(9) ㄱ. 철수가 시험에 안 났어.

ㄴ. 그래서 모두 철수가 안돼 보인다고 했구나.

(9ㄱ)의 ‘안 되다’는 ‘되지 않다’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9ㄴ)의 ‘안되다’는 ‘안쓰럽다’의 의미다. ‘안’과 ‘되다’의 의미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안되다’는 띄어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긴 ‘안되다’는 붙여 쓴다.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10) ㄱ. 노루√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돌아가다’는 ‘돌아’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1) ㄱ.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돌아(서)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돌아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 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

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12) 서류를 찢어V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13)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V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 용언의 경우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붙이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 용언 구성이 합성어와 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4) ㄱ.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 간다.

ㄴ.*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서 간다.

‘죽어 간다’는 ‘죽다’에는 의미 변화가 없고 ‘간다’에만 의미의 변화가 있다.

이는 구성 요소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합성어와는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14ㄴ)처럼 중간에 ‘서’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점은 합성어와 동일하다. 이처럼 합성어와 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어 지다’와 ‘-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다 보조 용언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어 지다’는 타동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 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점에서 언제나 붙여 쓰는 것만 가능하다.

(15) ㄱ. 뜻을 이룬다. → 뜻이 이루어진다.

ㄴ. 꽃이 예쁘다. → 꽃을 예뻐한다.



‘뜻이 이루어진다’나 ‘꽃을 예뻐한다’와 같이 띄어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뜻이 이루어진다’와 ‘꽃을 예뻐한다’로 붙여 써야 한다.

3. 조사의 띄어쓰기

조사는 학교 문법에서 단어로 다룬다. 그렇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체언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띄어 쓰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16) ㄱ. 겹침:

집에서처럼 / 학교에서만이라도 / 여기서부터입니다 / 너마저도

ㄴ. 어미 뒤:

나가면서까지도 / 들어가기는커녕 / 갈게요 / “알았다.”라고

아래의 밑줄 친 말들은 조사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앞말과 띄어 쓰는 일이 많다.

(17) ㄱ.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은 처음 봤다.

ㄴ. 역시 친구밖에 없어.

ㄷ.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던데?

ㄹ. “알았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

ㅁ.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너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단 ‘너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조사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너 같은’의 ‘같은’ 또한 조

사가 아니다. ‘밖에’는 조사인 경우와 명사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조사로 쓰일 때는 서술어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는 특징이 있다.

- (18)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이 밖에도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의 ‘밖에’는 조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과는커녕’은 ‘사과는∨커녕’으로 띄어 쓰는 일이 많지만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알았구나.”라고의 ‘라고’는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그러므로 앞말과 띄어 쓰지 않는다. ‘라고’와 비슷한 ‘하고’는 조사가 아닌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19) ㄱ.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뿐만∨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많다. ‘뿐만’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아니라’가 옳다. ‘뿐만’은 명사 뒤에서는 조사이고 관형형 어미 뒤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²⁾

- (20) ㄱ. 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

2) 요즈음 ‘뿐만 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4. 어미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미와 의존 명사는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문법에 대한 지식을 특별히 갖추지 않은 보통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렵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1) ㄱ.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ㄴ.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21ㄱ)의 ‘-는데’는 하나의 어미이고 (21ㄴ)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가 다르다는 설명은 웬만한 문법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는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³⁾

(22) ㄱ. 학교에 가는데에 (결합 불가능)

ㄴ. 이 일을 하는 데에..... (결합 가능)

‘학교를 가는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으므로 붙여 쓰고 ‘이 일은 하는 데에’는 ‘에’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다음도 ‘에’를 상정할 수 있어서 ‘데’를 띄어 쓰는 경우다.

(23) 얼굴이 예쁜 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바’도 두 가지 경우를 혼동하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3)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 (24)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 없다.

(24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4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4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고 할 수 있다.

- (25)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25)를 ‘도착했는V지’로 띄어 쓰는 것은 잘못이고 ‘도착했는지’로 붙여 써야 옳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ㄴ지’가 하나의 어미라는 문법적 사실을 외우기보다는 (25)와 (26)이 의미가 같고 띄어쓰기 또한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 (26)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국어의 화자 중에 ‘도착했는가’를 ‘도착했는 가’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했는가’와 ‘도착했는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했는지’로 붙인다고 이해하는 것이 ‘-ㄴ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할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할까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또한 이렇게 이해하면 아래와 같이 ‘ㄴ’과 ‘지’를 띄어 쓰는 경우도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28)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28)의 ‘떠난 지’는 문법적으로 관형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구성은 주로 ‘시간의 경과’를 뜻하며 띄어 쓴다는 점에서 (25)의 ‘-ㄴ지’ 구성과는 다르다.

이 둘의 띄어쓰기는 틀리는 일이 많다. 그렇지만 (25)의 ‘도착했는지’는 ‘도착했는가’로 바꿀 수 있는 반면 (28)의 ‘떠난 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로는 ‘간’과 ‘만’이 있다. ‘간’은 접미사와 의존 명사로 쓰이고 ‘만’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쓰인다.

‘간’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렇지만 ‘거리’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지’나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의존 명사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29) ㄱ. 한 달간, 십 년간 (시간)
 ㄴ.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 (거리)

‘만’이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주로 ‘한정’이나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 (30) ㄱ. 철수만 오너라. (한정)
 ㄴ. 키가 형만 하다. (비교)

‘만’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다. 이때는 주로 ‘만에’, ‘만이다’, ‘만이야’의 꼴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 (31) ㄱ. 십 년 만에 만난 친구
 ㄴ. 이게 얼마 만이야.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 V 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은 두 가지로 쓰인다.

- (32) ㄱ. 강아지가 송아지만 V 하다.
 ㄴ. 음악이 들을 V 만하다/들을만하다.

‘송아지만 V 하다’의 ‘만’과 ‘하다’를 접미사 ‘만하다’로 다루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⁴⁾ ‘들을 V 만하다/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

의존 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 띄어 쓴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ㄹ 걸’의 띄어쓰기는 ‘ㄹ 것’으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33) ㄱ. 나중에 후회할 걸.
 ㄴ. 후회할 걸 왜 그랬니?

(33ㄱ)의 ‘후회할 걸’은 ‘-ㄹ 걸’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으로 풀 수 없다. 그렇지만 (33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할 것’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걸’로 띄어 쓴다.

- (34) ㄱ. 사랑을 할 거야(←할 것이야)
 ㄴ. 내일 뭐 할 거니(←할 것이니)

이러한 점은 ‘터’가 들어 있는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다. ‘할 터인데’, ‘갈 터이야’로 풀 수 있으므로 ‘할 텐데’와 ‘갈 테야’로 띄어 쓴다.

- (35) ㄱ. 비가 와야 할 텐데(←할 터인데)
 ㄴ. 나는 집에 갈 테야(←갈 터이야)

4) ‘송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송아지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만하다’가 접미사라면 보조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5. 관형사의 띄어쓰기

관형사는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의 예는 띄어쓰기를 잘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6) ㄱ. 각(各) 가정, 각 개인, 각 학교, 각 부처, 각 지방
 ㄴ. 고(故) 홍길동/고인(故人), 귀(貴) 회사/귀사(貴社)
 ㄷ. 동(同)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음.
 ㄹ. 만(滿) 나이, 만 15세
 ㄹ. 매(每) 경기, 매 회계 연도, 별(別) 사이가 아니다.
 ㄷ. 연(延) 10만 명, 전(全) 국민
 ㅅ. 갖은 양념, 탄 일, 맨 꼭대기, 못 백성, 새 신, 온 식구
 ㅇ. 온 사람이 몇 명이나?

(36ㄴ)에서 ‘고 홍길동’과 ‘고인’의 띄어쓰기가 다른 것은 ‘고인’의 경우 ‘인(人)’이 비자립적인 일 음절 한자어이므로 띄어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귀 회사, 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수 표현의 띄어쓰기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 (37)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삼천사백오십육만∨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스물여섯’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살’과 결합할 때는 ‘스물여섯∨살’로 띄어 쓴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조금 다르다.

- (38) ㄱ. 스물여섯∨살
 ㄴ. 26∨살(원칙)/26살(허용)

즉 한글로 적는 경우에는 ‘스물여섯∨살’만 가능하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 경우에는 ‘26살’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아라비아 숫자와 다음의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현실의 직관을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6∨살’보다는 ‘26살’로 쓰는 일이 많다.

아래와 같이 ‘제-’가 붙어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의 띄어쓰기 또한 혼동하는 일이 많다.

- (39) ㄱ. 제2∨차 회의(원칙)
 ㄴ. 제2차 회의 (허용)
 ㄷ. 제∨2차 회의(잘못)

‘제-’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오는 말에 붙여 써야 하고 ‘차’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39ㄱ)이 원칙이고 (39ㄴ)은 허용된다. (39ㄷ)처럼 쓰는 일이 많지만 이는 잘못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다음의 단위 명사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으로 단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 전문어와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전문어의 띄어쓰기 원칙은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일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 항)”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서 제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0)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V미륵보살V반가V사유상

(40ㄱ)과 (40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41)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라고 되어 있다. 단위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자연스러운 띄어쓰기 직관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42) ㄱ. 서울V대학교V의과V대학V부속V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V의과대학V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42ㄱ)보다 (42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

5)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V현대V미술관’, ‘국립V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V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서는 위의 (42)와 같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래는 고유 명사지만 이러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43) 이순신/이충무공, 황보민/황보 V 민

사람의 성과 이름은 언제나 붙여 쓴다. 호가 올 경우도 마찬가지다. 띄어 쓸 수 있는 경우는 ‘황보민’과 같이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이다. 외래어 인명은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르되 관용에 따른 띄어쓰기도 허용한다.

(44) ㄱ. 돈 V 조반니/돈 V 카를로스, 돈키호테/돈키호테형 인물
 ㄴ. 모택동/마오쩌둥, 도요토미 V 히데요시

지명은 우리나라 지명과 외래어가 포함된 지명의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45) ㄱ. 경기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ㄴ. 태백-산, 소백-산맥, 낙동-강, 태안-반도, 나주-평야
 ㄷ. 아칸소 V 주, 카리브 V 해/동지나해(東支那海)
 ㄹ. 이탈리아 V 어/이탈리아어, 이태리어(伊太利語)

‘카리브 V 해’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외래어와 외래어가 아닌 요소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V 어’는 띄어 쓸 수 있지만 ‘이태리어’는 띄어 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8. 외래어의 띄어쓰기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 (46)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 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림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아래의 예는 준말이나 음운론적 융합이 일어난 말로 이때에도 붙여 쓴다.

- (47) 애드벌룬(ad balloon), 에어컨(air conditioner), 리모컨(remote control),
오므라이스(omlet rice), 오토바이(auto bicycle), 오피스텔(office
hotel)/아이큐(IQ)



띄어쓰기 연습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어, ‘띄어쓰기’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띄어쓰기’와는 상관없이, 위 문장의 의미를 보통 전자 쪽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처럼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한국대학교의과대학’처럼 붙여 쓴 경우보다 의미를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인데,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현행 맞춤법에서 채택한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띄어 쓸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가)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나)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다)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라)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가)의 경우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어 잘게 띄어 써 봤다. 그러다 보니 조사 ‘에서, 를, 는’, 어미 ‘-다’, 관형사 ‘두’, 의존 명사 ‘수’를 모두 띄어 썼는데 언뜻 보아도 비실용적이다. 반면 (나)에서는 조사와 어미, 관형사와 의존



명사를 모두 앞말에 붙여 써 봤는데, 흔히 이렇게 띄어쓰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에서는 의존 형식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자립 형식인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 써 보았다. 끝으로 (라)에서는 통사적인 구절 단위로 끊어 보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읽을 때 끊어지는 단위와 비슷하다. 이들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현행 맞춤법은 (다)처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맞춤법 제1장 제2항)

〈참고〉

1. 단어(*)의 정의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김, 좋다, 꼭, 그 등
(☺ 단어의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문이
나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단어일 확률이 높다.

2. 단어의 구성별 종류

- | | |
|--------------------|--------------------------|
| ① 단일어(어근) | 김, 밥, 돌다, 가다 등 |
| ② 합성어(어근 + 어근) | 김밥, 나뭇잎, 돌아가다, 뛰어놀다 등 |
| ③ 파생어(접두사(*) + 어근) | 중환자, 총감독, 휘돌다, 치닫다 등 |
| (어근 + 접미사(**)) | 선생님, 김씨(김가), 생각하다, 체하다 등 |

3. 단어의 품사별 종류

- ① 명사(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 ② 조사(*)
 - ③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 & 어미(*), 본용언 & 보조 용언(**))
 - ④ 관형사(*), 부사
 - ⑤ 감탄사
- (* 표는 현행 맞춤법의 ‘띄어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

<질문 1> 단어는 모두 띄어 쓰나요?



답: 그렇다. 원칙적으로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면 두 단어를 붙여 쓰지만, ‘우리 집’처럼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사[이, 가, 을, 를, 에, 에서 등]’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질문 2>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앞에서 밝힌 ‘조사’ 외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가 있다. 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重)-’, ‘-별(別)’, ‘-었-’처럼 ‘붙임표(-)’로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붙여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앞에서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단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기준 1.

- 강의실 밖에서 {큰소리/큰√소리}가 들린다.
- 김 과장은 늘 {큰소리/큰√소리}만 친다.

두 단어가 연속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새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도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소리’가 음성이나 음향과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큰 것을 의미한다면,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소리’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풍, 과장’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한 단어로 보고 붙여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저녁에 술 {한잔/한√잔} 합시다.
-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 (3) 이번 면접이 잘 {안되었대요/안√되었대요}
- (4) 그래서 풀 죽어 있는 것을 보니 {안됐더라/안√됐더라}.
- (5) 우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로 정하자.
-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같이√할} 것이다.
- (7) {큰형/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 (8) {우리학교/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 (9) 이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전매√제한}이 없다.
- (10) 강남권에 {물량집중/물량√집중}이 극심하다.

기준 2.

- 대통령은 은퇴한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돌아√갔다}.
- 골목 끝에서 {돌아서갔다/돌아서√갔다}.

답: 두 단어가 연속될 때 단어인지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김밥’처럼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면 긴밀성이 강해서, ‘김에밥*’처럼 다른 말이 삽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예에서는 ‘돌아서갔다’와 같이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다면, 긴밀성이 약하여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겠고,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면 긴밀성이 강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겠다.

연습 문제

- (11) 방 안을 {둘러보았다/둘러√보았다}.
- (12)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 (13)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 (14)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 (15)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꿨다.

4.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질문 1> 조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에도 붙여 쓰나요?

-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답: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에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조사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집’ 뒤에 있는 ‘에서-만-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전부 앞말에 붙여 써야겠다. 또한 어미 뒤에 조사를 쓸 경우에도 붙여 쓴다.

연습 문제

- (1)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질문 2> 다음 예도 조사인가요?

- 역시 {친구밖에/친구√/밖에} 없어.
- {이밖에/이√/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다.

답: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은, 는, 이, 가, 을, 를, 에서’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밖에, 같이, 는커녕, 라고, 그럭’ 등이 조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 예의 ‘밖에’에서 ‘밖’은 명사로 조사 ‘에’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그 자체가 조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뒤에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런 쓰임이 아닐 경우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다. 아래에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몇몇을 정리하였다.



〈참고〉 혼동하기 쉬운 조사

같이, 그러, 깨나, ㄴ즉슨, ㄴ커녕, 나마, 더러, 마는, 마따나, 마저, 만쥬, 말고, 밖예, 보고, 부터, 뿐, 서부터, 라고, 야말로, 에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고, 하며, 한테 등

연습 문제

- (4)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 (5)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 (6) 철수는 {너하고/너√하고} 다했다.
- (7)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 (8)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 (9) {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 (10) 그 계획 {좋습니다그러/좋습니다√그러}.
- (11) {이야긴즉슨/이야긴√즉슨} 이렇다.
- (12) {빨리는커녕/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답: '같이'는 '같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부사로도 조사로도 사용된다. 먼저 부사인 경우에는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모두와 같이 했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의 뜻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인 경우에는 '① '처럼'의 뜻(눈같이 흰 꽃),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매일같이 지각하다.)'하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같이'가 부사인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인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앞말에 '와' 같은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은 '같다'라는 형용사의 관형형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질문 1> 의존 명사가 무엇인가요?

- 진상을 {들은바/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가} 없다.

답: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 의존 명사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 주요 의존 명사의 목록과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참고> 주요 의존 명사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에, 무렵, 바, 켜, 켜,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참고> 의존 명사 구별 방법

- ① 그 자리에 다른 명사를 대치할 수 있나?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
- ②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다. → 수가)
- ③ 앞에 기릴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나?(먹을 만큼 먹어라 → 먹을)

연습 문제

- (1)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 (2) {너때문에/너√ 때문에} 힘들었다.
-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 (4)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 (5)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6)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나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름’이나 ‘때문’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제 나름대로’ 혹은 ‘그 때문에’처럼 기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2>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조사인가요?

- 이름이 나지 {않았을뿐이지/않았을/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통일/뿐이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조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앞에 기대는 말이 용언류라면 의존 명사이고, 명사류라면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않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을 띄어 쓰고, ‘통일’은 명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은 붙여 써야겠다.

연습 문제

- (7) {뜸나는대로/뜸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 (8) 처벌은 {범대로/범/대로} 해야 한다.
- (9)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 (10)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 (11) 그가 화를 {넌만도/넌/만도} 하다.
- (12)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 (13) 그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만’은 의존 명사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 가능성’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조사로는 ‘한정, 비교’를 의미한다.

<질문 3>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어미인가요?

- 그 책을 다 {읽는데/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어미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의 예를 살펴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때’는 ‘곳, 일,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는데’는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렇게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혼동이 될 때는, 그 혼동되는 형식 뒤에 조사를 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사는 명사류에 결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조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연습 문제

- (14)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15)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 (16)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17)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18)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 (19)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질문 4>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접미사인가요?

- {수일내/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그는 {저녁내/저녁√/내} 안 보였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접미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내’는 ‘여름내, 마침내, 끝내’처럼 일부 기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이지만, ‘기간√/내, 단지√/내, 안전선√/내’처럼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뜻으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20)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1)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 (22)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 (23)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감√/들}이 있다.
- (24) 백화점에는 {사람들/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15회/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규정]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연습 문제

- (1) {스물여섯/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연습 문제

- (1) {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
- (2)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 (3)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 (4) {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 (5)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 (6) 사진, 그림, {영화등등/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숙/감/등숙}을 샀다.
- (8) 충주, 청주, {대전등지/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 시의 띄어쓰기

[규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질문> 단음절로 된 모든 단어는 붙여 쓸 수 있나요?

- 헬썬 {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이야.
- {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 책상

답: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좀 더 큰 이 새 집’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독서 능률이 감퇴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큰 이 새집’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더/큰/새집’으로 붙여 쓸 수는 있지만 ‘더큰/새집’처럼 붙여 쓸 수는 없고, ‘더/큰/이/새’의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이 낮겠다.
- (2) {내것네것/내것/네것/내/것/네/것}이 어디 있냐?
- (3) {이곳/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 (4) {그때/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 (5) {전날/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답: ‘이곳, 그때, 전날’과 같은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은 1음절 단어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어를 ‘이√곳, 그√때, 전√날’처럼 띄어 쓰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질문 1> 보조 용언이 무엇인가요?

- 선물을 미리 {뜯어버렸다/뜯어√버렸다}
- 화가 나서 선물을 {뜯어서버렸다/뜯어서√버렸다}

답: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래서 앞의 첫 문장에서 ‘뜯어√버렸다’가 원칙이지만 ‘뜯어버렸다’처럼 써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뜯어서√(휴지통에)√버렸다’처럼 두 개의 용언이 모두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둔 본용언이라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고기를 {잡아본다/잡아√본다}.
- (2) 고기를 {잡아서본다/잡아서√본다}.
- (3) 사과를 {깎아드린다/깎아√드린다}.
- (4) 사과를 {깎아서드린다/깎아서√드린다}.

<질문 2> 보조 용언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나요?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도와√드린다}.



-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가고√싶다}.

답: 여기서의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 한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첫 문장의 경우에는 ‘도와드리다’처럼 붙여 써도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가고√싶다’처럼 띄어 써야겠다.

연습 문제

- (5) 나무가 {늘어간다/늘어√간다}.
-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 (8)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 (9)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 (11)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 (12)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싶다/올듯√싶다/올√듯싶다}.
- (13)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15)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올√듯도√싶다}.

붙여 써도 되는 보조 용언이라 하더라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예: 덩벼들어√보아라, 놓아두어√보았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질문 3> 이것은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왜 띄어 쓰면 틀렸다고 하나요?

- 오늘 유난히 글이 잘 {써진다/써√진다}.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예뻐하신다/예뻐√하신다}.

답: ‘-아/어’로 연결된 ‘지다’와 ‘하다’는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아/어’로 연결된 ‘지다’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특



별한 제약 없이 대부분의 용언과 두루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이는 마치 하나의 문법 요소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어 지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잘못된 아니다.

‘-아/어’로 연결되는 ‘하다’ 또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이를 모두 붙여 쓰고 있다. 이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루 결합하여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이러한 부류의 말을 모두 ‘-아/어하다’와 같이 붙여 쓴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김소월/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 (2) {채영신씨/채영신√씨}가 여기에 계십니까?
- (3) {김씨/김√씨}가 이 일을 했다.
- (4) {김씨/김√씨}들은 다 그래?
- (5) {황보영/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대한중학교/대한√중학교}
-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

-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답: ‘한국 교육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단위를 뜻한다.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
(2)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3) {두팔들어기슴벌리기/두팔들어√기슴벌리기/두팔√들어√기슴√벌리기/
두√팔√들어√기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연습 문제

- (1)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2)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3) {고(故)홍길동/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4) {고(故)인/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5)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6)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7)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8)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 (9) {총(總)32면/총√32면}의 신문
 (10) 우리 부서 금년 예산은 {총(總)5억원/총√5억√원}
 (11) {총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12) {총인원/총√인원}이 40여 명이다.
 (13) {총예산인원/총√예산√인원}이 1,000여 명이다.

답: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1음절로 된 관형사의 경우 종종 붙여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대개 이것을 접두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형태가 관형사로도 접두사(때로는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인 명사 <예> 순수익, 순이익)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들은, 관형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고, 접두사의 경우에는 그 뒤에 몇몇 명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는 사전을 곁에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질문 1> 외래어를 띄어 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 그는 {톱클래스/톱√클래스} 가수이다.

답: 외래어는 원어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이 라고 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준말,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쓴다.

연습 문제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2) 우리 집에는 {에어컨/에어√컨}이 없다.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4) 요즘 {뉴스쇼/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고√스톱}을 쳤다.



<질문 2> 외래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쓰나요?

- 최근에 {아마존강(江)/아마존√강}을 여행했다.
- 요즘 {프랑스어(語)/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 모든 {알코올류(類)/알코올√류}는 중독성이 있다.

답: 외래어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한자어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 단지 ‘외래어 표기법’에 ‘카리브√해, 몽블랑√산’ 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지명은 ‘아칸소√주, 에베레스트√산’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러시아√어/러시아어, 게르만√족/게르만족’처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이슬람력’이나 ‘디자인류’처럼 띄어 쓸 경우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슬람 역’, ‘디자인 유’와 같이 써야 하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고 있다.



♠ 정 답 ♠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 (1) 한잔 (2) 한√잔 (3) 안√되었대요 (4) 안됐더라 (5) 가위바위보 (6) 같이할 (7) 큰형 (8) 우리√학교 (9) 전매√제한 (10) 물량√집중 (11) 둘러보았다 (12) 찾아가서 (13) 주저앉을 (14) 모아√잡고 (15) 주위√담기에

4. 조사의 띄어쓰기

- (1) 나가면서까지도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 (3) 좋아한다기보다 (4) “그래.”라고 (5) “그래.”√하고 (6) 너하고 (7) 소같이 (8) 친구와√같이 (9) 너같이 바보√같은 (10) 좋습니다그려 (11) 이야긴즉슨 (12) 빨리는커녕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1) 내√나름대로 (2) 너√때문에 (3) 들은√척도 (4) 말하는√이가 (5) 할√거니 (6) 할√텐데 (7) 틈나는√대로 (8) 법대로 (9) 주는√만큼 (10) 당신만큼 (11) 널√만도 (12) 백군만 (13) 삼√년√만 (14) 검토한바 (15) 공헌하는√바 (16) 만난√지 (17) 틀렸는지 (18) 떠난걸 (19) 좋아하는√걸 (20) 부모√자식√간 (21) 하든지√간에 (22) 한√달간 (23) 감√들 (24) 사람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1) 15회, 15√회 (2) 제3차, 제3√차 (3) 40여√명 (4) 30세가량, 30√세가량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 (1) 스물여섯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3) 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 (1) 국장√점√과장 (2) 열√내지√스물 (3) 청군√대√백군 (4) 기간√및√경비 (5) 걸상√등 (6) 영화√등등 (7) 감√등속 (8) 대전√등지

9. 단음절어 연속 시의 띄어쓰기

- (1) 좀더√큰집, 좀√더√큰√집 (2) 내것√네것, 내√것√네√것 (3) 이곳 (4) 그때 (5) 전날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1) 잡아본다, 잡아√본다 (2) 잡아서√본다 (3) 꺾어드린다, 꺾아√드린다
(4) 꺾아서√드린다 (5) 늠어간다, 늠어√간다 (6) 이겨냈다, 이겨√냈다 (7)
알아가지고√간다, 알아√가지고√간다 (8) 하고√싶은 (9) 하지√않고 (10)
학자인양한다, 학자인√양한다 (11) 모르는체하고, 모르는√체하고, (12) 올
듯싶다, 올√듯싶다 (13) 물어만√보았다 (14) 떠내려가√버렸다 (15) 올√
듯도√싶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 (1) 김소월 (2) 채영신√씨 (3) 김√씨 (4) 김씨 (5) 황보영, 황보√영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 (1) 대한중학교, 대한√중학교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 한국√대학교√사
범√대학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직속√국가√안전
√보장√회의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1) 만국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 (2)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경화증,
두팔들어가슴벌리기, 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 (1) 각√가정 (2) 각인 (3) 고√홍길동 (4) 고인 (5) 본√국어원 (6) 본원
(7) 순√한국식 (8) 순이익 (9) 총√32면 (10) 총√5억√원 (11) 총인구
(12) 총인원 (13) 총√예산√인원 ※ ‘예산 인원’은 구(句) 구성의 표현이므
로 총(總)과 붙여 쓸 수 없음.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 (1) 아이스크림 (2) 에어컨 (3) 도핑테스트, 도핑√테스트 (4) 뉴스쇼 (5)
고스톱



표준어 규정

1. 머리말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여기서는 ‘사투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룻(해산물), 돛꿩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싹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의 기능

표준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표준어는 모든 국민의 언어생활을 통일하여 누구와도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서로 다른 지역 방언이나 특수어를 멋대로 쓴다면 한 나라 안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언어에서 분화된 방언이라 할지라도 각 지역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제각기 그 지방의 방언으로 주고받는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를 것이다. 이럴 때에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통일(統一)의 기능이라고 한다.

둘째, 표준어는 준법정신을 길러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표준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 언어를 고정시킨 것이다. 때로는 어형(語形)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규범화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일정한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문 규정도 교육(교과서), 행정(공문서) 등의 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정(관련 내용이 ‘국어기본법’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므로 이를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사소한 규정이라도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어느 사이에 준법정신을 길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준거(準據)의 기능이라고 한다.

셋째, 표준어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한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어휘를



콜라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 훈련을 하여야 한다. 공적인 소통 상황에서 공공(남)을 배려하여 말하는 것은 교양을 갖추는 일이 된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을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는 단순히 의사 전달을 위한 도구적 존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표준어는 사투리를 쓰는 데서 오는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도구적 용도 외에 전 국민을 한 덩어리로 묶어 주는 통일의 기능을 비롯하여 준거의 기능, 공적 소통을 위한 교양 형성의 기능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 표준어 규정의 제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 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으로 구분되어 있다.

4.1. 표준어 사정 원칙

4.1.1. 제1장 총칙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제3장 제2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은 표준어를 사정(査定)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 - 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사회적 조건). 표준어는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준어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자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시대적 조건).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지역적 조건).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외래어는 단시일에 결정할 수도 없고, 꽤 유동적인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따로 지속적으로 사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정부가 고시하였는데, 외래어 표기법이 공포된 이후에 국어연구소(국립국어원 전신)에서 인명·지명 편(1986)과 일반 용어 편(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은 동구권 인명·지명 편(1993)과 북구권 인명·지명 편(1995)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있는 외래어 표기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하였다(1998). 또한 1999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사정된 외래어를 거의 다 실고 있다.

4.1.2.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은 발음의 변화와 표기의 개정도 함께 수반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4.1.2.1.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 나발꽃), 칸 (× 간),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미 일반화된 것을 명문화하였다.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뀐 것을 인정하였다. 다만, 고유의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칸막이, 빈칸, 방한 칸’처럼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는데 모두 ‘칸’으로 정하였다.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는데, ‘밑천을 털다’, ‘도둑이 빈 집을 털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제4항 다음 단어는 거센소리를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같이(× 가을카리), 분침(×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낭콩(× 강남콩), 사글세(× 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 부터 떨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강낭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낭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월세(月貰)’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둠), 둘째(× 두째), 셋째(× 세째), 빌리다(× 빌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둠’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乞, 祝’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하였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 - ’로 통일한다.

수평(× 수평, 수평), 수놈(× 수놈), 수소(× 수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 수강아지), 수평아리(× 수평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 - ’으로 한다.

숫양(× 수양), 숫염소(× 수염소), 숫쥐(× 수쥐)

역사적으로 ‘암 - 수’의 ‘수’는 명사 ‘술’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술’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다만 1’은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숯’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지만, 일단은 ‘다만 1’에서 제시된 단어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¹⁾ ‘다만 2’는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숯-’의 형태를 인정하였다.²⁾

4.1.2.2. 제2절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 깡충깡충), - 둥이(× - 둥이), 오뚝이(× 오뚝이)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 × 부주), 사돈(查頓, × 사둔), 삼촌(三寸, × 삼춘)

국어는 모음조화(母音調和)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 그런데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둥이’도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여 ‘-둥이’로 하였으므로 ‘쌍둥이, 귀염둥이, 막둥이’가 표준어이다.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항은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1) ‘수컷’,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퓸지’, ‘수탕나귀’, ‘수키와’, ‘수톨찌귀’는 현대 국어에서 예외적으로 ‘수-’ 뒤에 오는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는다. 그러나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범’ 등의 다른 단어들은 ‘수-’ 뒤의 자음을 거센소리로 적지 않는다(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 1. 참조).

2) ‘숯-’은 제시한 세 단어에 국한하여 적용함. 유사한 음운 환경의 다른 어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외의 단어는 ‘수-’로 표기한다. (예: 숯야크(×)/ 수야크(○), 숯여우(×)/ 수여우(○), 숯지네(×)/ 수지네(○)).



제9항 ‘ㄱ’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나기), 냄비(× 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ㄱ’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 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미쟁이), 멧쟁이(× 멧장이)

‘ㄱ’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떡이다’까지 ‘손잡이, 떡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ㄱ’ 역행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신출나기, 쫓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을 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같은 사례로 ‘아기, 아비, 지팡이’는 표준어이고, ‘애기, 애비, 지팡이’는 비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또한 붙임 2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匠人)에게는 ‘-장이’로, 그 외는 ‘-쟁이’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상당한 단어들이 ‘-쟁이’가 되었는데, ‘요술쟁이, 마술쟁이, 무식쟁이’가 그 예이다(표준어 모음). 따라서 ‘개구장이, 욕심장이’는 비표준어이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미루나무(× 미류나무), 으레(× 으레)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고 ‘ㄴ, ㄷ, ㄹ, ㄹ’ 등의 원순모음을 평순모



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다. ‘확실히 → 학실히, 벼 → 베, 가위 → 가이’ 등이 그런 예이다. 위의 사례에서 든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고 나머지들도 모음이 단순화된 예들이다.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괴팍하다’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 단어의 발음도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으므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다만, ‘팍하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표준어 모음).

제11항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 구료), 깍쟁이(× 깍정이), 나무라다(× 나무래다)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튀기(× 트기)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를 모은 항목이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깍정이’는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나 ‘깍쟁이’가 아니라 ‘깍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다만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여전히 ‘깍정이’이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람’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람’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 → 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12항 ‘웃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 웃눈썹), 윗니(× 웃니), 윗도리(× 웃도리), 윗목(× 웃목),
윗배(× 웃배), 윗입술(× 웃입술), 윗자리(× 웃자리)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썸(× 옷썸), 위썸(× 옷썸), 위썸(× 옷썸), 위턱(× 옷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옷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옷국(× 윗국), 옷돈(× 윗돈), 옷어른(× 윗어른), 옷옷(× 윗옷)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옷’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고자 한 결과이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맞춘 것이다. ‘다만 2’는 발음이 위낙 ‘옷’으로 굳은 단어들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대체로 ‘윗목 - 아랫목’, ‘윗자리 - 아랫자리’처럼 ‘위 - 아래’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윗’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옷 -’을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옷’으로 표기되는 단어를 최대한 줄이고, ‘윗’으로 통일함으로써 ‘옷 - 윗’의 혼란을 거의 줄였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句節, × 귀절), 대구(對句, × 대귀), 시구(詩句, × 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 구글), 글귀(× 글구)

그동안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던 ‘句’의 음을 ‘구’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다. 따라서 ‘귀글, 글귀’는 예외로 하였다.

4.1.2.3. 제3절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떠리(× 또아리), 무(× 무우), 생쥐(× 새앙쥐), 솔개(× 소리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또는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을 뿐 현실 언어에서는 전혀 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대부분 준말 형태를 인정한 이들 말 중 2음절이 1음



절로 된 말은 대개 긴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은 언어생활의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 귀개), 부스럼(× 부럼), 수두룩하다(× 수둑하다)

붙임.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한다.

아래로(× 알로)

본말과 준말 중에서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위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다만 ‘마음/맘, 미음/میم’은 복수 표준어이고, 정월 대보름에 쓰는 ‘부럼’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시누이/시뉘/시누, 외우다/외다, 찌꺼기/찌끼

본말과 준말을 함께 표준어로 삼은 단어들이다. ‘외우다/외다’의 경우 종래에는 ‘외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인데 ‘외우다’가 새로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다. ‘머무르다/머물다’의 경우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머무르-고, 머물-고’처럼 자음 어미(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모음 어미(‘-어’, ‘-어서’, ‘-오’ 등)가 연결될 때는 ‘머무르-어→머물러’로 써야지 ‘머물-어’로 쓸 수 없다. 이것은 ‘가지다’의 준말 ‘갖다’의 모음 어미 활용형 ‘갖어, 갖어라, 갖었다’ 따위가 성립하지 않는 현상(즉, ‘가져, 가져라, 가졌다’로 써야 하는 현상)과 일관성 있게 다룬 것이다.



4.1.2.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³⁾(× 귀엣고리), 꼭두각시(× 꼭둑각시), 너(四, × 네) 돈,
천장(× 천정), -(으)려고(× -(으)르려고), -습니다(× -읍니다)

약간의 발음 차이로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많이 쓰이는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너/넉(四), 서/석(三)’은 예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던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의심이나 원인 따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다만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쓴다.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⁴⁾’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각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명사형 ‘있음, 없음’ 따위를 ‘있습, 없습’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와는 상관이 없다. 같은 예로 ‘먹다’의 명사형은 ‘먹음’이지, ‘먹습’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1.2.5. 제5절 복수 표준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은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이다.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이다.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꺾다/교이다, 꺾다/꼬이다, 죄다/조이다, 꺾다/쪼이다.

3) 여자들이 컷볼에 다는 장식품을 가리킬 때는 ‘귀고리’와 ‘귀걸이’ 모두 쓸 수 있지만 귀를 감싸 막거나 귀에 거는 방한용품은 가리킬 때에는 ‘귀걸이’만 쓸 수 있다.

4) 천장(天障): 1.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함.(=보퉁). 2. 반자의 겉면.<표준국어대사전(1999) 참조>



그동안은 ‘소+1(의)’인 ‘쇠-’와 ‘소’를 모두 인정하여 ‘쇠고기, 소고기’ 모두가 표준어이다. 다른 사례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이다. ‘괴다/고이다’의 명사형은 ‘뀨/고임’이며, ‘괴임’은 쓰지 않는다. ‘고이다’와 ‘괴다’가 모두 복수 표준어이긴 하지만 ‘고인돌(支石墓)’의 경우에는 ‘고인돌’로만 쓰며 ‘뀨돌’로 쓰지 않는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고까/꼬까, 고런내/코런내, 꺼림하다/끼름하다, 나부랭이/너부랭이

어감(語感)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나부랭이/너부랭이’에서 ‘너부랭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랭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1.3.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4.1.3.1. 제1절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 설겅다), 애달프다(× 애답다), 오동나무(× 머귀나무)

‘설겅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 ‘설거지’도 ‘설겅-’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부터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명사 ‘설거지’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설겅이’는 비표준어이다. ‘애답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답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답으니, 애답아서, 애답은’ 등

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4.1.3.2. 제2절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 맹눈), 박달나무(× 배달나무), 사래논(× 사래답)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 개다리밥상), 고봉밥(× 높은밥), 총각무(× 알타리무)

고유어라도 생명력을 잃은 것은 버리고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4.1.3.3. 제3절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쟁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원래 ‘우렁쟁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밑머리(× 컷머리), 빈대떡(× 빈자떡), 코주부(× 코보)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조항이나,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다. 가령 ‘빈자떡’은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4.1.3.4. 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 낫우다), 광주리(× 광우리), 길잡이(× 길압잡이)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셋별(× 새벽별)

술고래(× 술푸대),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입담(× 말담), 주책없다(× 주책이다), 청대콩(× 푸른콩)

제17항은 발음상으로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였음에 반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단어들은 어원을 달리하는 단어들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語順)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不定辭)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4.1.3.5.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물/가물, 가없다/가업다, 개숫물/설거지물, -거리다/-대다, 고깃간/푸줏간, 관계없다/상관없다, 꼬까/때때/고까, 녕쿨/딩굴, 뒷말/뒷소리, 만전/만청, 말동무/말벗, 벌레/머러지, 뽕두라지/뽕루지, 서럽다/앓다, 신/신발,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어튼/여하튼,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이에요/-이어요,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책꽂이/책거리, 혼자되다/홀로되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는 현실 언어생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뭄/가물’ 중에서는 ‘가뭄’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물’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없다/가엿다’는 활용형에서 ‘가없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에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와 ‘에, 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5. 마무리

지금까지 표준어 규정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표준어 사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는 중요한 어문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국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준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 아무리 다듬어진 말과 아름다운 말을 표준어로 정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애를 불러오고 친근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언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지역 우월주의에 빠진다가 다수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표준어 규정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성인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사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간혹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표준어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1990), 표준어 모음, 국어생활 제22호 별쇄.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이승재(1998),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87), “표준어의 기능”, 방송언어연구논총, KBS.
이익섭(1997), “방언”,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희승 · 안병희(1994),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전동기(1988),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개정의 의의”, 문교행정(1988. 2.) 통권 74호, 문교부.
조선어학회(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최용기(1996),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글을 쓰면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발음의 표준에는 무신경하거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도 이러한 경향은 만연하여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정립에 큰 저해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 글은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단어를 발음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자모의 음가와 발음법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일반인들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모음의 발음

모음은 조음 기관의 접촉이나 마찰 없이 폐로부터 나오는 공기를 자유로이 통과시키며 내는 소리로, 표준어에는 다음 21개의 모음이 있다.(‘표준 발음법’ 제3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ㅛ ㅜ ㅠ ㅡ ㅚ ㅜ ㅛ ㅜ ㅠ ㅡ ㅚ



표준어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이 중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표준 발음법’ 제4항) 예를 들어 ‘죄(罪)’라는 발음을 할 때 입을 좁게 동글리면서 끝까지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발음을 한 것이고,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재빨리 펴면서 발음한 것은 이중 모음이다.

‘ㅛ’와 ‘ㅠ’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10개가 되고, ‘[we]’, ‘[wi]’와 같이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단모음이 8개가 된다. 서울에 사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일부 노년층의 서울 토박이들만이 단모음으로 발음할 뿐이고, 대부분의 젊은 층은 이들을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 모음에는 ‘ㅟ, ㅠ,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의 11개가 있다. (‘표준 발음법’ 제5항) ‘ㅟ, ㅠ, ㅢ, ㅤ, ㅧ, ㅨ’는 각각 ‘ㅏ, ㅑ, ㅓ, ㅕ, ㅗ, ㅛ’의 앞에 [j]가 온 상승 이중 모음이고 ‘ㅩ’는 ‘ㅡ’ 뒤에 [j]가 온 하강 이중 모음이다. ‘ㅥ, ㅦ, ㅨ, ㅪ’는 각각 ‘ㅏ, ㅑ, ㅓ, ㅕ’의 앞에 반모음 [w]가 온 것이다.

ㅑ [e] / ㅓ [ɛ]

‘ㅑ’는 ‘ㅓ’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혀의 앞부분을 반 정도 올리고 입술을 편 상태에서 발음하면 된다. ‘지계’를 발음하면서 ‘ㅓ’와 ‘ㅑ’ 모음을 발음할 때 어떻게 조음 위치가 옮겨지는지 느껴 보자.

(예) 계, 가게, 그네, 네모, 모래, 베개, 세모, 어제

제비, 제과, 셋, 넷, 무게, 세수, 지계, 제주도

‘ㅓ’는 ‘ㅑ’보다 입을 좀 더 열고 내는 소리로 입을 제법 벌린 상태에서 혀를 아래턱에 붙이고 혀의 앞부분을 조금만 높여 발음한다. 충분히 닫히지도 않고 충분히 열리지도 않은 소리여서 ‘ㅑ’를 ‘반닫힌소리’라고 하고, ‘ㅓ’를 ‘반열린소리’라고 한다.

(예) 개미, 고래, 배우다, 배추, 새우, 매미, 모래, 새해, 야채

조개, 새, 재미, 해바라기, 노래, 배, 개나리, 내 것



‘케’와 ‘헤’를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은 전남 일부와 경상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요즈음은 서울 지역의 젊은 세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케’와 ‘헤’를 구분하면서 발음하여 보자.

(예) 제법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케으른 여자와 부지런한 게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돈은 네 사람이 나누어 내었다.

재일이가 나와 제일 친한 친구이다.

케 [je] / 헤 [je]

‘케’와 ‘헤’는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각각 ‘케’와 ‘헤’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케’, ‘헤’와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여 구별해야 하는 발음들이다. ‘케’는 ‘예’와 ‘레’에서는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케’로도 발음할 수 있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예산, 예쁘다, 옛날, 의례, 차례

시계[시케/시게] 지혜[지헤/지헤] 혜택[혜:택/혜:택]

그런데 주위의 발음을 들어 보면 ‘레’를 [레]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케’가 자음 뒤에 오게 되면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괴 [ø] / 위 [y], 케 [we] / 헤 [we]

단모음 ‘괴’와 ‘위’는 각각 ‘케’, ‘ㅣ’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데, 입술을 둥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발음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는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발음하여야 한다.

‘괴’, ‘위’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괴[we], 위[wi])에는 ‘ㅜ’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ㄷ’, ‘ㄴ’로 옮기며 발음하여야 한다. ‘내’를 발음할 때에는 입을 충분히 벌려 ‘네[we]’로 소리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ㄴ’을 처음과 끝의 입 모양을 바꾸어 발음하면 ‘네’와 같이 소리 난다.

(예) 외나무, 두뇌, 괴다, 쇠고기, 최고, 툇마루, 기회, 죄
귀, 뉘, 뒤, 쥐, 가위, 뒤주, 위인, 튀다, 들쥐, 성취, 뛰다
궤도, 궤다, 훼손, 웬만큼, 궤짝, 위궤양
꽤, 돼지, 왜, 썰기, 났다, 괜찮다, 극팽이

특히 ‘ㄴ’의 경우 처음에 ‘ㄷ’와 같은 입 모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ㄴ’ 소리가 되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는 ‘ㄴ’과 ‘ㄴ’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그 위치가 옳다 / 그 이치가 옳다
위장이 나쁘다 / 이장이 나쁘다
귀에 흙이 묻었다 / 기에 흙이 묻었다

ㄴ [ɲ]

‘ㄴ’은 ‘ㄷ’을 발음할 때의 혀 위치와 같으면서 입술을 펴서 내는 소리이다. ‘ㄴ’은 ‘ㄴ’과 마찬가지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소리 내어야 한다. ‘호르니’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계속해서 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 금, 은, 텀, 승리, 그림자, 느리다

ㄹ [ɾ] / ㄹ [ɭ]

‘ㄹ’은 ‘ㄱ’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 혀의 뒷부분이 ‘ㄱ’보다는 낮고 ‘ㄷ’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입술을 펴고 발음하면 ‘ㄹ’을 제대로 발음한 것이 된다. ‘언제나 눈에 선한’에서 ‘언:’과 ‘선:’의 ‘ㄹ’ 발음은



‘머리가 무겁다’에서 ‘머’와 ‘겁’의 ‘ㄱ’ 발음과 다르게 난다. 짧게 소리 나는 ‘ㄱ’과 길게 소리 나는 ‘ㄱ’은 말소리의 길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는 정도도 다르다. ‘ㄱ’을 짧게 발음할 때에는 길게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소리 내야 한다. 또한 장모음 ‘ㄱ[ə:]’은 단모음의 ‘ㄱ[ʌ]’보다 혀의 조음 위치가 높아져서 ‘ㅡ’의 장모음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예) 어:른, 건:강, 선:수, 얼:다, 거:짓말
너, 어깨, 절, 버릇, 서리, 먹었다

ㄱ [jʌ]

‘ㄱ’은 ‘ㅣ’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ㄱ’로 재빨리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5항)

(예) 가져(←가지어)[가저], 쩌(←찌어)[찌], 다쳐(←다치어)[다쳐]

이 규정이 용언의 활용형에만 한정된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용언의 활용형에만 ‘ㄴ, ㅈ, ㅊ’ 등의 구개음 다음에 ‘ㅣ’계 이중 모음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가저, 다쳐’ 같은 표기를 허용한 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발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ㅊ[wa] / ㅊ[wʌ]

‘ㅊ’은 ‘ㅌ’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ㅊ’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ㅊ’ 소리를 발음할 때에 입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 정확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ㄱ’은 ‘ㅌ’와 같은 입 모양을 하다가 재빨리 ‘ㄱ’로 옮기며 발음하는 소리이다. ‘두어’를 재빨리 발음하면 ‘뒤’가 된다.



(예) 과자, 왕, 도화지, 좌우, 기와, 대왕, 관광, 화요일
권리, 뒤라, 월급, 원인, 국권, 훗훗, 시원하다

‘나’의 경우 반모음을 탈락시켜 ‘ㄴ’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예) 객간적인(←객관적인), 정확한(←정확한), 간강(←관광), 상향(←상황)

ㄴ [nj]

낱말의 처음에 오는 ‘의’는 언제나 ‘ㅡ + ㅣ’로 발음하고 ‘ㅡ’나 ‘ㅣ’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ㅡ’ 소리에서 시작하여 재빨리 ‘ㅣ’ 소리로 옮겨 소리 내야 하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소리 내야 한다.

(예) 의논, 의리, 의문, 의롭다, 의심하다, 의젓하다
닐끔, 무늬, 희망, 유희, 널리리, 회끗회끗, 띄엄띄엄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의’는 제 음가대로 발음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 방언에서 ‘의사(義士)’를 ‘으사’로, 경상도 방언에서 ‘의대(醫大)’를 ‘이대’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다.

제2음절 이하에서 ‘의’를 제 음가대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역시 어렵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는 ‘의’가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에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예)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허비]
나의 고향 고향의 봄



그렇다면 ‘무늬’와 ‘문의(問議)’의 발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늬’의 경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에 해당되므로 항상 [무니]로 발음하여야 하나, ‘문의’의 경우는 [무: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

3. 소리의 길이

우리말에서는 모음의 길이가 중요하다. 같은 모음이라도 뜻에 따라 길게 소리 나기도 하고 짧게 소리 나기도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말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과(謝過)’의 ‘사’는 모음이 길게 나고 ‘사과(과일)’의 ‘사’는 모음이 짧게 나서 두 낱말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므로 긴 모음을 짧게 내면 두 낱말의 의미가 구별이 안 된다. 물론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모음의 장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서 장단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기성세대들은 장단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고 국어사전에도 장단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음의 길이에 민감하여야 하고 구별하여 발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 말은 말:을 못한다.

밤에 밤:을 구워서 먹었다.

가:장 행렬을 가장 잘 하였다.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한 개 주었다.

보물을 땅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위의 문장에서 밑줄 그은 낱말을 모두 짧게 발음하거나 모두 길게 발음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음의 길이는 단어의 제1음절에서만 변별적인 특성이 있다. 긴소리로 발음되는 음절도 그 앞에 다른 음절이 오면 짧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6항)

(예) 밤:, 눈:, 일:, 말:, 병:, 화:장, 강:당



군밤, 첫눈, 집안일, 거:짓말, 피병, 부:회장, 소:강당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예) 반신반의[반:신바:늬/반:신바:니] 채삼채사[채:삼채:사]

본디 짧은 소리를 가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는 긴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7항)

(예) 보아→봐[봐:] 기어→겨[겨:] 되어→왜[왜:] 두어→뒤[뒤:]

[예외] 오아 → 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 밟다[밥:따]-밟으면[발브면]

신다[신:따]-신어[시너] 알다[알:다]-알아[아라]

[예외] 끝다[끝:다]-끝어[끄:러] 뺏다[뺏:따]-뺏은[뺏:븐]

벌다[벌:다]-벌어[버:러] 썰다[썰:다]-썰어[썰:러]

없다[업:따]-없으니[업:쓰니]

용언의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짧게 발음한다.

(예) 감다[감:따]-감기다[감기다] 꼬다[꼬:다]-꼬이다[꼬이다]

밟다[밥:따]-밟히다[발피다]

[예외]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쌌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단모음화가 단음절의 용언 어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더:럽다’는 ‘더:러운’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더라도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체언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단모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눈:이, 밤:을)

4. 자음의 발음

한국어 표준어 자음에는 다음의 19개가 있다.(‘표준 발음법’ 제2항)

ㄱ ㅋ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ㅍ ㅎ

이들을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파열음	ㅂ	ㅍ	ㅃ
	ㄷ	ㅌ	ㄸ
	ㄱ	ㅋ	ㄲ
파찰음	ㅈ	ㅊ	ㅉ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4.1. 파열음

파열음은 혀파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발음 기관의 어떤 부위에서 완전히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 자리에 따라 양순음 ‘ㅂ, ㅍ, ㅃ’, 치조음 ‘ㄷ, ㅌ, ㄸ’, 연구개음 ‘ㄱ, ㅋ, ㄲ’으로 나누고, 긴장과 기(aspiration)의 유무에 따라 예사소리 ‘ㅂ, ㄷ, ㄱ’, 거센소리 ‘ㅍ, ㅌ, ㅋ’, 그리고 된소리 ‘ㅃ, ㄸ, ㄲ’으로 나눈다.

양순 파열음 ‘ㅂ, ㅍ, ㅃ’은 두 입술을 닫아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치조 파열음 ‘ㄷ, ㅌ, ㄸ’은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폐에서 나오는 기류를 입 안에 가두었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ㄲ’은 혀뿌리를 연구개 앞부분에 대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은 그 조음 방식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나눌 수 있다.



예사소리 ‘ㅂ, ㄷ, ㄱ’은 어두의 초성으로 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무성이고 약한 기식을 지닐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리게 발음된다. 그러나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될 때는 목청 떨림을 수반하는 유성음으로 발음한다. ‘비’, ‘발바닥’ 등에서 나는 ‘ㅂ’과 ‘아버지’, ‘안방’ 등에서 나는 ‘ㅂ’은 음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차이는 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하는데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다.

거센소리 ‘ㅍ, ㅌ, ㅋ’은 예사소리 ‘ㅂ, ㄷ, ㄱ’에 비해서 터짐이 격렬한 듯한 인상을 준다. 거센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터짐 뒤에 ‘ㅎ’ 소리가 이어 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탈, 패, 가치, 콩장’ 등의 낱말들을 발음하여 보면, 예사소리를 낼 때와는 다르게 종이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밑줄 그은 음절의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면, 문장의 뜻이 전혀 달라진다.

(예) 그는 아이다 / 크는 아이다

장이 아주 큼니다 / 참이 아주 큼니다

발이 매우 아프다 / 팔이 매우 아프다

된소리 ‘ㅃ, ㄸ, ㄲ’은 해당 발음 기관과 후두의 근육을 긴장시켜서 발음하는 자음들이다. 그리하여 예사소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면 된소리들은 딱딱하고 뻑뻑한 느낌을 준다.

아래의 예는 같은 조음 위치의 발음이면서도 조음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의미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립쌍이다.

(예) 달/딸/탈, 불/뿔/폴

과열음이 어말이나 같은 조음 자리의 장애음 앞에 나올 때에는 조음 시 두 입술이 닫히기만 하고 터지지 않는다. ‘밥’을 발음할 때 어두의 ‘ㅂ’은 정상적으로 개방되나 어말의 ‘ㅂ’은 개방되지 않는다.

4.2. 마찰음

마찰음은 구강의 어느 한 지점을 좁혀서 기류를 좁혀진 틈 사이로 통과시켜 내는 소리이다. 국어에는 ‘ㅅ, ㅆ, ㅎ’이 있다. ‘ㅅ, ㅆ’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까이 접근시켜 내는 소리로, ‘ㅅ’은 예사소리, ‘ㅆ’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ㅎ’은 성문의 두 성대 사이가 약간 벌어지면서 만들어져서 ‘성문음’ 또는 ‘목청소리’라고 한다.

예사소리 ‘ㅅ’은 다른 예사소리 ‘ㄱ, ㄷ, ㅂ, ㄸ’과 달리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ㅅ’이 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i]나 [j] 앞에 오게 되면 구개음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된다.

4.3. 파찰음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릴 때에는 파열음처럼 일시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터뜨려서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여 내는 소리이다. 국어의 ‘ㄷ’은 혀바닥을 경구개 위치에 갖다 붙여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열어 주면서 내는 소리이다. 파열음과 같이 유성음 사이에 오면 유성음화된다.

4.4. 비음

공기를 입 쪽으로 내보내지 않고 코 쪽으로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자음들을 비음이라고 하는데, 국어의 비음에는 ‘ㅁ, ㄴ, ㅇ’이 있다. ‘ㅁ’은 ‘ㅂ’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양순 비음이고, ‘ㄴ’은 ‘ㄷ’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경 비음이며, ‘ㅇ’은 ‘ㄱ’과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연구개 비음이다. ‘ㄴ’의 경우 [i], [j] 앞에 오면 구개음화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4.5. 유음

국어에는 유음이 ‘ㄹ’ 하나밖에 없는데, 환경에 따라 설측음(물), 탄설음(나라), 구개음(떨려) 등 다른 음성으로 발음된다.

(예) 물 한 동이 / 좋은 나라 / 사랑에 눈이 떨려 한다.



5. 받침의 발음

5.1. 홑받침의 발음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낫, 낫, 낫, 낫’은 모두 같은 발음 [낫]으로 난다.(‘표준 발음법’ 제9항)

(예) 뱀[박], 부엌[부억], 옷[온], 젓[전], 꽃[꼰], 술[순], 앞[압]

5.2. 겹받침의 발음

국어에는 11개의 겹받침-ㄱㅅ, ㄴㅅ, ㄴㅇ, ㄷㄹ, ㄷㅌ, ㄷㅍ, ㄷㅈ, ㄷㅊ, ㅁㅂ, ㅁㅍ-이 있다.

(예) 갑-값, 막다-뵈다, 안다-앓다

위의 각 쌍들은 같은 발음이 나는 것들로서 겹받침을 갖는 단어들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겹받침 ‘ㄱㅅ’, ‘ㄴㅅ’, ‘ㄷㄹ, ㄷㅌ, ㄷㅍ’, ‘ㅁㅂ’의 경우 둘째 소리는 탈락하고 첫소리만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0항) 이와 달리 ‘ㄷㄹ, ㄷㅌ, ㄷㅍ’은 어말 또는 자음으

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앞에서 일정하게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고 두 번째 받침이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1항)

(예) 뉘[넉] 았다[안파] 외곬[외골] 뉘다[널파] 값[갑]
 닭[닥] 째다[점:파] 읊다[읍파] 핏다[할파]

겹받침 ‘ㄷ’의 경우 ‘ㅂ’을 탈락시키고 ‘ㄷ’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인데, ‘뵈다’와 ‘뵈둥글다, 뵈죽하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ㄷ’을 탈락시키고 ‘ㅂ’만 발음한다.

(예) 여뵈[여덜] 째다[잘파] 뵈다[널파]
 뵈다[뵈:파] 뵈지[뵈:찌] 뵈고[뵈:꼬]
 뵈죽하다[뵈쭈카다] 뵈둥글다[뵈똥글다]

또한, 겹받침 ‘ㄷ’이 용언의 어간 말음으로 쓰일 때, ‘ㄷ’ 뒤에 ‘ㄱ’이 이어 나올 때에는 둘째 자음을 탈락시키고 첫 자음 ‘ㄷ’만 발음하는 것이 표준이다.

(예) 맑게[말께] 뭉고[물꼬] 엇거나[얼거나]

5.3. 받침 ‘ㅎ’의 발음

받침 ‘ㅎ’은 뒤따르는 ‘ㄱ, ㄷ, ㅌ’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2항)

(예) 뵈고[노코] 뵈고[만:코] 좋다[조:타] 읊다[올타]
 뵈지[달치] 하얗지요[하:야치요]

그러나 ‘ㅎ’ 받침 뒤에 ‘ㅅ’이 오면 그 ‘ㅅ’과 결합하여 된소리 ‘ㅆ’으로 발음한다.(종소[조:쏘], 싫소[실쏘]) 그 밖에 ‘ㅎ’ 받침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그 ‘ㄴ’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나 접미사가 오면 ‘ㅎ’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 놓는[논는] 넣니[난니] 놓으니[노으니] 쌓여[싸여]

이러한 받침 ‘ㅎ’의 특성은 겹받침 ‘ㄴㅎ’과 ‘ㄹㅎ’이 뒤에 오는 자음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로의 변화를 보인다.

(예) 끊고[끈코] 끊는[끈는] 앓지[알치] 앓소[알쏘]
 많아[마:나] 싫어[시러] 뚫어[뚜러]
 많으니[마:느니] 싫으니[시르니] 뚫으니[뚜르니]

5.4. 연음 법칙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혹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는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받침 위치에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 뒤 음절에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13항)

(예) 찾아[차자] 못으로[모스로] 늦으면[느즈면] 밑에[미테]

겹받침의 경우 겹받침 다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겹받침의 뒤 소리만을 바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4항)

(예) 흠이[흠기] 젊어[절머] 핥아[할타]
 녀이[녀씨] 굶이[글씨] 값이[갑씨]
 흠은[흠근] 젊은[절문] 핥은[할튼]
 읊은[읊픈] 었은[언즌] 밟은[발븐]
 녀으로[녀쓰로] 굶으로[글쓰로] 값으로[갑쓰로]
 앓아[안자] 뚫으니[떨브니] 읊어서[을퍼서]



5.5. 절음 법칙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15항)

(예) 높 앞[느뱌] 받 아래[바다래]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텝따]
겉웃[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맛있다, 멋있다’는 [마딤파], [머딤파]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파], [머싣파]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접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받음한다.

(예) 넷 없다[너겍파]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5.6. 한글 자모의 발음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언중의 실제 발음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16항)

(예) 디글이[디그시]	디글을[디그슬]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치웃이[치으시]	치웃을[치으슬]
키웁이[키으기]	키웁을[키으글]
티을이[티으시]	티을을[티으슬]
피윽이[피으비]	피윽을[피으블]
히웁이[히으시]	히웁을[히으슬]



6. 소리의 변화

6.1. 구개음화

‘ㄷ’과 ‘ㅌ’ 받침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에 이어져 발음될 때에는 각각 ‘ㅈ’과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7항)

(예) 해돋이[해도지] 미닫이[미다지] 밭이[바치] 굳이[구지]
살살이[살사치]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그러나 ‘ㅣ’ 이외의 모음과 연결될 때는 ‘ㄷ’, ‘ㅌ’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난다.(돋을[도들], 굳어[구더], 닫아[다다], 밭을[바들])

6.2. 자음 동화

(1) 유음화

국어에서 ‘ㄴ’과 ‘ㄹ’은 연이어 나올 수 없고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뀐다.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되어 소리가 ‘ㄹ’로 바뀌는 것이다. 접받침의 앞의 ‘ㄹ’만 남는 음절이 앞에 올 경우에도 뒤의 ‘ㄴ’이 ‘ㄹ’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20항)

(예) 만리, 신라, 찰나, 칼날, 난로, 설날
얹는[알른], 끓네[끌레], 훤는[할른], 훤네[홀레]

다음은 모두 ‘ㄴ’으로 끝나고 독립성이 있는 2음절 한자어에 ‘ㄹ’로 시작된 1음절 접미사가 결합되는 예로서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예)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판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일부 노년층 서울 토박이들 중에는 ‘ㄴ’과 ‘ㄴ’이 연이어 나올 때 이를 ‘ㄴㄴ’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관념[괄렴], 천년 만년[철련말련], 만년필[말련필])

(2) 장애음의 비음화

장애음 ‘ㅂ, ㄷ, ㄱ’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표준 발음법’ 제18항)

(예) 밤물[밤물] 잡는[잡는]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옷맵시[온맵씨] 젓멍울[전멍울] 꽃망울[곤망울] 있는[인는]
 부엌만[부엌만] 국물[궁물] 깎는[깡는] 흙만[홍만]

(3) 유음의 비음화

국어에서 ‘ㄴ’은 ‘ㄴ’과 ‘ㄴ’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ㅁ, ㅇ’ 뒤에서는 ‘ㄴ’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표준 발음법’ 제19항)

(예) 음료[음:노] 담력[담:녁] 종로[종노] 승리[승니]
 강릉[강능] 막론[망논] 십리[심니]

그러나 두 닿소리가 이어질 때 바뀌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인간[잉간], 전기[정기], 옷감[옥감], 잇몸[임몸], 잇고[익꼬], 감기[강:기]’의 경우 발음의 편의에 따른 발음이지만 이는 잘못된 발음이다. 수의적인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3. 된소리되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ㄱ, ㄷ, ㅂ’이 받침으로 쓰이면 터지지 않는 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불파음 뒤에 오는 예사소리들은 단어 내부에서건 곡용 및 활용에서건 예외 없이 된소리로 발음된다.(‘표준 발음법’ 제23항)



(예) 국밥[국뽵]	먹다[먹따]
민고[민꼬]	속부터[속:뿌터]
깎다[깎다→깎따]	샅돈[샅돈→샅똥]
웃고[웃:고→웃:꼬]	꽃과[꽃과→꽃짜]
있지[있지→인찌]	웁다[웁다→웁따]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4항)

(예)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지[안:찌]
감다[감:따]	감고[감:꼬]	감지[감:찌]
[참고] 감도[*감또], 방법[*방뽵], 창고[*창꼬], 간단하다[*간똥하다]		

다만, 피동, 사동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또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끊어서 말할 때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표준 발음법’ 제27항)

(예)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때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쩍에]	갈 곳[갈꼐]
할걸[할걸]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찐대]	할지라도[할찌라도]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예)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재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쑥]
바람-결[바람결]	그믐-달[그믐딸]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강-줄기[강쭈기]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ㅈ’ 또한 된소리로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26항)

(예) 갈등[갈똥]	발똥[발똥]	절도[절또]	물상식[물쌍식]
일시[일씨]	갈증[갈쑥]	물질[물쥔]	불세출[불쑤출]
말살[말쌀]	발전[발쥔]		

6.4. ㄴ 댕소리/ㄹ 댕소리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한다.(‘표준 발음법’ 제29항)

(예) 담-요[담:뇨]	숨-이불[숨:니불]	콩-엿[콩:녇]	색-연필[생:년필]
논-일[논:닐]	한-여름[한:녀름]	꽃-잎[꼇:넵]	앞-이마[암:니마]
맨-입[맨:넵]	생-이별[생:니별]	눈-약[눈:낙]	식용-유[시:공뉴]
눈-요기[눈:뇨기]	내복-약[내:봉낙]	막-일[망:닐]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예) 들-일[들:릴]	설-익다[설:릭따]	술-있[술:릿]
물-약[물:락]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릭]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유들-유들[유:들류들]



다음과 같은 의성 의태어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예)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따금]
울랑-울랑[울랑놀랑/울랑울랑]

‘검열’이나 ‘금용’과 같은 단어는 ‘ㄴ’을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ㄴ’ 첨가 없이도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기차를 타 본 일[닐]이 있습니까?”에서와 같이 ‘ㄴ’ 소리는 낱말과 낱말 사이에서 덧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소리의 첨가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의 자음을 연음하여 발음한다.

(예)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월요일[워료일] 목요일[모교일] 금요일[그묘일] 절약[저략]

6.5. 사이시옷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표준 발음법’ 제30항)

(예) 냇가[내:까/냇:까] 샛길[새:길/쌔:길] 빨랫돌[빨래뜰/빨랜뜰]
콧등[코똥/콧똥] 깃발[기빨/깃빨] 대팻밥[대:괘뺨/대:괘뺨]
햇살[해쌀/헛쌀] 뱃속[배쑥/뱃쑥] 고갯짓[고개찢/고갯찢]

‘ㄴ, ㄹ’ 같은 비음 앞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경우에는 ‘ㅅ→ㄷ→ㄴ’의 과정에 따라 사이시옷을 [ㄴ]으로 발음한다.

(예)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랜니→아랜니]
뿔마루[뿔:마루→뿔:마루] 뱃머리[뱃머리→뱃머리]



사이시옷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은 자연히 [ㄴ]으로 발음된다.

(예) 깻잎[깻넙] 나뭇잎[나문넙] 배깻잎[배깻넙]
뒗옷[뒗:눈] 도리깻잎[도리깻넙]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대상

우리는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거나 ‘지나친 외래어 사용을 삼가자’는 말을 하면서 ‘외국어’나 ‘외래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또 특정한 낱말이 외국어인지 외래어인지를 판정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스’나 ‘커피’, ‘바나나’, ‘텔레비전’처럼 국어 생활 속에 널리 사용되고, 또 바꾸어 쓸 수 있는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치킨’이나 ‘스키트’, ‘키’, ‘루머’ 따위 낱말들은 딱히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 국어 단어로 인정하기엔 아직 어색한 면이 있으나 ‘닭고기’나 ‘치마’, ‘열쇠’, ‘소문’ 등으로 바꾸어 쓰기에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보면 ‘외국어’는 ‘모국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 같은 정의를 따르면 ‘외국어’는 남의 나라 말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특정 단어가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국어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말’이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어휘가 우리말의 외래어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외래어는 원래 언어에서 지니고 있던 특징을 잃어버리고 우리말에 동화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동화의 정도가 흔히 외국어와 외래어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발음의 변화이다. 즉 외래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쓰이게 되면 본래 발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어의 소리로 대치된다. 예를 들어 fi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f]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놓으면서 내는 소리인



데, 우리말에는 이런 소리가 없으므로 그에 가장 가까운 소리인 ‘료’ 소리로 바뀌어 ‘과일’로 발음된다. 영어에서는 다른 소리인 [r]과 [l]도 모두 ‘르’로 바뀌어, 영어의 race와 lace는 모두 ‘레이스’가 된다. <마지막 잎새>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O Henry는 영어 발음이 [o henri]이고 한글 표기도 ‘오헨리’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리’를 [철리]로 읽는 발음 습관에 따라 흔히 [오헬리]로 발음한다.

외래어는 형태적으로도 우리말에 동화된다. 외래어 형용사나 동사가 우리말 속에서는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말 동사나 형용사의 특징은 문장 속에서 어미변화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먹다’는 항상 ‘먹은, 먹으니, 먹어서’ 등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다. 외국어에서 온 동사나 형용사들도 우리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려면 어미변화를 해야 하므로 항상 접미사 ‘-하다’와 결합한 형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영어 형용사 smart는 우리말 속에서 항상 ‘스마트한’, ‘스마트하여’, ‘스마트하게’ 따위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 더 흥미로운 변화는 의미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외래어들은 본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미팅’이나 ‘부츠’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meeting은 영어에서 ‘모임’이나 ‘회의’를 뜻하지만 국어에서는 ‘남녀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미팅’의 ‘팅’만을 따로 떼어내 ‘소개팅’, ‘맞선팅’, ‘폰팅’ 같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boots는 영어에서 온갖 종류의 ‘장화’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비 오는 날 신거나 작업용으로 신는 고무장화는 ‘부츠’라고 하지 않는다. 주로 여성들이 신는 목이 긴 구두를 가리키는 말로만 사용된다.

외래어는 그에 대응하는 적당한 우리말 용어가 없어서 다른 나라 말을 빌려다 쓰는 것으로 대개 위에 제시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리거나 교과서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은 대체할 우리말 용어가 없는지,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동화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그러나 ‘외래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은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한 소수의 ‘외래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에 우리말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낯선 외국어들과 외국의 인명·지명이 주요 표기 대상이다. 오



히려 오래 전에 들어와 국어의 일부가 된 전형적인 외래어들은 표기 혼동의 염려가 별로 없어서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라디오’, ‘피아노’ 같은 예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표기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올바른 표기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안’이나 ‘의제’라는 뜻의 agenda는 외래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어젠다’, ‘아젠다’, ‘어젤더’ 등 표기형이 혼란한 상태이므로 표기형 통일을 위해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외래어 용례 심의는 대개 진정한 ‘외래어’가 아닌, 단지 외국어에서 들어온 낱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글 표기는 통일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 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사용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ㅍㅎ’이나 ‘퐁’,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30년대에 발간된 책자에 보면 ‘ㅇㅅㅣ터민’이나 ‘ㅇ표케이스’같은 표기가 종종 눈에 띈다. 여기서 ‘ㅇㅅ, ㅇ표’ 등은 고유어를 적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던 자모들로 [v]나 [f]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호들이다. 그러나 외래어를 적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1933년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도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것을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ːfɪ]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회’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과 영어로 말을 할 경우에는 [kɔːfɪ]의 정확한 영어 발음과 강세 위치 등을 따로 익혀서 제대로 발음해야 할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만들어진 기호의 용도도 분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말과는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진 외국어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문자나 부호를 만들어야 한다면,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소리들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호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영어만 두고 생각하더라도 [θ, ð, ɔ, ʊ, f, v] 등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자로 국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3. 외래어 표기법 익히기

3.1. 자음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빠리, 가스/*까스, 버스/*빠스
 ㄴ. 서비스/*씨비스, 세븐/*쎌븐, 재즈/*쎌즈, 모차르트/*모짜르트
 ㄷ. 빵, 껌, 마오쩌둥, 쑨원
 ㄹ. 빠파니(타이 지명), 푸껏(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 외래어 표기를 할 때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ㄲ, ㄸ, ㅃ)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프랑스어나 일본어, 러시아어 등 무성 파열음이 우리말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는 몇몇 언어 표기에는 거센소리 대신 된소리를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성 파열음 표기에는 거센소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과 파찰음(ㅈ, ㅊ, ㅌ)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씨스템, *쎌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쎌터, 쥘리히’ 등으로 적어야 한다(1ㄴ). 다만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ㅌ’을 사용한다. 또 ‘빵, 껌, 히로뽕, 빠라’ 같이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1ㄷ).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어와 베트남어에는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1ㄹ).



(2)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표기에 제약이 있다. 받침 글자로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여기 제시되지 않은 다른 글자들—예를 들면 ‘ㄷ, ㅋ, ㅌ, ㅍ, ㅊ, ㅌ, ㅍ, ㅈ’ 등—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폴]’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커피쇼페서]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커피쇼페서]로 발음하므로 ‘커피쑈’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커피숍’이라고 써야 한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 ㄹ. 넷/*넛, 셋/*셋/*셀, 매트/*맷
- ㅁ.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벵

※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다음 규칙을 따른다. ①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3ㄱ).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ㄴ). ②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3ㄷ). 예외적으로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3ㄹ).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

적는 것이 원칙이다(3ㄱ).

(4) ㄱ. 헤드/*헛, 허브/*협,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웹브

※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피트니스/*휘트니스

※ [f] 소리는 항상 ‘표’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표’로 적으므로 fan과 pan은 국어에서 똑같이 ‘팬’이 되어 구분이 되지 않는다.

(6) ㄱ.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ㄴ.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ㄷ.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슈바이처/*시바이처,

타슈켄트/*타시켄트/*타쉬켄트

※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6ㄴ), 어말에서는 ‘시’로(6ㄱ) 적는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어말의 [ʃ]는 ‘대쉬, 잉글리쉬, 플래쉬, 리더십’에서처럼 ‘쉬’로 적는 일이 많으나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으로 적어야 한다. ‘fashion[faéʃən]’, ‘shopping[ʃɔ́pɪŋ]’, ‘Shakespeare[ʃéikspiər]’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는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6ㄷ). 따라서 독일 사람 이름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적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첩

※ [tʃ, dʒ]은 모음 앞에서는 ‘스, 츠’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스’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따라서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3.2. 모음 표기

(1) 센터/*센타/*젠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영어는 철자와 소리와 관계가 항상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음기호를 확인해서 그것에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ə]는 영어에서 강세가 없는 음절에 오는 모음으로,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ɛntə]는 ‘센터’로, digital[díɟɪtəl], terminal[té:mi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탐, 솥/*삼, 보디/*바디

※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



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라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2ㄱ). 반대로(2ㄴ)에 있는 예들은 ‘어’로 적어야 하는데 흔히 ‘오’로 적는 것들이다. 이와 같이 표기를 혼동하는 이유는 외국어의 발음보다는 철자를 염두에 두고 외래어 표기를 하기 때문이다.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2ㄱ)의 예들은 [kɒn]으로 소리 나니까 ‘콘’으로 적은 것이지, 철자가 con이라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 (2ㄴ)의 예들은 발음이 [kən]이므로 ‘컨’으로 적는 것이 맞다. 영어에서 이 구분은 강세의 위치와 관계가 있다. 모음 o가 강세 음절인 경우에는 [ɔ]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으나, 강세가 없는 음절에 위치할 때에는 약화되어 [ə]로 소리 나게 되고, 한글로는 ‘어’로 적게 된다. 강세 위치에 따라 모음의 음가가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종종 같은 단어에서 파생한 말들의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irony는 ‘아이러니’로 ironical은 ‘아이로니컬’로 적어야 한다. irony[áɪrəni]는 강세가 1음절에 있으므로 2음절의 모음 o는 약화되어 [ə]로 발음되므로 ‘아이러니’로 적는다. ironical[airɒnikəl]에서는 강세가 2음절로 이동하면서 모음 o가 [ɔ]로 발음되므로 ‘아이로니컬’로 적는 것이 맞다.

(2ㄷ) 예에서처럼 [ɔ] 소리를 ‘아’로 적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으로 [ɔ]로 발음하던 많은 단어들이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ɑ](우리말의 ‘아’ 소리와 비슷)로 발음되는데, 이것의 영향을 받은 표기들이다. 이런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오’로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top, shop은 ‘*탑, *샵’이 아니라 ‘툽, 쉵’으로 적는 것이 맞다.

(3) 켈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켈러, 커버’로 적어야 옳다.



- (4) ㄱ.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볼링/*보올링,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소릿값이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4ㄱ), [auə]는 ‘아워’로(4ㄴ)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는다. Eisenhower도 ‘*아이젠하우어’가 아니라 ‘아이젠하워’로 적는 것이 맞다. 특히 yellow[jélou]나 window[wíndou] 같은 경우는 철자에 있는 w에 끌려 ‘*옐로우, *윈도우’로 적는 경우가 많으나 옳지 않다. ‘옐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요크셔/*요오크셔
 ㄴ.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외래어를 표기할 때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對 밤:[夜]’, ‘눈[眼] 對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5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 (6)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다른 자음이나 모음 뒤에서는 ‘모기/표기’, ‘우리/유리’처럼 단모음 표기를 이중 모음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 그러나 경구개음 뒤에서는 ‘자’와 ‘쟈’, ‘저’와 ‘저’ 등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잠자다’를 [잠쟈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외래어를 적을 때 발음상 구분되지 않는 ‘자, 차’ 등의 표기를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고유어의 표기에서는 경구개음이 이중 모음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저’, ‘다쳐’와 같은 경우가 그것인데, 이는 ‘가지어’, ‘다치어’가 줄어서 된 형태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함이지 이들이 ‘가저’나 ‘다쳐’와 발음상 구분되기 때문이 아니다.

3.3. 기타 표기 세칙

(1) 아웃렛/*아울렛/*아우틀렛, 로그인/*로긴, 메이크업/*메이컵

※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Michael: 마이클(영), 미하엘(독, 러), 미카엘(덴)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énəjei]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 (3) ㄱ. 라디오/*레이디오, 게놈/*지놈, 시보레/*세브럴레이
 ㄴ. 컷/컷트, 타입/타이프

※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diò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 어에서 온 말로 [ʃevralé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럴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3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컷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깎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야도, 東京: 도쿄/동경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北京: 베이징/북경
 孔子: 공자/*콩쯔, 孟子: 맹자/*멍쯔
 朱鎔基: 주룽지/*주용기, 張國榮: 장궈룽/*장국영

※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퉁신수길’, ‘이등박문’ 대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왕안석’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궈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상해’와 ‘상하이’, ‘요동반도’와 ‘랴오둥 반도’, ‘발해만’과 ‘보하이 만’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뻗테리, 밧테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이, 케익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맛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웬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레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알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슌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텝, 스텝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supermarket	슈퍼마켓	수퍼마켓, 수퍼마켈, 슈퍼마켈
symbol	심벌	심볼
talent	탤런트	탈렌트
tape	테이프	테프, 테입, 테잎
ton[豚] kasu	돈가스	돈까스
total	토틸	토탈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2000년 7월에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의의를 짚어 보고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1984)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과 사실상 같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으로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영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표기법이었으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과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그러지 못하였다.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예컨대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 탈’은 *tal, t'al*로 표기하였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랫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한 표기법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이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들끼리 쓰고 말 거라면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다. ‘도동’을 *Todong*로 적어야 한다고 한국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동’은 *Dodong*이라야 따라 쓰기 쉽다. 혹 *Totong*이라면 몰라도 *Todong*은 도무지 따라



쓸 수 없다. 이러한 기형적인 표기법을 단지 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기로 1984년 초에 정책 결정을 하였고 한국의 도로 표지판의 지명은 지난 16년간 이대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반달표와 어긋점 등 특수 부호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갔고 결국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국내에는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에 미련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한국어를 그토록 왜곡한 로마자 표기법이 어떻게 60년간이나 쓰여 신기할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그 표기법에 집착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로마자 표기법은 애초에 외국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외국인들에 의해 그들의 취향에 맞는 표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후에 해당 언어의 특성이 잘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이 나왔어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1959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한 한국적인 표기법이었으나 지나치게 한국인의 편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외국인들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0년에 고시된 새 로마자 표기법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대체할 목적으로 태어났다. 한국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표기법이 전 세계에 두루 널리 쓰여 로마자 표기가 통일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이다.

2.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

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종전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이 표음법이다. 즉, 국어의 표준 발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다. ‘신라, 북문’과 같은 말을 글자대로 Sinla, Bugmun으로 적지 않고 발음인 [실라], [붕문]에 따라 Silla, Bungmun으로 적는 방식이다. 글자대로 적는 것은 국어의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국어의 철자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국어 발음을 알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기대에 어긋난다. 발음은 어차피 따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보고 발음을 시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발음을 보여 주는 것이 더 절실하다.

발음에 따르되 일부 발음 현상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우선 된소리



되기이다.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Apkkujeong으로 적지 않고 Apgujeong로 적는다. ‘팔당’, ‘일산’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팔땅], [일싼]이지만 Palttang, Ilssan으로 하지 않고 Paldang, Ilсан으로 한다. 된소리되기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고개’의 발음이 [당고개]인지 [당꼬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Danggogae, Dangkkogae와 같이 동일 지명의 표기가 두 가지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막아야 한다.

거센소리되기도 발음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목호’의 경우 발음은 [무코]이기 때문에 Muko로 적어야 옳다. 그러나 ‘호’의 ‘ㅎ’ 부분의 표기가 없어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ㅎ’을 살려서 적기로 하였다.

종전 로마자 표기법과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ㄱ, ㄷ, ㅂ, ㅈ’이 어두에 왔을 때 k, t, p, ch가 아니라 g, d, b, j가 된 것이다. ‘ㅋ, ㅌ, ㅍ, ㅊ’은 k, t, p, ch가 되어 어갯점이 없어졌다. 모음의 경우 다른 모음은 변동이 없고 ‘어’, ‘으’가 ǝ, ǘ에서 eo, eu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더불어 ‘의’도 ɯ에서 ui로 바뀌었다. 그 밖에 ‘ㅅ’이 종전에는 뒤에 ‘ㅣ’ 모음이 왔을 때만 sh로 표기되던 것을 어떤 경우든 s로 통일한 점, ‘ㅈ’이 tch에서 jj로 바뀐 것도 변한 점이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반달표와 어갯점이 없어진 것을 새 로마자 표기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의 기저에는 영어 사용자들 청각 인상 중심의 왜곡된 로마자 표기법을 한국어의 특징이 제대로 반영된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 방황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한국인의 편의만 고려한 표기법도 시행해 보았고 그 반대로 극단적으로 서양인 중심인 표기법도 써 보았지만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합리적인 표기법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다시는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새 로마자 표기법을 보급하여 확고히 정착시켜야 하겠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ㅖ	ㅞ	ㅛ	ㅟ	ㅠ	ㅡ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ㅈ	ㅊ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ㄱ	ㄲ	ㄸ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ㄸ, ㅅ’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곶] Wolgot	벚꽃[번곶] beotkkot
한밭[한밭] Hanbat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보기)

백마[백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m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보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보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보기)

종교[조코]	joko	농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보기)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불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샛별 saetbyeol	울산 Ulsan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보기)

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보기)

부산 Busan	세종 Sejong
----------	-----------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안의 표기를 허용함.)

(보기)

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종로 2가	Jongno 2(i)-ga
봉천1동	Bongcheon 1(il)-dong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축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불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불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	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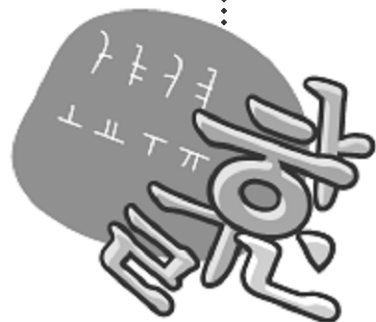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2000. 7. 7.)부터 시행한다.
-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표기법 시행 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제 2 부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 147
2. 공문서 바로 쓰기 | 183
3. 생활 글쓰기 | 197
4.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 213
5. 협력적 의사소통 | 225





우리말 다듬기

1. 우리말 다듬기의 원칙

- ①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국어 순화’라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마디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순우리말(토박이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우리말이나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말 다듬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다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우리말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알맞게’ 바로잡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가꾸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가꾸기’는 좀 더 명확한 표현, 좀 더 아름다운 표현 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듬은 말이 본래의 뜻을 정확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단어 구성이 복잡해지고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 ① 민족정신의 확립
- ② 민족 문화의 발전
- ③ 사회의 정화
- ④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서 시작하여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까지 이어졌다. 과거 대다수 국민은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양식 외국어를 저절로 쉽게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면 외국어 교육에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순우리말이 오히려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하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까지도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대다수 사람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말 다듬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서와 정신과 얼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르므로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전승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 민족은 자국어를 통해 각기 특이한 민족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영국이 인도는 내어 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갈고 닦아 훌륭한 영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다듬는 이유는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훌륭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언어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어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兩班)’이란 말이 생겨났고, 장인(丈人)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丈家)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육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말이 횡행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면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국어를 순화함으



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말 다듬기는 언중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말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갖고 닦아 아름답고 풍부한 보고(寶庫)로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 ① 순우리말이 아닌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 ② 쉬운 우리말이 아닌 난해한 한자어
- ③ 바른 우리말이 아닌,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
- ④ 고운 우리말이 아닌, 비속한 말이나 표현 등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외국어 등은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다. 이 중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착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래어라고 모두 다듬을 수는 없고 다듬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순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나 지금까지 불편 없이 써 왔던 외래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 왔던 외래어를 다듬으면, 다듬은 말이 오히려 생소하여 새로 익히는 데 불편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즉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양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양 외



래어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빨리 대처하면 다듬은 말을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등의 어휘를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다면, 바른 우리말 쓰거나 고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표기, 발음, 문장 등과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우리말 다듬기의 실제

4.1. 일본어 잔재

그동안 일본어는 대부분 순화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인 일본식 성명 강요,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등으로 국어는 강제적으로 말살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의 자긍심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민족정신마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76년 ‘국화 순화 세칙’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를 어원으로 하는 외래어는 아주 바꾸어서 먼저 것을 쓰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하고도 즐기치게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이제 공식적인 자리의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가 우리말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와 일본어 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우리 언어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라(空, 虛) → 가짜
- 기스(傷) → 흠(집), 생채기



- 단도리(段取り) → 채비, 단속
 텃빔(鐵板) → 우두머리
 땡깡(癲癩) → 생떼
 무넛뽕(無鐵砲) → 막무가내
 잇빠이(一杯) → 가득, 한껏
 하꼬방(箱-) → 판잣집, 쪽방
- (2) 곤조(根性) → 본성, 심지
 신행(新品) → 신출내기, 새내기
 쇼부(勝負) → 흥정, 결판
 탁상(澤山) → 제격
 뽕록(檻樓)나다 → 들통나다
- (3) 와사비(山葵) → 고추냉이
 쟁깡(金柑) → 금귤, 동귤
 사라(皿) → 접시
 요지(楊枝) → 이쭉시개
 다대기(たたき) → 다진 양념
 다마네기(玉葱) → 양파
- (4) 가꾸목(角木) → 각목, 각재
 구루마(車) → 손수레, 달구지
 고바이(勾配) → 기울기, 오르막
 도기다시(研(ぎ)出し) → 윤내기
 시마이(仕舞い・終い) → 마감, 마무리
 시타바리(下-) → 보조원, 밑일꾼

(1)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이고, (2)는 특히 속되게 느껴지는 생활 일본어이다. 그리고 (3)은 식생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고, (4)는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다. 일본어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대부분 다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일본식 한자어

단지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로 다듬기에는 이미 국어 속에 자리 잡은 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개화기에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와 이제는 완전히 국어가 되어 버린 ‘경제’, ‘사회’, ‘정당’ 따위와 같은 말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래 있던 우리말 한자어 대신에 자리 잡은 ‘미인(美人←一色)’, ‘약속(約束←言約)’, ‘화장(化粧←丹粧)’ 등과 같은 말도 우리말 한자어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식 한자어는 선별적으로 다듬기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그 속성상 순수 일본어와 유사한 것은 다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 (5) 나대지(裸地) → 빈 집터
매점(買占) → 사재기
사양서(仕様書) → 설명서
시건(施鍵) 장치 → 잠금 장치
취조(取調) → 문초
택배(宅配) → 집 배달, 문 앞 배달
- (6) 가접수(假接受) → 임시 접수
가처분(假處分) → 임시 처분
공수표(空手票) → 부도 수표
공상자(空箱子) → 빈 상자
생방송(生放送) → 현장 방송
- (7)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수입선(輸入先) → 수입국
제조원(製造元) → 만든 곳
매표구(賣票口) → 표 사는 곳
비상구(非常口) → 비상문
물가고(物價高) → 높은 물가
수확고(收穫高) → 수확량
결석계(缺席屆) → 결석 신고서
숙박계(宿泊屆) → 숙박부



(5)는 지나치게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이고, (6)은 일본식 한자어 접두사인 ‘가(假)-, 공(空)-, 생(生)-’ 따위가 붙은 말이며, (7)은 일본식 한자어 접미사인 ‘-선(先), -원(元), -구(口), -고(高), -계(屈)’ 따위가 붙은 말이다. 일본식 한자어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다듬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렵다면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3.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 (8) 척사(擲柶) 대회 → 윷놀이 대회
 비산(飛散) 먼지 주의 → 날림 먼지 주의
 콘크리트 양생(養生) 중 → 콘크리트 굳히는 중
 사고 다발(多發) 지역 → 사고 잦은 곳
 약을 복용(服用)하다 → 약을 먹다
 난색(暖色)을 표명(表明)하다 → 어려운 빛을 나타내다
 가방을 분실(紛失)하다 → 가방을 잃어버리다
 장물을 은닉(隱匿)하다 → 장물을 숨기다
 법에 저촉(抵觸)되다 → 법에 걸리다
 전력(全力)을 경주(傾注)하다 → 온 힘을 기울이다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 → 알아보기 쉽다
 적색등(赤色燈)이 점등(點燈)하다 → 빨간불이 켜지다
 화재(火災)를 진압(鎮壓)하다 → 불을 끄다
 촉수(觸手)를 엄금(嚴禁)하시오 → 손대지 마시오

한자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고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렵게 느낀다는 점에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개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위의 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고유어로 바꾼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4.4. 일본식 외국어와 외래어

- (9) 다스(dozen) → 타(打)/열두 개
 다시(dash) → 줄표/대시
 도랏쿠(truck) → 화물차/트럭
 바케쓰(bucket) → 들통/양동이
 림바(bumper) → 범퍼/완충기
 밧테리(battery) → 건전지/배터리
- (10) 난닝구(running shirt) → 러닝셔츠
 도란스(transformer) → 변압기
 뽕꾸(puncture) → 구멍/펑크
 스텡(stainless) → 안녹쇠/스테인리스
 오바(overcoat) → 외투/오버코트
 미손(transmission) → 변속기
 뽕뽕(sandpaper) → 사포/속새
- (11) 올드미스(old miss, オールドミス) → 노처녀
 리어카(rear car, リヤカー) → 손수레
 백미러(back mirror, バックミラー) → 뒷거울
- (12)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 녹음 반주/노래방
 한쓰봉[半(はん)jupon] → 반바지
 가라쿠[空(から)cushion] → 민쿠션

(9)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외래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일본어로 잘못 알고 쓰는 영어가 참 많다. 일본을 통하여 일본어식 발음으로 들여와서 쓰다 보니 본래 영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것이다.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는 크게 달라 원래의 영어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일본어식 발음의 영어는 대개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말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속어로 둔갑하여 널리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로쿠’이다. 이 말은 본래 당구 용어인 영어 ‘플루크(fluk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일본어식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후로쿠’, ‘후룻쿠’, ‘후루꾸’, ‘후로꾸’ 등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10)은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이며, (11)은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이다. 그리고 (12)는 일본어와 서양 외래어가 뒤섞인 말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5. 서양의 외래어와 외국어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서 현재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서양 외국어의 대부분은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따위처럼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¹⁾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유행어로 떠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이런 말이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 동사와 더불어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형용사를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컬러풀하다’, ‘스마트하다’, ‘와일드하다’, ‘로맨틱하다’, ‘타이트하다’ 따위의 영어 형용사를 빌려다 썼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 형용사를 다량으로 빌려다 쓰고 있고, 영어 형용사가 우리말의 어느 형용사처럼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기도 한다.

(13) 영어 형용사에 ‘-하다’가 붙은 말

글래머러스하다, 글로벌하다, 보이시하다, 센세이셔널하다, 원더풀하다, 프로페셔널하다, 드라마틱하다, 트렌디하다, 쿨하다, 터프하다, 빈티지하다, 앤티크하다, 미니멀하다

1)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http://malteo.net>)에서는 ‘웰빙(well-being)’을 ‘참살이’로,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안전문’으로, ‘올인(all-in)’을 ‘다걸기’로 다듬은 바 있다.

- (14) 영어 형용사가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경우
스마트 폭탄, 슬립형, 글로벌 예산, 클린 산업

특히 최근에는 국가 기관의 이름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영어 약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 (15) 영어 약자
국가 기관의 영어 약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언론 기관의 영어 약자: DJ, MB, EBS
경제계의 영어 약자: KT&G, LG, LH
연예계의 영어 약자: SS501, SG워너비
일상생활의 영어 약자: 셀카, 다카, UCC(User Created Contents)

최근에 새로 생기는 직업의 이름, 기업이나 지역의 홍보 문구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는 국어를 확대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언어 사대주의나 국어는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권위주의 때문이다. 언어 사대주의나 언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말을 경시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

4.6. 변형된 우리말

- (16) 안냐세요 → 안녕하세요
방가 → 반가워요
어쵸요 → 어서 오세요
설 → 서울
고딩 → 고등학생
조아 → 좋아
부니기 → 분위기
(17) 포그니 → 포근히
누네티네 → 눈에 띄네
모드니에 → 모든 이에
함사세 → 함께 사는 세상



(16)은 컴퓨터 통신어이다. 이들 언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언어의 굴절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식이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심어진다. 이것이 바로 통신어를 부려 쓰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이다. 한편, (17)은 상표명과 상호명을 변형하여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 언어 초기에는 ‘머시따(멋있다)’, ‘절머(젊어)’, ‘마니(많이)’, ‘열시미(열심히)’처럼 우리말의 복잡한 받침을 없애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샘(선생님)’, ‘방가(반가워요)’, ‘어좌요(어서 오세요)’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분을 줄인 말이 자주 쓰였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자판을 칠 수 있어서 사용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이상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예컨대 ‘친구’나 ‘아니지’로 쓰지 않고, ‘튀구’, ‘아니쥬’로 쓰는 것이다. 아마도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신세대는 이런 형태의 말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헿헿’, ‘뽕’과 같은 이상한 신조어와 ‘KIN(줄)’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도 모두 이러한 경향 때문인 듯하다. 게다가 요즘은 ‘너無’, ‘빠2’, ‘밤5’처럼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ㄱㅅ(감사)’, ‘ㅅㅅ(죄송)’, ‘ㄷㅅ(추가 ← 축하)’, ‘ㄱㄷㅅ(키득키득)’처럼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은 것들이 있다.²⁾

이렇듯 인터넷 언어가 점차 우리말 파괴적인 성격을 띠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 변화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이며, 인터넷 언어도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 언어는 극히 제한된 은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한정해서 신세대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라서 일상 언어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영어에서 두문자(頭文字)를 활용한 NASA와 같은 말이 발달해 있듯이, 우리말에서도 단어의 자음을 활용한 표기를 활용해 봄 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가 다른 말과 변별이 되지 않아 언어 생활에 혼란을 주거나, 실제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지웃 시웃!”으로 말하는 일도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신세대의 인터넷 언어는 대부분 말장난의 하나로서 언어유희에 가깝다.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는 일은 다분히 우리말 파괴적 행태이다.

게다가 요즘의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의 일상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글에서도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신세대는 그러한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언어는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덧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언중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인터넷 언어는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4.7. 욕설, 비속어, 은어

최근 들어 욕설, 비속어가 신세대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엇나간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나 쓸 수 있던 말이 욕설과 비속어였다. 그런데 이젠 버스나 지하철에서 거리낌 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여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신세대 사이에서 ‘존나 쪽팔린다’라는 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일상어처럼 되어 버렸다.

2005년에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도 고등학생들 대부분(76.4%)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신세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는 ‘언어 상대 가설’을 세워 언어가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됬됨이, 즉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이론을 따르면 욕설이나 비속어 또한 인



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욕설이나 비속어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있는 신세대의 인격·정서 형성에 주는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다.

우리나라 신세대, 즉 청소년은 인터넷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통신 공간의 익명성은 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요즘 신세대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욕설, 비속어, 은어들의 예이다.

(18) 욕설

븅신(←병신), 덜아이(←또라이, 돌아이), 존나(매우)

(19) 비속어

쉐이(새끼), 뽕새다(고되다), 뽕까다(거짓말하다), 썩까다(모른 척하다), 똥지다(죽다), 씹다(대꾸하지 않다)

(20) 은어

깔(여자 친구), 깔따구(남자 친구), 까대기(이성 친구를 유혹하는 일), 담탱이(담임선생), 썩끈하다(멋지다), 뽕(기념식)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또한 언어폭력의 하나이다. 언어폭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크게 어긋난다. 게다가 언어폭력은 그 피해가 궁극에 가서는 가해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

4.8. 신조어

신조어를 살펴다 보면 때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신조어와 관련된 우리의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무녀독남(無女獨男)’은 ‘무남독녀(無男獨女)’에서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 자식을 하나만 낳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새로 생겨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제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 왔던 말이었으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



이다. 한편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말은 이미 사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엄연히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 단어들은 신조어에 밀려 사전 속에서 사장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귀차니스트/귀차니즘’, ‘얼짱/얼짱’, ‘당근이다’, ‘꽃미남’ 등과 같은 신조어는 일반인도 이를 널리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말이 적지 않아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신조어의 남발이 우리말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귀차니스트’, ‘귀차니즘’은 ‘귀찮다’라는 우리말에 영어 접사인 ‘-ist’, ‘-ism’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말이다. ‘얼짱, 얼짱’은 ‘얼굴 짱, 얼굴 팽’이라는 어구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준말인데 이 또한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들은 신세대가 단지 남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려고 우리말 어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또한,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어긋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신조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몰래카메라’, ‘홀로노인’, ‘깜짝쇼’, ‘깜짝세일’ 등이 있다. 이렇게 부사에 명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 방식과 어긋나서 부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오래전부터 써 오던 우리말에 ‘따로국밥’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⁴⁾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반영하듯 ‘얼짱, 몸짱, 에스(S)라인’과 같은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신체의 특정 부분을 관능적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꿀벅지, 착한 가슴, 초콜릿 복근’과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 성차별적인 인상을 준다.⁵⁾

3) 주부들의 ‘귀차니즘’이 생활 가전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정환보다 더 멋진 ‘얼짱’ 축구선수가 됐을 것이다. -세계일보

4) 한편, ‘먹자골목’, ‘막가파’, ‘묻지마투매’ 등은 동사의 활용형 뒤에 명사나 접미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크게 어긋난다. 그렇지만 우리말의 조어력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1)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장항동 ‘먹자골목’ 주변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등 잘못된 영업 행위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자유로포럼

(2) 1996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사건의 주범 최○○도 사형수 신분으로 13년째 복역 중이다. -일요신문

(3) 지금 금융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다 못해 ‘묻지마투매’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사실 신조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신조어 가운데 몇몇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말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내기’, ‘도우미’, ‘빨래방’ 등은 생성된 지 십여 년이 넘어 일상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완전한 우리말로 정착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표현 욕구를 지니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 욕구가 더 강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신세대의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사고방식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언어로써 신조어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듯 신조어의 사용이 신세대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고, 우리말의 표현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우리말답지 않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우리말을 파괴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신조어를 양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어 파괴 현상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서 다른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우리말 다듬기의 핵심은 잘못된 어휘를 고쳐 쓰는 것이지만 우리말 다듬기는 어휘만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문장도 대상이 된다. 우리말을 소리 없이 갇아먹고 있는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역시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1] 영어 번역 투의 문장

① 글 쓰는 이의 평소 생활 자세의 진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It is not too much to……’의 영향).

→ 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한다.

②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bout’의 영향)

5) 우리 주변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가치를 주입시키는 표현, 특히 성차별적 표현이나 빈부 차별,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등과 관련한 표현이 흔하다. 이러한 것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보기: 가정부(家政婦) → 가사 도우미, 살색 → 살구색, 핫팬츠 → 한뼘바지, 터프가이 → 꽤남아, 섹시미 → 관능미/요염함/매력적



-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e located in'의 영향)
→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 ④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 ('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
→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 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have'의 영향. [참고]: We have much rain.) →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 ⑥ 공격 찬스가 주어지면 기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be given'의 영향)
→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⑦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be required of'의 영향)
→ 새로운 경제 부처들은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 ⑧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from'의 영향)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⑨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be ~ing'의 영향)
→ 지금 열차가 도착합니다.
- ⑩ 좋은 아침 (되십시오)! ('Good morning!'의 직역)
→ '안녕하십니까?'. 또는 '활기찬{멋진} 아침 맞이하십시오.'

[2] 일본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 ②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
- ③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의' 남용)
→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 ④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풍토}이다.



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임에 틀림없다.

→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틀림없다.

그 밖에 ‘-에 의하여’는 낡은 한문 투이고 ‘-을 가지다’는 영어 ‘have’의 번역 투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이{에서}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리말 다듬기의 방향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순수성’,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일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2003년부터 일본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순우리말 쓰기’와는 다르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하여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는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치기보다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빌려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쉬운 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말 다듬기는 시기적절성과 쌍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널리 쓰여 굳어져 버리고 나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용성은 떨어지고 언중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언중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 말이 일상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이른 시일 안에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의 시기적절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말터’는 상향식, 쌍방향식, 자율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결과여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⁶⁾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우리말

6)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9년 6월부터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투표에 올릴 순화 후보어를 선정할 때 순화위원의 추천을 받고, 국립국어원의 국어 전문가가 후보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다듬기의 예들이다.⁷⁾

- (21) 말터에서 다듬은 말
- 웰빙 → 참살이
 - 이모티콘 → 그림말
 - 올인 → 다걸기
 - 콘텐츠 → 꾸림정보
 - 네티즌 → 누리꾼
 - 포스트잇 → 붙임쪽지
 - 스티커 → 붙임딱지
 - 언론플레이 → 여론몰이
 - 투잡 → 겹벌이
 - 헝그리정신 → 맨주먹정신
 - 메신저 → 쪽지창
 - 타임서비스 → 반짝할인
 - 랜드마크 → 마루지
 - 웹서핑 → 누리검색
 - 뷰파인더 → 보기창
 - 리플 → 댓글
 -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 팝업창 → 알림창
 - 커플룩 → 짝꿍차림
 - 유에스비(USB) 메모리 → 정보막대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아무리 좋은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언중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듯이 다듬은 말에 대한 전 국민의 실제적인 사용 절차가 있어야 우리말 다듬기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정규 교육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우리말 다듬기의 결과나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적

7)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 www.malteo.net)’ 게시판 ‘이렇게 바꿨어요!’에서 그동안 다듬은 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정보마당 → 어휘 검색 → 순화어(http://korean.go.kr/08_new/index.j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거나 교육해야 할 것이다.

6. 공공기관 언어 다듬은 사례

6.1. 다듬은 사례(1)—중앙 부처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절토법면	흙 깎기 비탈면
건설교통부	톨게이트(Toll Gate)	영업소, 요금소
건설교통부	크러셔(C/R) Crusher	골재 생산장
건설교통부	로드킬(Road kill)	동물 교통 사고
건설교통부	웻 리스(Wet lease)	포괄 임차
건설교통부	ITS 아키텍처(ITS architecture)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성도
건설교통부	다루키(垂木)	서까래
건설교통부	컨센서스(Consensus)	의견 일치
건설교통부	마인드맵(Mnd map)	연상법
건설교통부	CCTV(closed circuit TV)	폐쇄 회로 텔레비전/ 상황 관찰기
건설교통부	롤모델(Role model)	본보기
건설교통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건설교통부	케이터링(catering)	출장 요리
건설교통부	마일리지 서비스(mileage service)	이용 실적 서비스
건설교통부	수로도서지(水路圖書紙)	해도 및 항해 서지
건설교통부	VTS(vessel traffic system)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건설교통부	틸팅열차(tilting-)	준고속 열차
건설교통부	사이버 인프라 구축(cyber infra-)	전자 정보 공유 기반 시설 구축
건설교통부	잔여지(殘餘地)	자투리 땅
건설교통부	F.O.D.(Foreign Object Damage)	항행 위험물
건설교통부	PQ입찰(Pre-Qualification)	사전 심사 입찰
건설교통부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 정보 공유 시스템
건설교통부	제내지(堤內地)	제방 밖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BSC(BSC)	균형 성과표
건설교통부	보링(boring)	시추
건설교통부	코드 웨어(Code share)	공동 편명
건설교통부	편경사(扁傾斜)	횡단 기울기
건설교통부	도류화	곡선화
건설교통부	IC(Interchange)	나들목
건설교통부	페이스매핑(Face mapping)	사면 전개도
건설교통부	드라이 리스(Dry lease)	단순 임차
건설교통부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 연구 동아리
건설교통부	브릿지(Bridge)	탑승교
건설교통부	R & D 사업(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사업
건설교통부	차터(Charter)	전세편 항공기
건설교통부	오픈스카이(Open skies)	항공 자유화
건설교통부	로드 팩터(Load factor)	탑승률
건설교통부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 전광 표지
건설교통부	VE(value engineering)	가치 제고 기술
건설교통부	나라시(均し)	고르기
건설교통부	다이크(Dike)	배수 턱
건설교통부	성토법면	흙 쌓기 비탈면
건설교통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체계
건설교통부	매뉴얼(Manual)	지침서
건설교통부	사인보드(Sign Board)	안전 유도판
건설교통부	위빙(Weaving)	엇갈림
건설교통부	배칭플랜트(B/P) Batching plant	콘크리트 생산장
건설교통부	SOC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
건설교통부	TCS(Toll Collecting Systems)	통행료 수납 장치
건설교통부	브레이크(Breaker)	파쇄기
건설교통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기술
건설교통부	유도펜스(유도 Fence)	유도 울타리
건설교통부	구배(勾配)	기울기
건설교통부	딜리니에이터(Delineator)	시선 유도 표지
건설교통부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안전도 평가
건설교통부	단도리(段取り)	준비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건설교통부	루베(立方米(るべ))	세제곱미터
건설교통부	헤베(平方米)	제곱미터
건설교통부	반센/반생(盤線)	끈 철사, 연철사
건설교통부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건설교통부	리콜(Recall)	제작 결함 시정
건설교통부	바리케이드(barricade)	차단 시설물
건설교통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건설교통부	ABS(Anti-lock Brake System)	마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건설교통부	가드레일(guardrail)	방호 울타리
건설교통부	명예연안관리인제도	연안 지킴이 제도
건설교통부	R&D(Rease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공정거래위원회	CP(Compliance Program)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Escrow)	결제 대금 예치제
공정거래위원회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현충선양 프로그램	나라 사랑 참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케어 플랜	간호 복지 계획/복지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 행정, 관리, 통치 (※ 문맥에 따라 선택)
문화체육관광부	U-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뮤지엄 콤플렉스	국립박물관 복합 단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CT	녹색 방송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드 컴퓨팅	컴퓨터 연계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환경부	어독성	어류 독성
환경부	그린인프라	녹색 기반 시설
환경부	포기(조)	공기 공급(조)
환경부	비산먼지	날림 먼지



6.2. 다듬은 사례(2)—충청북도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랜드마크	마루지	25	오프닝	개막 (공연)
2	러브투어	~ 사랑 방문	26	워크숍	수련회, 연수회
3	로드맵	밀그림, 청사진, 길잡이, 단계별 이행안	27	원스톱	바로, 한번에, 한자리
4	리모델링	구조 변경, 새 단장	28	웰빙	참살이
5	매칭펀드	대응 자금, 대응 기금	29	이벤트	행사, 사건
6	메세나	문예 후원	30	인랜드포트	내륙항
7	모니터	정보 검색, 감시, 관찰, 점검	31	인센티브	유인책, 특전
8	바우처	복지 교환권, 복지 상품권	32	인프라	기반 (시설), 바탕
9	바이오메디컬	생명 의학 중심(지)	33	제로베이스	원점
10	뱅크	은행	34	콘텐츠	내용(물), 꾸림 정보
11	벤치마킹	견주기, 따라잡기	35	큐시트	진행표
12	벨트	지대, 구역, 띠	36	클러스터	연합 (지구)
13	브랜드	상표, 명품	37	클로징	마무리, 맺음
14	비전	이상, 전망	38	타깃마케팅	주요 판촉, 중점 판촉
15	서비스	봉사, 접대, 도움	39	태스크포스	전략팀, 기획팀, 특별팀
16	서포터스	후원자, 지지자, 응원단, 뒷바라지꾼	40	테마	주제
17	세미나	발표회, 연구회, 토론회	41	테크노폴리스	첨단 산업 연구 도시
18	센터	본부, 중앙, 중심 (지)	42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
19	슬로건	표어, 강령, 구호	43	패러다임	틀, 체계
20	시그널	신호	44	패밀리	가족
21	시니어클럽	어르신 모임, 어르신 동아리	45	펠릿	(연료, 비료, 먹이) 덩이
22	아이디어 챌린지	아이디어 겨루기, 아이디어 공모전, 참신한 생각 공모전	46	포럼	토론회, 연구회
23	어젠다	의제	47	프로그램	계획표, 차례
24	어메니티	쾌적함	48	프로젝트	연구(과제), 일감, 사업



7. 다듬은 말 익히기

■ 다음을 다듬은 말(순화어)로 써 보자.

- | | |
|-------------------------------|-----------------------|
| [1] 빠꾸(back) | [29]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
| [2] 샷시(sash) | [30]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
| [3] 조끼(jug) | [31] 겐세이(牽制, けんせい) |
| [4] 화이버(fiber) | [32] 다이(臺, だい) |
| [5]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33] 에리(襟, えり) |
| [6] 리모컨(remote control) | [34]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ばり) |
| [7] 쇼바(shock absorber) | [35] 분빠이(分配) |
| [8] 고참(古參) | [36] 노가다(←土方, どかた) |
| [9] 과물(果物) | [37] 닭도리탕[-鳥(とり)湯] |
| [10] 구보(驅歩) | [38] 비까번쩍하다(びか—) |
| [11] 기라성(綺羅星) | [40] 뽀록나다[襤褸(ぼろ)—] |
| [12] 노견(路肩) | [41] 왔다리 갔다리(-たり -たり) |
| [13] 대절(貸切) | [42] 곤색[紺(こん)色] |
| [14] 망년회(忘年會) | [43] 만땅(滿tank) |
| [15] 사라(皿, さら) | [44] 소라색[空(そら)色] |
| [16] 쇼부(勝負, しょうぶ) | [45] 여비(旅費) |
| [17] 수순(手順) | [46] 출산(出産) |
| [18] 수출고(輸出高) | [47] 금번(今番) |
| [19] 십팔번(十八番) | [48] 금회(今回) |
| [20] 용달(用達) | [49] 부의(附議) |
| [21] 익일(翌日) | [50] 멸실(滅失) |
| [22] 제전(祭典) | [51] 삭도(索道) |
| [23] 하구언(河口堰) | [52] 해태(懈怠) |
| [24] 소데나시(袖無し, そでなし) | [53] 당해(當該) |
| [25] 엔꼬(えんこ) | [54] 후룻쿠 |
| [26] 와쿠(杵, わく) | [55] 이모티콘 |
| [27] 우와기(上衣, うわぎ) | [56] 올인 |
| [28] 유도리(←ゆとり) | [57] 콘텐츠 |



- [58] 네터즌
- [59] 슬로푸드
- [60] 퀵서비스
- [61] 컬러링
- [62] 포스트잇
- [63] 클린 센터
- [64] 블로그
- [65] 커플 매니저
- [66] 헝그리 정신
- [67] 투잡
- [68] 메신저
- [69] 터프가이
- [70] 드레싱
- [71] 웰빙
- [72] 그룹 홈
- [73] 다크서클
- [74] 매치업
- [75] 뉴타운
- [76] 타임서비스
- [77] 스카이라운
- [78] 언론 플레이
- [79] 유시시
- [80] 핫팬츠
- [81] 스터디셀러
- [82] 웹서핑
- [83] 타임캡슐
- [84] 핸드프리
- [85] 조리
- [86] 워터파크
- [87] 뷰파인더



♠ 정답 ♠

[1] 후진/뒤로, 퇴짜	[31] 견제	음
[2] 새시/문틀/창틀	[32] 대/받침(대)	[62] 붙임쪽지
[3] 잔	[33] 깃	[63] 청백리마당
[4] 안전모	[34] 보조원/밑일꾼	[64] 누리사랑방
[5] 회반죽 차	[35] 노느매기/분배	[65] 새들이
[6] 원격 조종기	[36] 막노동/(공사판) 노동자	[66] 맨주먹정신
[7] 완충기	[37] 닭볶음탕	[67] 겹벌이
[8] 선임(자)	[38] 번쩍번쩍하다	[68] 쪽지창, 전달자
[9] 과일	[40] 들통 나다	[69] 쾌남아
[10] 달리기	[41] 왔다 갔다	[70] 맛깔장
[11] 빛나는 별	[42] 감색/진남색	[71] 참살이
[12] 갓길	[43] 가득/가득 채움	[72] 자활꿈터
[13] 전세	[44] 하늘색	[73] 눈그늘
[14] 송년회	[45] 노자(路資)/노잣돈	[74] 맞대결
[15] 접시	[46] 해산(解産)	[75] 새누리촌
[16] 결판	[47] 이번	[76] 반짝할인
[17] 순서/차례	[48] 이번 회	[77] 하늘섬터
[18] 수출량	[49] 회의에 부침	[78] 여론몰이
[19] 애창곡/단골 노래	[50] 없어짐	[79] 손수제작물
[20] 심부름	[51] 밋줄/하늘 찾길	[80] 한뼘바지
[21] 이튿날/다음날	[52] 게으름	[81] 늘사랑상품
[22] 잔치	[53] 해당(該當)/그	[82] 누리검색
[23] 강어귀 둑	[54] 어중치기	[83] 기억상자
[24] 민소매	[55] 그림말	[84] 맨손통화기
[25] 떨어짐, 바닥	[56] 다걸기	[85] 가락신
[26] 틀	[57] 꾸림정보	[86] 물놀이공원
[27] 윗도리/상의	[58] 누리꾼	[87] 보기창
[28] 유연/융통	[59] 여유식	
[29] 선전지	[60] 늘찬매달	
[30] 품재기, 부풀이	[61] 멋울림/발신 대기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김길동(2009), 우리말 다듬기,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김형배(2004/2009),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최용기·민현식·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김형배의 한말글사랑*생활국어 연구소 <http://cafe.naver.com/hanmal>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말터) <http://www.malteo.net>



[참고] 우리말 다듬기(말터 사이트 다듬은 말 목록)

(기간: 2004. 7. 12.~2010. 2. 2.)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가십(gossip) 거리	입방아 거리
갈라쇼(gala show)	뒤풀이공연
게이트(-gate)	의혹사건
골드미스(Gold Miss)	황금독신여성
교례회(交禮會)	어울모임
그래피티(graffiti)	길거리그림
그룹 홈(group home)	자활꿈터
그린 프리미엄(green premium)	환경덧두리
글램핑(glamping)	귀족야영
내비게이션(navigation)	길도우미
네이미스트(Namist)	이름설계사
네티즌(netizen)	누리꾼
넷북(Net-book)	손누리틀
노미네이트(nominate)	후보지명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구설(수)홍보
뉴타운(new town)	새누리촌
다이(DIY←Do It Yourself)	손수짜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역사교훈여행
다크서클(dark circle)	눈그늘
테크아트 마케팅(techart marketing) ※ techart: 기술(tech)과 예술(art)을 합친 말	예술감각상품
드라이브(drive)	몰아가기
드레스 코드(dress code)	표준옷차림
드레싱(dressing)	맛깔장
드로어즈(drawers)	맵시속마지
디그(dig)	받아막기
디엠(DM, Direct Mail)	우편광고(물)
디오라마(diorama)	실사모형
디펜딩 챔피언(defending champion)	우승지킴이
딩펫족(Dinkpet族)	맞벌이애완족
랜드마크(landmark)	마루지
러브 라인(love line)	사랑구도
러브콜(love call)	부름공세
레시피(recipe)	조리법
레이싱 걸(racing girl)	행사빛냄이
레퍼런스(reference)	고품질
로고송(logo song)	상징노래
로드 무비(road movie)	여정영화
로드킬(roadkill)	찾길동물사고
로밍(roaming)	어울통신
루미나리아(luminaria)	불빛축제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루비족(RUBY族)	새봄여성
리메이크(remake)	원작재구성
리콜(recall)	결함보상(제)
리퍼브(←refurbished)	손질상품
리플(Reply)	댓글
립싱크(lip sync)	입술연기
마리나(marina)	해안유원지
마블링(marbling)	결지방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	명인강좌
마우스 포테이토(mouse potato)	꼴방누리꾼
마이크로 블로그(트위터)(Micro Blog, twitter)	댓글나눔터
마일리지(mileage)	이용실적점수
매스티지(masstige)	대중명품
매치업(match-up)	맞대결
머스트 해브(must have)	필수품
메세나(mécénat)	문예후원
메신저(messenger)	쪽지창
멘토(Mentor)	인생길잡이
모티켓(motiquette)	통신예절
무빙 워크(moving walk)	자동길
미션(mission)	중요임무
바우처 제도(voucher 制度)	복지상품권제도
박스 오피스(box office)	흥행수익
방카쉬랑스(bancassurance)	은행연계보험
백댄서(back dancer)	보조춤꾼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음성사기전화
보케베케(vocation-vacation)	꿈나래휴가
뷰파인더(viewfinder)	보기창
브랜드 파워(brand power)	상표경쟁력
브런치(brunch)	어울침
브로마이드(bromide)	벽불이사진
브이오디 서비스(VOD service)	다시보기
블라인드(blind)	(정보)가림
블로그(blog)	누리사랑방
블루오션(blue ocean)	대안시장
블루투스(blue tooth)	썸지무선망
블록(block)	누리글보따리
비트박스(beat box)	입소리손장단
빅 리그(big league)	최상위연맹
빙고(bingo)	맞았어
사이버 대학(cyber 大學)	두루누리대학
샐러던트(saladent)	계발형직장인
샘플러(sampler)	맛보기묶음
생식건강(生殖健康)	생명샘건강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샹그릴라(Shangri-la)	꿈의낙원
선팅(sunting)	빛가림
성큰가든(sunken garden)	뜨락정원
세트 피스(set piece)	맞춤전술
셀슈머(sellsuner)	누리장터꾼
셀프카메라(self camera)	자가촬영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무점포사업
솔 메이트(soul mate)	교감지기
쇠파라치(쇠parazzi)	쇠고기신고바치
쇼케이스(showcase)	선보임공연
쇼플러(Shopper)	원정구매족
슈터링(shootering)	꼴문어림차기
스도쿠(すどく/數獨)	숫자넣기
스카이라운지(sky lounge)	하늘쉼터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안전문
스킨십(skinship)	피부교감
스타일리스트(stylist)	맵시가꿈이
스탠더드 넘버(stadard number)	대중명곡
스테디셀러(steady seller)	늘사랑상품
스토리보드(storyboard)	그림줄거리
스파이웨어(spyware)	정보빼내기프로그램
스팸 메일(spam mail)	쓰레기 편지
스펙업(spec-up)	깜냥쌓기
스포일러(spoiler)	영화헤살꾼
스포테인먼트(spotainment)	홍끌이운동
스팟 광고(spot 廣告)	반짝광고
슬로푸드(slow food)	여유식
슬롯머신(slot machine)	성인오락기
시시티브이(CCTV)	상황관찰기
시즌(season)	~ 번째 이야기
실버시터(silver sitter)	경로도우미
싱글맘(single mom)	홀보듬엄마
아우라(Aura)	기품
아우터(outer)	겉차림옷
아이쇼핑(eye shopping)	눈길장보기
아이젠(eisen)	눈길덧신
아이콘(Icon)	상징(물)
아이피티브이(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맞춤형누리방송
아카이브(archive)	자료전산화
아킬레스건(Achilles 腱)	치명(적) 약점
아티젠(Artygen)	감각세대
알파걸(alpha girl)	으뜸녀
언더패스(underpass)	아래차로
언론 플레이(言論 play)	여론몰이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학습
에스라인(S-line)	호리병 몸매
에스오에스(SOS)	구원요청
에코맘(EcoMom)	환경친화주부
엑스파일(X file)	안개문서
엔딩크레딧(ending credit)	끝맺음자막
엔지족(NG←No Graduation族)	능장졸업족
엠니스족(M-ness族)	주부남
영건(young gun)	기대주
예티족(Yettie族)	자기가치개발족
오마주(hommage)	감동되살이
오일볼(oil ball)	기름몽치
오프라인(off-line)	현실공간
오픈 하우스(open house)	열린집/집열기
올인(all-in)	다결기
옴부즈맨(ombudsman)	민원도우미
와이브로(WiBro)	휴대누리망
워터파크(waterpark)	물놀이공원
원샷(one-shot)	한입털이
원톱(one top)	홀로주연
월풀(whirlpool)	공깃방을목욕
웨딩플래너(wedding planner)	결혼도우미
웰본(well-born)	배넛바라지
웰빙(well-being)	참살이
웹버족(Webver族)	은빛누리꾼
웹서핑(web surfing)	누리검색
웹툰(Webtoon)	누리터쭈그림
유비쿼터스(ubiquitous)	두루누리
유시시(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제작물
유에스비(USB)메모리	정보막대
이모티콘(emoticon)	그림말
정크푸드(junk food)	부실음식(식품)
제로베이스(zero base)	백지상태
조리(ぞうり/草履)	가락신
쭈마데이너	재치부인
체리 피커(cherry picker)	금융암체족
치어리더(cheerleader)	흥돈웁이
치킷(chick-lit)	꽃띠문학
캐리어(carrier)	아이업개
캐릭터(character)	특징물
캐포츠(caports)	활동복
캠프파이어(campfire)	모닥불놀이
캡처(capture)	장면갈무리
커튼콜(curtain call)	부름갈채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커플 매니저(couple manager)	새들이
커플룩(couple look)	짝꿍차림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가온머리
컬러링(color ring)	멋올림
컬트(cult)	소수취향
케이타링(catering)	맞춤밥상
코드(code)	성향
코드프리(codefree)	빳장풀기
콘텐츠(contents)	꾸림정보
퀄리티 스타트(quality start)	선발패투
퀵서비스(quick service)	늘찬배달
크레이들(cradle)	다목적꽃이
크로스백(cross bag)	엇걸이가방
크리에이터(creator)	광고창작자
클러스터(cluster)	신학협력지구
클린 센터(clean center)	청백리마당
키덜트(kidult)	어른왕자
키맨(key man)	중추인물
키치(kitsch)	눈길끌기
킬힐(kill heel)	까치발구두
타임 서비스(time service)	반짝할인
타임캡슐(time capsule)	기억상자
터프가이(tough guy)	꽤남아
테스트베드(test bed)	가늠터
투잡(two job)	겉벌이
트랜스 지방(trans 脂肪)	변이지방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으뜸상징
트리트먼트(treatment)	머릿결영양제
티처보이(teacher boy)	교사의존학생
팁(tip)	도움말
파이팅(fighting)	아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	맛보기프로그램
파트너십(partnership)	동반관계
파파라치(paparazzi)	몰래제보꾼
팝업창(pop-up窓)	알림창
패딩(padding)	누비옷
패셔니스타(fashionista)	맵시꾼
패키지(package) 상품	꾸러미상품
팩(pack)	피부가꾸미제
팩션(faction)	각색실화
팬미팅(fan meeting)	다솜모임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	초상사용권
퍼스나콘(personacon)	개성표현폼
펍킨족(펍KIN族)	펍누리꾼



다듬기 전의 말	다듬은 말
펜트하우스(penthouse)	하늘채
포스트잇(Post-it)	붙임쪽지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철새교수
플 세트(full set)	다모음
튀레/퓨레(Purée)	과립즙
프라브족(PRAV族←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 族)	알뜰개성족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시청각설명(회)
프로슈머(prosumer)	참여형소비자
프리 사이즈(free size)	열린치수
프리터족(freeter族)	자유별이족
프티 성형(petit 成形)	여우비성형
플라모델(plamodel)	조립모형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체험판매장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자백감형제(도)
피싱(phishing)	정보도둑
피처링(featuring)	돋움연주
하드보일드(hard-boiled)	냉혹기법
하이브리드(hybrid)	어우름
핫이슈(hot issue)	주요쟁점
핫팬츠(hot pants)	한뼘바지
해피 엔딩(happy ending)	행복결말
핸드프린팅(handprinting)	기념손찍기
핸즈프리(handsfree)	맨손통화기
허브족(hub-族)	마당발족
헝그리 정신(hungry 情神)	맨주먹정신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누리물난전꾼
헬리콥터 부모	치마폭부모
호롯쿠(フロック)	어중치기
호스피스(hospice)	임종봉사자
홀드(hold)	중간구원
홈베이킹(home baking)	손수굽기
후카시(ふかし/吹かし)	품재기 ※ '품'(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됨됨이)과 '재기'['재다'(잘난 척하며 으스스 대거나 뽐내다)의 명사형]의 합성어
후크송(Hook Song)	멤돌이곡
휘핑(wheeping)	거품크림
휴테크(休tech)	여가활용기술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폐쇄은둔족



공문서 바로 쓰기

1.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公文書)’란 공공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의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행정 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의 공문서는 행정 기관 내부에서 작성되고 시행되는 문서와 행정 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문서,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 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함.)는 물론이고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공식적인 문서를 가리킨다.¹⁾

2. 공문서 문장의 요건

- (1)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뜻이 분명하고 쉽게 써야 한다.(명확성, 평이성)
- (2) 문법과 어문 규정을 지켜야 한다.(규범 준수성)
- (3) 우리말답게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자연스러움, 적절성)

공문서의 문장은 쉬워야 한다. 공문서의 문장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든지 용어나 표현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공공 기관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차질이 생기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문서의 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면 공공 기관의 업무 효율성·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의미가 명확하고 쉬운 것만으로 공문서 문장이 충분히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문서가 기본적인 국어 문법이나 어문 규정조차 따르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국가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 공문서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그 밖의

1)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 행정안전부) 제3조 제1호 참조.



공공 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문서임에도 우리말 사용의 질서와 규칙에 어긋난다면 결코 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문서의 문장이 문법과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 맞게 모범적인 문장으로 작성된다면 일반인들이 문장을 바르게 쓰도록 이끌어 주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문서의 문장은 외국어(특히 영어, 일본어) 번역 투의 문체나 문장을 피하고 우리말답게 자연스럽게 써야 우리말의 발전, 우리 언어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공문서의 오류 유형

3.1. 잘못된 호응 관계

- ①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 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① 주어부와 서술어만 바로 연결해 보면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 교부한다.’가 된다. 앞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도 맞고 의미상의 중복도 해결된다.

[수정]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이 문장의 ‘열람한다’는 타동사이므로 ‘누가 무엇을 열람하다’로 표현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열람하도록 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수정]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또는 관계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주어인 ‘상대방이’와 호응하려면 서술어는 ‘확정한’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확정된’이 되어야 한다. ‘확정한’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불필요하다.

[수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목적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부사어가 놓임으로써 비문이 된 경우이다. 다른 곳에서 목적어를 찾을 필요 없이 부사어인 ‘화학 물질 중’을 ‘화학 물질을’이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이 문장은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논리적,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급증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아니므로 ‘수요가’ 또는 ‘사용량’과 같은 주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사용량(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이 문장은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서술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사항을’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3.2. 바르지 않은 접속 구조

- 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②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착륙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① 이 문장 ‘과’의 앞부분은 명사구이고 ‘과’의 뒷부분은 절인데 이들이 ‘과’로 접속되어 있다. ‘구와 구’로 바꾸기에는 뒷부분의 서술 내용이 많아 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 ② 이 문장에서 ‘제한 사항 확인 및’이라는 부분은 절로 표현할 것을 무리하게 구로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제한 사항 확인’이라는 명사구가 ‘계약서 등을 열람하다’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로 바꾸어야 한다. ‘구와 절’이 ‘및’으로 접속되어 있는데, ‘결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 문장에서는 ‘~ 다음과 같이 □를 고시합니다’라는 문장 구조 속의 □ 부분에 ‘착륙시설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 어미 ‘-어’를 경계로 앞부분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진 ‘절’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용 개시’라는 명사구로 되어 있어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졌다.

두 구문을 ‘절+절’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하고, 간결성을 추구하여 ‘구+구’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의 신설과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한다.

[수정]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 착륙 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대상이 ‘능력’과 ‘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권한없는’을 붙여 씌으로써 대등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처분의’는 ‘능력’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수식하므로 ‘권한없는’을 붙여 쓰면 곤란하고 ‘권한이 없는’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수정]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3.3. 잘못된 피동과 사동

- ①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됨.
- ②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① 이 문장은 ‘~수역을’을 목적어로 지니고 있으므로 서술어는 타동사로 ‘제외함’이 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피동구문을 구성한 예이다.

[수정]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함.

② 이 문장은 조건절에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이’가 주어이므로 서술어는 ‘작성될’이 되어야 하는데 서술어가 타동사로 표현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정]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3.4.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

- ①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에’라는 조사와 ‘에도’라는 조사는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악 조건에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 *양가 부모님의 강



한 반대에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다.”라는 표현에서 ‘도’가 빠진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듯이 위 문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는 ‘에도 불구하고’도 좋으나 ‘~에 얹매이지 않고’, ‘~와/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시간적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얹매이지 않고(‘규정이 있더라도,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감정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부적합하다. 유정물(有情物)에는 ‘에게’를 써서 ‘-에게 속하다’라고 해야 문법에 맞다.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로(써)’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저당물의 경매로 (말미암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를 상대로)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③ ‘경우’는 그 어휘적 특성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 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관련하여 제약이 따른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때’가 부자연스럽고 ‘인정할 때’가 자연스럽다.

[수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은 때’는 과거에 완료된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추정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1회성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문맥에서 ‘접수된 때’는 부적절하며 ‘접수되었을 때’가 적절하다.(유사 예: 자기 뭇의 밥을 {먹은 때(×)/먹었을 때(○)}에는 더 먹지 마시오.)

[수정]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또는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3.5. 중의적 표현

- ① 항소 또는 항고사건<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②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그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제42조 제2항 제2호>
 ③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燒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70조 제1항>

뜻이 둘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 한다. 이런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위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맥상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 ① 뜻1: ‘항소’ 또는 ‘항고 사건’(=‘항고 사건’ 또는 ‘항소’)
 뜻2: 항소 사건 또는 항고 사건(←항소 또는 항고 사건)
- ② 뜻1: ~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뜻2: ~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 문맥상 뜻2의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제3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이라고 고쳐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뜻1: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뜻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 문맥상 뜻2의 의미가 옳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과실로 (말미암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



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6. 수식어의 바르지 않은 위치

- ①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의 안정적인 생·용수 공급
- ②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황혈식 고분임.
- ③ 또한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 제도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지원 방안

① ‘안정적인’이라는 관형어가 위치를 잘못 잡아 ‘안정적인’이 마치 ‘생·용수’를 수식하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일단 ‘충남 서·북부의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같이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의’가 중복되어 약간 부자연스러우므로 앞의 ‘의’를 ‘에서 사용할’로 고치는 것이 더 좋다.
[수정]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에서 사용할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② ‘황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되는데, 이들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고고학적으로는’과 ‘중요한’은 긴밀한 구성을 이루도록 관형절로 변형할 필요가 있고, ‘이 지방의’는 ‘6세기의’ 뒤로 옮기든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한편 ‘본(本) 사적지’는 ‘이 사적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이 사적지 내의 옛무덤{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굴식 무덤{황혈식 고분}임.

③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가 수식할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폐지된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장 구조로는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가 오히려 ‘유지돼 온’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가 마치 ‘강압 수사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인 줄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를 ‘폐지된다’ 바로 앞에 두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수정] 또한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이 바로 뒤에 오는 ‘한국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및’으로 연결된 위 문장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두 개의 표현 중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은 자연스럽지만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방안’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정] 한국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이(→한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3.7. 부자연스러운 표현

- ①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구 보존을 위해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③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① 이 문장은 관형어와 목적어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는 ‘무엇의’ 영구 보존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무엇을’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인지 그 대상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모두 보충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적들(‘가’ 고분들) 사적에서 해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이 문장은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 가운데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고시합니다’가 쓰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넣어 주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의거’는 어근인데 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의거하여’ 또는 ‘따라, 의하여’ 등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③ 이 문장은 명사구가 남용되어 부자연스럽다. 길이가 긴 표현을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서술식 표현을 명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길이를 줄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명료하게 압축시켜 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명사화를 남용하면, 그 문장은 부자연스러워지며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도 힘들어진다.

[수정]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4. 공문서의 표기와 표시

4.1. 항목의 구분

- (1)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²⁾
- (2) 첫째 항목은 용지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며,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2타(한글은 1자, 영문·숫자는 2자)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 (3) 항목 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 다음 글을 쓴다.
- (4) 소제목과 소제목, 소제목과 그 내용은 1줄씩 띄어 쓴다.

(예)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가)√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①√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08. 9. 2. 행정안전부령 제32호) 제10조.

※ 가.~하., 가)~하), (가)~(하), ㉠~㉡ 이상 더 계속되는 경우에는
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
다. (√표시는 1타를 뺀다는 표시임.)

4.2. 숫자의 표시

- (1)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글을 혼용할 수 있다.
- (2)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예) 50,000,000원(○) / 5,000만√원(○) / 5천만√원(○)
 시가√123,450,000원(○) / 시가√1억√2345만√원(○)
 12억√3456만√7898원(○) / 12억3456만7898원(×)

4.3. 일자의 표시

- (1)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
 대개 ‘연’, ‘월’이 쓰일 자리에는 온점을 표시하지만, ‘일’이 쓰일 자리에는 온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 (2) 연도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년 을 생략하지 아니한다.
- (3) 온점 뒤는 한 칸씩 띄운다.
- (4) ‘부터’와 ‘까지’는 온점 뒤에 바로 붙여 쓴다.

(예) 2009.√10.√9. (○) / 2009.√10.√9 (×) / 2009.10.9. (×)
 2009.√10. (○) / 2009.√10 (×)
 2009년√1/4분기 (○) / 2009. 1/4분기 (×)
 '09.√10.√09. (×)
 2009.√10.√9.√~√2009.√12.√5.√기간 (○)
 2009.√10.√9.부터√2009.√12.√5.까지 (○)
 2009.√10.√9.√~√2009.√12.√5.까지 (×)



4.4. 성명의 표시

- (1)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2) 성명의 각 글자를 한 칸씩 띄지 않는다.

(예) 홍길동 (○) / 홍√길동(×) / 홍√길√동(×)
 선우덕 (○) / 선우√덕(○)

4.5.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명칭의 표시

- (1) 정식 명칭을 쓴다.
- (2) 글 가운데에서 명칭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이하 ‘……’라 한다.)로 축약 표시하고 이후 줄여서 사용한다.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서울 종로구청장(×)
 경상북도지사(○) / 경북도지사(×)
 전라남도 남원시장(○) / 전남 남원시 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 (○)

4.6. 인용 부호의 표시

- (1) ‘큰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대화를 표시할 때
 - ②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③ 판례나 법령을 그대로 인용할 때
 - ④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할 때
- (2) ‘작은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인용한 내부에 다시 인용할 것이 있을 때
 - ② 문장에서 중요 부분을 강조할 때

4.7. 법령 등의 인용

- (1)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령명은 띄어 쓰되, 법령명 앞뒤에 「 」 (낫표)를 붙이고, 조·항·호는 “띄어쓰기”를 통일한다.
- (2) 법령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한다.
- (3)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축약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 」를 붙일 필요가 없다.
- (4)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우선 순위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구 법령을 인용할 때는 어느 법인지 특정해야 한다.
- (6)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할 경우,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들의 경우도 제목은 「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3조의 2 제1항 가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2009. 1. 6. 조례 제787호)
-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지침」 (2008. 12. 2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1호)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공문서 문장의 실태를 크게 몇 갈래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공문서의 문장이 바른 문장이 되려면, 뜻이 명확하고 쉽게 써야 하며, 문법과 어문 규정을 지켜야 하며, 우리말다운 어휘와 문체를 구사하여야 한다. 요컨대 공문서 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명확성, 평이성, 규범 준수성, 자

연스러움, 적절성 등이라 할 수 있다.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것은 국어를 정확히 구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지 않게 하여 원래의 뜻을 훨씬 쉽게 전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 권위적인 표현을 삼가고,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쉽게 글을 쓰는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국어 생활에서도 국민에게 모범이 되면 국민과 더 잘 소통하고, 국민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바르게 쓰는 데에는 깊이 생각하고 이를 언어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다 쓴 후에는 다시 읽어 보면서 혹시 어려운 용어는 없는지, 문장 구조는 반듯한지, 어휘나 표현이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곳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바른 글쓰기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생활 글쓰기

— 겪은 일 쓰기를 중심으로 —

1. 글은 왜 쓰나?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 우선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쓴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무언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또 느끼게 된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 이 표현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쓴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면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나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책, 선생님, 교실’ 하는 식으로 그 상황에 마땅한 언어를 떠올리게 된다. 언어로 사고를 한다는 말이다. 언어 능력은 사고 체계와 관계가 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우리말로 된 문제를 잘 해석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듯 말과 글을 잘 써야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글을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확인하고 궁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마디로 글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 말과 글은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다. 우리는 이 도구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에서부터 크게는 서로의 생각을 널리 알려서 삶과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서 알차게 하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한층 더 깊고 참신한 생각을 낳고 가꾸어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글을 통하여 만나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끝없이 값진 사상으로 꽃피게 되는 것이다.



2.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까닭은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도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감동도 있을 수 없다. 감동은 진실의 울림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감동한다. 글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느낄 수 있다. 감동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서 감동을 주는 글이 그 아름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 좋은 글이란 가치 있는 글이다.

가치 있는 글이란 우리네 삶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발견을 이룬 것, 그 어떤 발견을 인간다움에서 이루어 낸 것이다. 애깃거리가 되지 않는 밋밋한 글에서는 어떤 ‘발견’이 없다. 또 상투적으로 내린 결론의 글은 자기 경험을 소중하게 살리지 못하게 된다. 가치가 없는 글은 인간다움을 잃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자.

[보기 글 1]

지하철의 희망, 외판원 아저씨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말 있었던 일이지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웬지 기분이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잡고 가방을 내려 놓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아저씨가 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아,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치잇솔입니다. 이걸 뭐 할라고 가지고 나왔을까여? 팔러고 나왔습니다. 처어년입니다. 뒹면 돌려 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될까여?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찻술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찻술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여?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찻술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찻술은 네 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다시 말을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찻술 네 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서 4천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여, 안 했을까여? 예, 쉬일망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군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월간지 <작은책>에서: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노보에 실렸던 글)

자기가 겪은 일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적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느낌을 적고 있는 글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떠올린 자신만의 발견도 들어 있는 글이다.

자기가 겪은 일을 정확하게 쓰고 그 정확하게 쓴 글이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감동을 한다. 그러려면 글에 담긴 내용이 가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치 있는 생활에서 가치 있는 생각도 글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글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3. 어떻게 쓸까?

3.1. 겪은 일 그대로 쓰면 된다.



[보기 글 2]

밥 짓는 남자

아이디: 역마차

‘인간은 늘 삼시 세 끼의 밥을 먹어야 사는가! 알약 하나로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장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

요즈음 느끼는 사십 대 가장인 나의 똥판지 같은 의문이다.

신혼 시절에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불어 터진 라면 한 냄비에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고소한 깨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면 하루 종일 굶어도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느낌 이었다.

“ 피곤한데 잠 더 자. 아침밥은 안 먹어도 돼.”

뱃속에서 꼬로록 소리는 났어도 팔베개를 해주고는 두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삼키는 침만으로도 배가 불렀으니…….(여기까지 읽고 신혼 때를 생각하며 수궁하는 부부가 많으리라.)

갓 시집온 옛된 아내가 밥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소꿉놀이마냥 만들었던 반찬! 장모님의 반찬 솜씨를 어깨 너머로만 배웠는지 짜고, 맵고, 싱거워도 뱃속에서만 고통의 허기를 달랠 뿐 겉모습은 늘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와아. 자기 솜씨가 최고데!" 하며 두 눈 질끈 감고 우걱우걱 눈물 섞인 빵이 아닌 밥을 먹어도 마냥 배부른 허상에 행복 했다고나 할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신혼 시절에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기억은 자식 둘이 생기면서 산산히 부서진 신혼의 단꿈이 돼 버렸다. 내 자리였던 아내의 옆자리를 아이들에게 내몰리다시피 내주고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허전함에 배고픔이 요동을 쳤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아내는 침얼대는 아이들 옆에서 어릿광대가 되어 땀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배고파 밥 줘."

상황 판단을 못하는 눈치 뽕단의 나의 요구에

"애 보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좀 차려 먹어"

그렇게 나의 요구는 핀잔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자기야~. 내겐 자기 밖에 없는 거 알지~. 내 전부인 거.’

신혼 시절 그런 유치뽕짝스런 공약(?)은 자식들로 인해 이미 망각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내가 망언을 했지. 어찌 하늘의 별을 따누. ㅎㅎㅎ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정말 내가 걸신이 들린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아이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허전함에 한 그릇, 회사 상사의 잔소리와 스트레스를 씹느라 또 한 그릇. 늘어나는 위장에, 처지는 뱃살 속에 그렇게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는 맛별이를 한다. 아내를 안방마님으로만 모셔 둘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이 되지못해 총 대신 장갑을 낀 아내가 산업 전선에 뛰어든 것



이다. 오늘도 난 밥상을 차린다. 회사일 때문에 나보다 가끔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대신해 어느새 중학생, 초등 6학년이 된 아들 딸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다.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미 성분 분석을 마쳤기에 부족한 성분을 더 첨가해서 아내가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는 반찬으로 아이들에게 쟁! 소리를 듣는다. 아주 어릴 적 웃어른, 부모님에게 들었던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XX 떨어진다.'는 겁나는 유교사상(금기 사항)을 몸소 체험해 보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오늘은 청국장에 새로운 맛을 내 볼 작정이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의 열기와 한여름 더위가 맞물려 내 이마엔 땀방울이 떨어진다. 한동안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주방에 자주 들락거려야 할 것 같다.

어디 밥 대신 먹는 알약 없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427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출처: Daum 아고라-이야기-감동-밥짓는 남자)

※ 원문 표현 중 일부 어색한 부분을 편집자가 다듬었음.

[보기 글 3]

택시요금 10만원!!!

아이디: 하늘아래

어제일이 고맙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말은 삼가 주시고요(←삼가해 주시구요(×))(부탁입니다 댓글보면 무섭더라고요. ㅎㅎㅎ)

전 인천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50대의 평범한 택시 기사입니다 그저께 토요일 근무를 끝내고 아고라에서 글을 보다가 너무 늦잠을 잔 관계로 일요일 느즈막하니 일어나 (오후 7시쯤) 영업을 했는데 휴ㅠㅠ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너무 손님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시간은 어느덧 11시 10분경 미터기를 보니 총수입은 12,700원.

한숨은 나오고 잠시 쉬어 갈 요량으로 잘 가는 길 커피숍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전방에 손님 발견, 잼싸게 차를 들이대는데 손님께서 피우던 담배를 끄시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냥 물고 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손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지요, 손님이라고 담배를 피울 수는 없지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에 타시는데 헉~ 진하게 풍겨오는 술내. 순간 제 몸은 긴장하게 되



더군요. 또 어떤 시비나 걸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손님 말씀이 자기는 택시 기사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신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택시들이 아속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세워 주는 택시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편히 집으로 갈(←집으로 귀가할(x)) 수 있으니 지금 같은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괜찮지만 한겨울에는 안 태워 주면 길가에서 잠이 들다 혹시 동사라도 하면 어쩌냐고요.

그러면서 너털웃음을 웃으시는 겁니다. 따라 한 번 웃고 제가 걱정했던 마음이 미안해서 아까 피우지만 담배 한 대 하십사 하고 담배를 한 대 권했어요. 손님도 아쉬웠던지 그럴까요 하시면서 함께 담배 한 대 피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요금은 9300원.

그런데 손님께서 주시는 돈 처음 보는 5만원권 두 장 그러면서 잔돈은 커피 한 잔 하시란다. 순간 내 머리 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쿵쾅거리면서 얼굴은 달아 오르고 찰나지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채 고맙다고 인사하고 잼싸게 갈까? 이 돈이면 입금하고 남는데 등등 솔직히 별 생각 다 드는데 입에서는 “이건 아닌데요.” 하고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손님은 돌아보시면서 뭐가 아니냐고 하신다. 9300원 나왔으니 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럼 맞는데요, 이걸 5만 원짜리인데요.” 했더니 보관용으로 몇 장 바꿔 놓은 걸 잘못 꺼내 준 거라면서 웃으신다. 그러면서 제게 5만 원권 있냐고 물어 보신다. 오늘 참 뵈었다고 했더니 그럼 한 장 가지란다. 잔돈은 35,000원만 달라시는 거다. 팁으로 5,700원. 이걸 제 정신으로 주시는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돌아서는데 솔직히 가슴 뿌듯하다. 택시 기사들 좋지 않게 보는 요즘 그래도 택시 기사들에게 호의적인 손님을 만나 감사했는데, 내가 만약 모른 채 했었다면 나중에 저분이 술이 깨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택시기사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을까 하는 맘으로, 참 잘했구나 하는 맘으로 기분이 좋아지니 일도 잘되었다. 또 남은 시간 동안 장거리 두 번 다녀왔더니 늦게 영업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날보다 수입이 좋았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4052>(출처: Daum 아고라-이야기-감동-택시요금 10만원!!!)

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을 그대로 적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글이란 이렇게 쓰면 된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에 적은 글로 종결형 어미로 경어체(“~ 겁니다. ~ 했지요”)와 일상체(“~했다”)가 뒤섞여 나온다. 그런 건 다듬으면 그만이다.

3.2. 관념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관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을 적는 공부를 해야 한다. 자기 삶의 체험에서 벗어난 글쓰기는 모두 관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글쓴이가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자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념은 대체로 밖에서 주입된 것이다. 관념은 실체가 아닐 때가 많다.

“추상 관념이나 낱말을 하나씩 따져보고 자신에게 알맞게 써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고 삶이 가꾸어진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에서 주어진 관념이지 자신이 들은 실체가 아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까마귀 울음이 ‘아악 아악’이나 다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까악 까악만 생각하고 실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관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운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서 사회 일반에 굳어진 것임은 틀림없다. 까마귀 울음이 여러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보편으로는 ‘까악 까악’이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을 갖춘다. 까마귀의 울음에 자신만의 감정과 색깔을 섞을 수 있다. 삶을 깨우칠 수 있다.”(왕규식)

[보기 글 4]

가을 풍경

초등학교 4학년 여

기대하던 추석.

용인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아빠 차로 쉿쉿 달리는 가을 길은 볼거리가 참 많았다. 누렇게 익은 벼,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 길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코스모스는 너무나 흥겨웠다.

외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나와 보니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들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밤을 따라 갔다. 산들을 신고 갔더니 밤송이들이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듯 내 발을 쿵쿵 찼다. 귀뚜라미들도 환영 노래를 불러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쉽고 섭섭했다.



이 글은 자기가 겪은 일을 적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적지 못하고 있다. 본 모습을 그대로 적으려면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라고 적으면 안 되고 허수아비가 ‘어떻게 참새를 놀래게 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낮은 회색 양복을 걸친 허수아비는 바람이 불자 깡통 흔들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근처에 앉아 있던 참새가 놀라서 푸드덕 날아갔다.” 하는 식으로…….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이라고 한 부분도 더 실감나게 적으려면 실제로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더욱이 귀뚜라미는 아침에 울지 않고 저녁에 운다. 그런데 이 글에는 아침에 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겪은 것을 겪은 대로 적지 않고 머리로만 적다 보니 이렇게 비논리적인 글이 되어 버렸다. 다음 글도 관념으로 적은 글이다.

[보기 글 5]

5월

싱그러운 계절, 5월의 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 준다. 어느덧 노란 개나리꽃이 벌써 파랗게 물들면서 자취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나뭇가지에는 파랗게 새순이 돋아나고 땅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났다.

민들레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예쁘게 꽃을 피운다. 아- 이런 곳에서도 꽃이 피다니. 강인한 생명력에 다시금 경탄의 찬사를 보낸다. 우리들도 따스한 봄이 함께 오기를 기대하며 서로 양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의 ‘제비꽃’은 실제 자기가 본 제비꽃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글쓰기의 기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적는 것이다.

[보기 글 6]

제비꽃

주해진(초등학교 3학년)

제비꽃은
보라색이면서
활짝 날개를 편 제비 같다.
제비꽃은
땅에서 날으는 꽃이다.

그 꽃을 보니 나도 날고 싶다.

3.3.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보기 글 7]

아들과 돈

이재윤(주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짓고 계시는 시어머님을 도와 드리려고 시골에 갔다. 모내기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승현이(중학교 3학년 내 아들) 입이 뻐뻐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승현아! 네 입이 왜 그러니?”

“엄마! 엄마 보기에도 내 입이 이상해? 나도 느낌이 이상해. 아무래도 무슨 병에 걸렸나 봐.”

나는 가슴이 쿵쿵쿵.

요즘 아이들에게도 뇌졸중이 간혹 있다더니 혹시……. 그래도 태연한 척,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찬 바닥에서 자도 그런다드라. 어젯밤 잘 때 추웠니?”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상상을 다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갔다.

‘내가 스트레스를 줬나?’

마음은 여전히 시골시골.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태연하게

“별거 아니에요. 음식을 꼭꼭 씹지 않아서 위에 탈이 난 거예요. 침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스트레스 줄 만큼 강요한 것도 없는데 그럼 그렇지. 하지만, 그 하지만이 언제나 문제다.

“진료비가 얼마예요?”

“오늘 초진이라 침 시술비 8천 원, 약값 보름치가 18만5천 원 합해서 19만3천 원이에요. 내일부터는 3천 원만 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나는 승현이의 얼굴을 찌려봤다. 승현이는 눈치를 챘는지

“약은 짓지 마세요.”

하면서 병원 문을 활 닫으면서 나가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까짓 음식 하나 씹어 먹지 못해서 20만 원을 날리다니……. 그 돈 20만 원이면 책을 사도 여러 권 살 수 있고, 내 옷을 살 수도 있고. 아까워 죽겠네.’

우리는 둘이서 따로따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승현이가 대화 노트에다

“엄마, 그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내가 커서 따따블로* 갚을 게요. 죄송해요.”라고 써 놓고는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겠다. 그땐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고.

※ *따따블로→몇 곱절로



아들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걱정했던 엄마의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돼 온다. 엄마는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경미한 증상이라고 밝혀지니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동시에 치료비나 약값을 걱정하는데,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모양이다.

[보기 글 8]

끈

김유경(주부)

“아따, 죽지 않고들 살아 있었네!”

“아니, 길 다 끊겼는데 어떻게 왔어요?”

우린 화들짝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강 씨가 커다란 배낭에서 쌀이며 고기며 구호품(?)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2003년 여름이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우리 마을은 차는커녕 사람 다 날 길도, 전화도, 전기도 모두 끊긴 상태였다. 이 같은 고립 상태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날 무렵, 그해 봄 우리 집 짓는 걸 도와주었던 강 씨는 우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철길을 45km 걸어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곧 놀라움을 거두고 마치 이산가족이라도 된 양 감격적인 상봉 장면을 연출했다.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이 여름에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안 되니 어떻게 살았어?”

“염려 마요, 이렇게 지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허기사, 시멘트 한 삽 안 넣고 흙하고 나무만 갖고 집 짓는다고 덤벼든 무식한 인사들인디 뭐가 걱정이겠어!”

우리 가족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건 2003년 봄부터였다. 나무와 흙이 주재료인 귀틀집을 짓기로 한 것인데 단지 ‘웰빙’ 때문만은 아니었다. 넉넉지 않은 경제 사정 때문에 남편이 목수 노릇, 작업반장 노릇, 잡부 노릇을 다 해야만 했기에 지어 본 경험이 있는 귀틀집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귀농 안내지인 <귀농통문>이라는 계간지에 ‘귀틀집 짓기 배우며 일 도와주실 분을 찾는 글을 냈고 너댓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다. 모두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었다. 네 분이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강돌, 길동이, 나무, 동동주 등 재미난 별명을 붙였고 어른들도 서로 그 별명으로 불렀다. ‘나무’는 50대 중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동동주’는 휴직 중인 공무원, ‘길동이’는 건축 설계사, 그리고 강돌이라는 별명을 얻은 강 씨는 덤프트럭 기사였다.

강돌 외에는 육체노동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집 짓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극구 지원 봉사자임을 강조하셨다. 강 씨하고만 근로 계약(?)을 맺었는데 보수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적은 돈을 드렸다.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내가 함께 지내는 내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성스레 밥을 짓는 게 고작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엔 막걸리 한 사발로 피로를 풀며 농사 얘기, 사는 얘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분들과 두어 달 지내고 나니 별채 골짜가 다 올라가고 지붕까지 없게 되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이다. 우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태풍 매미 때 강 씨가 우리를 찾은 건 그러니까 3개월쯤 뒤였다. 만약 전생이 있다면 강 씨와 우리는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때부터 강 씨와 우리 가족은 1년에 두세 차례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친정 식구들도 1년에 한번 오기도 힘들어 하는 봉화를, 그것도 인천에서 달려오는 것이다.

인연이라는 길은 여러 모습을 한다. 최악의 인연은 악연으로 표현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끊어질 듯 가늘고 아슬아슬한 끈으로 이어질지, 밧줄처럼 튼튼한 끈으로 이어질지는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강 씨에게 진심과 고마움으로 인연의 끈을 엮어 나갔고, 그 끈이 도타워져 가족같이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봉화백일장 수상 작품)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풀어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

[보기 글 9]

큐피드의 화살

신동일

밤늦게 가게에 여고생 둘이 왔어요.
 “친구들, 어서 와요. 야자 마치고 오는 길이라요?”
 “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힘들어요.”
 “공자님이 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했는데…….”
 “…….”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나 봐요.”
 “예.”
 “하긴 공부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공자님밖에 없을 걸요. 우리 친구들 뭐 줄까요?”
 “만득이 두 개 주세요.”



감자 핫도그를 만둑이라고 해요. 감자 핫도그 두 개를 튀김 솥에 담갔어요.
“자, 오빠야가 만든 핫도그 따끈따끈 맛있게 해 줄게요.”
사십 대 아저씨가 갑자기 오빠야라고 하니 여고생들이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어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오빠야는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오빠야 맞는데……. 맨날 꼬치 튀기고 핫도그 만들다 얼굴이 폭삭 늙어 보이냐 보네.”
여고생 둘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다시 웃어요.
“자, 맛있는 핫도그 나갑니다. 설탕, 케첩, 겨자 어떻게 해 줄까요?”
“아저씨, 전부 다 많이, 억수로 많이.”
“어? 아저씨 아니고 오빠안데.”
“오빠야! 억수로 많이.”
“알았어요.”
핫도그를 설탕에 푹 담급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묻혀서 핫도그가 하얗게 되었어요.
“핫도그에 눈 내린 거 같네.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럼 다시 텅니다.”
핫도그에서 설탕을 다시 조금 텅니다. 이제 케첩을 바를 차례입니다. 빨간 케첩으로 하트 무늬라고 하는 사랑 표시를 핫도그에 합니다.
“애, 저것 봐. 하트다.”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고생 동무들 얼굴에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겨자를 바를 차례입니다. 겨자로 핫도그의 사랑 표시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큐피드의 화살이 쏘웅!”
웃음 띤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큐피드가 자기 화살에 자기도 찔려서 사랑의 열병을 앓았데요. 자, 오빠야가 만든 맛있는 핫도그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핫도그 하나 더 그렇게 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가요.”
“고맙습니다. 오빠야도 많이 파세요.”
그 동무들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이 가득하기를…….(글쓰기 회보, 2005년 6월호에서)

[보기 글 10]

눈물로 얼룩진 사진

배 숙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청소가 끝나면 옥수수 빵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맛있겠다.”

“그래서 청소를 은근히 기다렸어.”

“공책은 얇고 구멍이 나 있고 나무 가루도 박혀 있어. 연필은 심이 단단하고 흐리게 나와 침을 묻혀 글씨를 쓰다 보면 공책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어.”

아이들이 웃는다. 요즘 연필과 공책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껴 쓰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도 교실 바닥에는 주인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굴러다닌다.

우리 반 아이들이 나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며 ‘옛날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신이 나서 공부하다가도 나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나는 의정부 가능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가능동에서 전기 기술자로 미군 부대를 다니셨다. 아버지가 가끔 가져온 과자와 초콜릿, 코코아를 맛볼 수 있었다. 동네에는 극장도 있고 꽤 중심가였는데 미군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사는 곳도 가까이 있었다. 동네 가운데 우물과 독이 있어서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셋방을 옮겨 다니며 이사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셋이라 주인집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다. 이사 갈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삿짐을 싸며 내 일기장을 펼쳐 그림과 글을 보고 웃는 게 그렇게 싫었다. 그 가운데 조금 오래 살았던 소영이네는 철마다 꽃이 피어나는 동그랗고 예쁜 꽃밭이 있었다. 주인집 소영이네는 방이 많고 마루가 넓어서 선생님들이 와서 밥도 먹고 춤을 추며 놀다 가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아이들 눈에도 좋지 않아 보였는지 바깥에서 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요요 깍쟁이 담임 선생아! 어찌자고 내 친구를 낚제시켰니?” 이런 노래를 큰소리로 불렀다.

그래도 가능동에 살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미군 부대를 그만두시고 동업하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계시며 병원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갈수록 집안 사정은 힘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호원동 원도봉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으셨다. 쌀이 떨어져 수제비와 라면만 먹던 때도 있었다. 학교에 육성회비를 제때 내 본 적이 없어 학교가 끝나고 남았던 적도 많았다. 전학 와서 3학년을 마칠 때 우등상 받을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내 이름이 없었다. 이상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었다. 그날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더니 너는 전학 와서 우등상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에게도 뚝뚝하지 못한 행동을 하신 걸 변명하신 거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갖고 있는 통지표에는 행동 발달에 ‘장난이 심하고 산만합니다.’ 하고 적혀 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도, 존지 받는 뇌물 선생님이로 알려졌던 그 선생님은 내게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바른 길을 걷도록 해 주신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

아버지 건강도 좋아지셔서 작은 가게를 하시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이 더 적어지고 부끄러워하는 수줍음 많은 아이가 되었다. 내 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때, 좁은 집에서 4남매가 북적이며 지내던 집보다는 동네 마당이나 앞산 뒷산을 뛰어다니며 노는 게 더 좋았다. 지금도 너무나 풀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놀았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동네 마당에 모였는데 거의 남자아이들과 놀았던 것 같다. 별로 말도 없고 수줍음 많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놀았는지 신기하다. 구멍에 넣거나 세모 모양에 넣고 치는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 따먹기, 실핀 따먹기, 옷핀 따먹기, 계급장치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소꿉놀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놀이를 철마다 바꾸어 했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손등이 두꺼비 등짝처럼 갈라지도록 놀았다. 만이라서 집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할 일이 많았던 만큼 야단도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도 놀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집 앞 개울에서 머리를 감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흐르는 물에 발과 머리를 담그고 한참 있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앞산이었던 수락산에는 밤나무가 많았는데 주인이 있었지만 가을이 되면 주인을 피해 밤을 줍거나 따다가 도망치는 일도 재미 있었다.

일요일이면 동생들과 빨래를 들고 계곡으로 올라가 빨래를 하고 바위에 널어 놓고 말리는 동안 물고기와 가재를 잡으며 놀았다. 놀다가 씻고 나면 따뜻한 넓은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다 보면 잠이 스르르 왔다.

언젠가는 동무들과 원도봉산에서 서울 쪽으로 가 보았는데 길이 없는 산속에는 먹을 것이 많아 먹으며 놀다 가다 보니 다락원 캠프장이 나타났다.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겁이 나 되돌아오니 벌써 해는 지고 저녁이 되어 부모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다. 놀다가 야단을 맞아도 숲 속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다. 자연과 함께 동무들과 신나게 놀았던 일이 아니었으면 힘든 집안일이나 어려움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거나 자유가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잊으려고 해도 기억나는 아픈 기억 하나, 육성화비를 제때 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앨범 값을 내지 못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졸업식까지는 꼭 주겠다고 하셨다. 그때 앨범 값이 비싼 편이었지만 그래도 내주실 줄 알았다. 결국 졸업식 날 앨범을 나누어 주는데 내 것은 없었다. 사진관 아저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을 때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눈이 붓도록 울다가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서 속상하셨던지 어딘가에 치워 버리셨다. 아직도 그 사진이 있는지 궁금하다. 키가 커 버려 짧아진 바지와 어머니 옷을 입고 파란 운동화에 짧은 머리에 가무잡잡한 얼굴을 하고 어색하게 찍었던 눈물로 얼룩진 사진으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이렇게 아프게 막을 내렸다.

(글쓰기 회보, 2008년 2월호에서)

♣ 보기 글로 배우는 자세히 쓰기 요령

[보기 글 11]

선생님 어학실 우리반

이승재(초등학교 5학년)

오늘은 드디어 어학실을 가게 되었다. 오늘 막 지어 가지고 우리 반이 제일 먼저 최초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영어를 하지 않고 영화를 틀어 주셨다. 우리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딩동댕동 땡동댕동”

종이 울렸다. 우리 반은 평상시처럼 우르르르 하며 뛰쳐 나갔다.

그런데 정재호라는 친구가 신발장 문을 모르고 쳐서 문짝이 떨어졌다. 헉!!! 문을 때 낸 아이 곁에 있던 아이들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선생님은 이마를 쥐어 뜯으시면서

“아이구 아이고...”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들 보고 교실에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셨다.

우리 반 아이들은 문짝을 때 낸 아이한테 막 뭐라고 했다.

(욕설을 퍼부었다.

“너, 제 정신이 있는 거야?”

“너 이제 디졌다.”

“미친 놈야. 너 땡시 다 디지게 생겼어!”

이런 말을 마구 퍼부었다. 급기야 욕설을 받은 아이는 울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막 화를 내셨다.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 놓으셨다.

“야, 이노무 시키들야! 너희들 바보야? 영? 오늘 막 어학실 지어졌는데 어? 만 든 지 세 시간 돼 가지고 문짝을 뽀개 먹어? 그 전에도 선생님 물건 망가뜨린 사람들, 권오관! 기타줄, 5학년 초에 선생님 기타줄 끊어 먹어 가지고 너 여태 안 가져 오고 있어. 그리고 유준상! 너 선생님 컴퓨터 깨 먹었지? 이상미! 넌 내 노트북에 커피 쏟았고, 너! 장구 구멍냈어. 정말 우리 반 뭐야? 이거? 이제 너희들



남은 일이 뭔지 알아? 이제 문짝 깨 먹은 소문 짝 퍼지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한테 야단맞고 교장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거야. 엉?)

그리고는 선생님은 나가셨다.

우리가 급식을 먹는데 선생님이 오셨다.

“애들아, 짐 싸라.”

우리는 가방을 썼다.

그리고는 우릴 운동장에 나가게 해 주시더니 웃으시면서 우리와 발야구를 해
주셨다.

한때는 무서우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와 놀아 주시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시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한글의 창제 원리	우 수 성
“정음 28글자는 각각 그 꼴을 본떠서 만들었다.”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발음 기관 상형(象形)과 가획(加劃, 加畫)	소리 글자,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글자

1. 말과 글, 언어와 문자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말과 글’ 즉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다. 혼동하는 사람에게 이 둘이 혼동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 혼동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이 혼동은 무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글자 즉 한글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었으며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국어 사랑 나라 사랑’, ‘한글의 우수성’ 등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 한글을 수출한다는 뉴스가 화제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은 술라웨시섬 남동쪽에 있는 인구 50만의 작은 섬인데, 토착어인 짜아찌아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공식 도입키로 한 것이다. 말은 있되 이를 적을 문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글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외국어 배우기가 왜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십수 년 영어를 배우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외국어로서 한글 학습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므로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예외성을 줄이고 규칙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굳이 ‘주무시고 계시다’, ‘진지 잡수시다’로 하지 말



고 ‘자고 있으시다’, ‘밥 먹으시다’로 했으면 한다. 언어도 하나의 도구 일진대 무릇 모든 도구는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가.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글의 세계화가 눈에 보이는 지금 보다 많은 사용자, 보다 수월한 사용을 위해서는 배우고 사용하기 쉽도록 한글도 좀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2009년 8월 10일, 모 경제신문 칼럼)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6000여 개의 언어 중에 대부분이 그 언어를 적는 글자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언어를 적는 문자가 있는 사실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은 필수적이지만 글을 부수적인 것이다. 즉 글이 없어도 말이 사용되고 세대로 전승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언어학자 소쉬르는 “말을 연구할 때 글자의 환영(幻影)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 연구자들도 글자에 사로 잡혀서 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글은 말을 불완전하게 표현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점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글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글을 통해서 말이 기록되는데, 인류는 발달 과정의 최후의 시기에 말을 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눈에 보이는 글자로 잡아 두는 기술을 획득하였다. 지금부터 5,500년 전의 일이다. 인류의 문화가 글을 통해서 축적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민족은 말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남겼다면 그것만이 유일한 흔적이므로, 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한 독창적 문자로서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찬탄해 마지않은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며, 이제 한국인의 상징처럼 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에 각별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발전적으로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다.

2. 훈민정음의 의미

훈민정음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글 훈민정음과 책 훈민정음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글과 훈민정음은 동일시된다. 맞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부르는 글자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역사상의 부침에 따라서 다음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훈민정음, 정음, 언문, 반절, 암글(<암클), 한글.

한편 훈민정음하면 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보 70호로서 1997년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다.

- 유네스코가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을 만큼 우수한 한글이다. 우리 스스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갖고 다듬어야 해외에도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다.(2009년 8월 7일, 신문 칼럼)
-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그런 한글을 우리 스스로는 푸대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2009년 8월 7일, 신문 칼럼)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한글과 관련하여 글-말-책을 혼동하지 않는 지성을 지녀야겠다.

3. 책 훈민정음

3.1. 책 훈민정음은 두 종류

훈민정음 해례본(책,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언해본(월인석보 권두본, 서강대학교 소장)



3.2. 출현

1940년 여름에 경북 안동군 주하리 이한걸 씨 댁에 소장되어 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졌다. 책의 정확한 명칭 즉 제목은 알 수 없지만 어제훈민정음 일 가능성도 있다. 이 책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제목이 적혀 있을 첫 장을 포함한 첫 두 장이 떨어져 나갔고 그 두 장을 기워 넣을 때 訓民正音 이라고 썼으나 그 뒤의 연구 결과 책의 제목이 어제훈민정음 일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는, 표지와 앞 두 장이 떨어져 나가서 모두 31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이 지닌 인류문화사적인 의의 때문이다. 그 의의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글’이라는 우수한 글자를 만든 원리 등 인류 문화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

3.3. 책의 특징

우선 이 책을 꼼꼼히 관찰하면 우리의 인쇄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서 크게 보아 세종 임금의 글[서문과 예의(例義)] 4장과 집현전 학자들의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 즉 해례(解例) 29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임금의 글은 크게 썼고, 신하의 글은 그보다 작게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판본 반장[반곽(半廓)이라고 한다]에 전자는 7행에 매 행 11자가 들어가 있으며, 후자 즉 신하의 글은 8행에 매 행 13자가 들어가 있다. 책의 판심도 각각 정음(正音)과 정음 해례(正音解例)로 되어 있다. 글씨를 쓴 이는 당대의 명필이자 세종 임금의 셋째 아들인 안평 대군 용(瑢)인데 임금의 글은 방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신하의 글은 단아한 해행서체(楷行書體)로 썼다. 신하들이란 집현전 학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들어 보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의 8명이다(이 중에서 세 명이 사육신이다). 이들 학자를 대표하여 해례의 서문을 쓴 이가 당시 예조 판서(禮曹判書)이자 집현전 대제학(集賢殿 大提學)이었던 정인지이다. 그의 서문은 일반적인 서문과 달리 책의 끝에 있는데 임금의 글과 같은 책에 들어 있는 신하



의 글이므로 뒤로 간 것이다. 한편 신하의 글에서 임금이나 임금에 관련된 것을 지칭할 때에는 자신의 글을 내려쓰거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행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의 경우에도 매 행을 한 글자씩 내려서 썼으며, 殿下(우리의 전하), 命(임금의 명령), 大智(임금의 큰 지혜)는 쓰던 행을 비워 놓고 다음 행의 첫머리에 씌으로써 군신 간의 예의를 지키고 있다. 또한 世子라는 글자는 같은 행에서 한 글자를 비우고 쓰고 있다[정인지는 세자 우빈객(右賓客)이었다].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도 행의 반만 차지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적어 놓았다. 정인지 서문 외에 합자해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칠언으로 된 결(訣)에 “하루아침 지으셨으나(一朝 制作), 신의 조화와도 같으셔서”에서 제작(制作)은 임금이 한 일이므로 행을 바꾸어 시작하고 있다.



<사진 1> 제자해(正音解例 1a)
(문화재청 홈페이지)

3.4. 세월을 겪은 책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훈민정음은 원래의 책과는 모양이 상당히 달라졌다. 물론 첫 두 장을 기워 넣은 것부터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책의 크기가 달라진 것과 제책의 면에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에詹 바에 의하면 훈민정음의 책의 크기는 세로 29.3cm, 가로 20.1cm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책의 원래 크기는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아래위가 상당히 잘려 나간 책이다. 사실 잘려 나갔다고 하더라도 원문에 손상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잘려 나갔으므로 크게 문제 삼을 것은 못된다. 그러나 책의 원래 모습이 현재의 것보다는 더 컸다는 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여백이 넓으면 책의 품격이 달라진다. 책의 아래위, 즉 천지(天地)가 잘려 나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거는 뒷면의 붓글씨이다. 뒷면 글씨란 책이 오래되면서 접은 부분[중봉(中縫)]이 헤어지면서 열려서 책의 뒷면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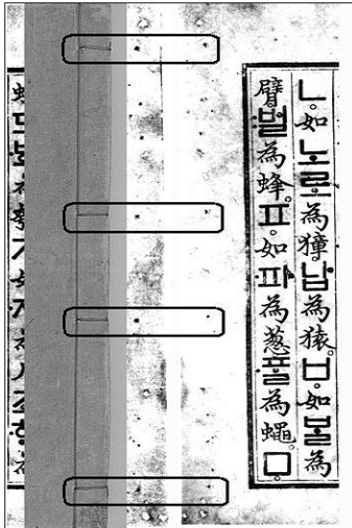
글씨를 말한다. 종이가 귀하므로 뒷면의 백면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일례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제자해 부분의 사진(<사진 1> 참조)을 보면 뒷면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정확히 판독되지는 않지만 첫 글자가 모두 잘려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랫단의 글자들도 모두 잘려 나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사진을 보면 자명하므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요 임금이 말하되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고, 부자면 일이 많고, 장수하면 욕이 많다. 봉인이 말하되 하늘이 만민을 내심에 반드시 소임을 주시니 아들이 많으면 소임을 주면 어찌 두려움이 있으며, 부자면 사람들에게 나누면 어찌 일이 있으며,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만물이 다 창성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어진 덕을 닦아 한가한 데 나갔다가 천년 만에 세상을 버리고 신선이 되어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 이르면 어찌 욕이 있겠습니까?

《십구사략언해(十九史略諺解)》

두 번째 근거는 침눈의 위치이다. 침눈이란 책을 묶기 위하여 뚫는 구멍을 이르는 것인데 <그림 1>을 보면 오른쪽에 회계 해진 부분과 검은 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침눈이다. 그중에서 검은 점의 일부가 현재의 책을 묶기 위한 침눈이며 책의 맨 위와 맨 아래에 보이는 회계 해진 부분은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침눈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전에 사용된 침눈의 위치가 각각 너무 위로, 너무 아래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눈은 책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한 1센티미터의 여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위와 아래가 잘려 나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원본 훈민정음은 원래의 상태보다 책 크기가 작아졌다. 현재로써는 원래의 책 크기를 알 수가 없다. 현재에 알 수 있는 것은 재단(裁斷)된 시기이다. 물론 절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뒷면 글씨를 쓴 이후에 아래위 부분을 잘랐다는 사실 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봉(中縫)이 해진 이후에 글씨를 썼고, 글씨를 쓴 후에 재단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후대에 재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접한 이후에 책을 매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한다고 생각하면 1940년 이후에 원본의 아래위가 잘려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접을 한 후 재단을 하더라



<그림 1> 훈민정음의 표지와
영인본을 합성한 그림

도 원래의 책 종이에선 칼이 가지 않도록 책의 바깥 면을 자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책이 도려내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제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가 보는 훈민정음은 사침안정법(四針眼訂法)으로 제책되어 있다. 즉 네 개의 침눈을 뚫고 실을 넣어 책을 꿰맨 것이다. <그림 1>은 책의 표지와 훈민정음 영인본의 사진을 합성한 것인데 현재의 침눈이 네 개이며 영인본에서 그것이 검은 점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조의 책들은 극히 드문 한두 책을 제외하고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 즉 다섯 침눈으로 책을 꿰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사침안정법은 중국과 일본에

서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훈민정음이 원래부터 사침안정법으로 묶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김주원 2006에서 발췌).

4. 글 훈민정음(한글)

4.1. 한글의 창제 : 새로 스물여덟字를 땡궤노니

세계의 모든 문자는 다음의 세 계열에 속한다:

- 이집트 성각 문자
- 한자
- 설형문자

한글은 여기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창적 문자이다.

한편 훈민정음의 창제자를 흔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집현전의 학자들은 단지 보조적 역할을 했을 뿐이며 세종 1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4.2. 한글 창제의 배경: 나랏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쓴 글자(한자, 향찰, 이두, 구결)로는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 <참고: 일본인은 어떻게 한자를 이용한 가나 글자 변용에 성공했나?>

4.3. 한글 창제의 목적: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훈배 이셔도……어엿비 너겨

문자는 통치의 수단이며 민중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일수록 좋다. 그래야 문자를 장악한 관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권위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4.4. 한글 창제의 원리

4.4.1. 상형과 가획

(1) 초성의 제자 원리

㉠ 기본자: 상형(象形)의 원리 (발음기관을 상형)

“초성은 17글자인데,

어금닛소리(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헛소리(글자)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글자) ㄷ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글자) ㄹ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소리(글자) ㅇ은 목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그 밖의 글자: 가획(加劃)의 원리

ㄱ → ㅋ

ㄴ → ㄷ → ㄸ (ㄷ → ㄸ)

ㄷ → ㅌ → ㅊ

ㄹ → ㄺ → ㄻ (ㄹ → ㄻ)

ㅇ → ㅅ → ㅎ (ㅇ → ㅎ)

㉔ 예외: 이체자(異體字) / ㄱ, ㄴ, ㄷ (획을 더하는 뜻은 없다)

초 성					중 성		
이름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기본형	자형	상형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ㅋ	ㅇ	·	圓	象乎天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ㄷ, ㄸ	ㄹ	—	平	象乎地
脣音	ㅇ	象口形	ㅍ, ㅑ				
齒音	ㄷ	象齒形	ㅌ, ㅍ	ㅊ		立	象乎人
喉音	ㅇ	象喉形	ㅎ, ㅎ				

(2) 중성의 제자 원리

㉕ 기본자: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추상화하여 상형 (·, —, |)

기본자	상형	혀뿌리의 모양	소릿값
·	天	舌縮	聲深
—	地	舌小縮	聲不深不淺
	人	舌不縮	聲淺

㉖ 그 밖 : 기본자를 바탕으로

초출자(初出字): ㄱ, ㄴ, ㄷ, ㄹ

재출자(再出字): ㅋ, ㆁ, ㆅ, ㆆ

(3) 중성

“중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4.5. 한글의 우수성

당시의 한국어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창안해 내었다. 즉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되 당시 성운학에 없던 개념을 창안하여 전혀 새로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 소리 글자는 문자 발달의 최고 단계의 문자 (한글은 자질 문자)

표의 문자(단어 글자)	표음 문자(소리 글자)		
	음절 문자	음소 문자	
		음소 문자	자질 문자
ㅁ[kou]	ㅁ[ro]	M (- P)	ㅁ[m]-ㅂ[p]
입 모양 상형	몸의 일부	원 글자는 상형	상형-가획

■ 발음 기관을 상형한 인류 보편적인 글자

■ 음절의 삼분법

반절법 東 德紅切 (동= ㄷ+웅(웅))

초성-중성-종성 (ㄷ+ㄱ+ㅇ)

■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만든 글자

■ 모음 조화를 이해하고 만든 글자

양성 모음: ㅣ 의 오른쪽에 ㆍ, ㅡ의 윗쪽에 ㆍ ; ㆍ ㅏ ㅑ

음성 모음: ㅣ 의 왼쪽에 ㆍ, ㅡ의 아랫쪽에 ㆍ ; ㅡ ㅓ ㅕ

중성 모음: ㅣ

■ 설축(舌縮) 이론은 500년을 앞선 이론

■ 단, 세계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4.6. 한글의 오늘

■ 어려운 표기법(형태 음소 표기)

[엷꼬]

/엷고/-/엷고/-/엷고/

■ 변하는 표기법

먹읍니다→먹습니다 ([대조] ‘없음’을 ‘없슴’으로 적는 것은 표기 오류)

나뭇꾼→나무꾼



feet [fēt]

- 한국인의 성씨 로마자 표기 이씨 [Lee], 구씨 [Koo, Goo]

(예) [병] 글자가 도입되면 조합식 [1개]의 문자 코드 추가
완성식 최소한 [340개]의 문자 코드 추가

모아쓰기 - 풀어쓰기
 모ㄷㅇㅈ ㅅㅡㄱㅡ - 표ㅊㄹㅈ ㅅㅡㄱㅡ

한글 나눔 - 인류 언어문화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

김주원(2006), 훈민정음 해례본의 겹과 속, 새국어생활 16권 3호: 35-49.
국립국어원 편(2008), 알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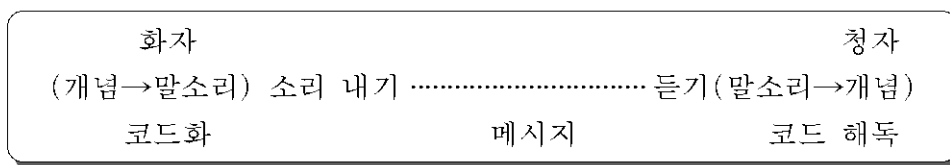


협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1.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1.2. 화자와 청자

대화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청자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



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듣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화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3.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 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하고 동작 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7%, 목소리나 억양이 전달하는 정보가 38%, 몸동작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가 55%에 이른다(Mehrabian, 1972).

1.3.1.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개별성을 갖는다. 성문(聲紋, voice print)을 가지고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질이 다르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노인인지 어린이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성격, 정서 상태 등

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를 바꾸는 요소인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말의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소리를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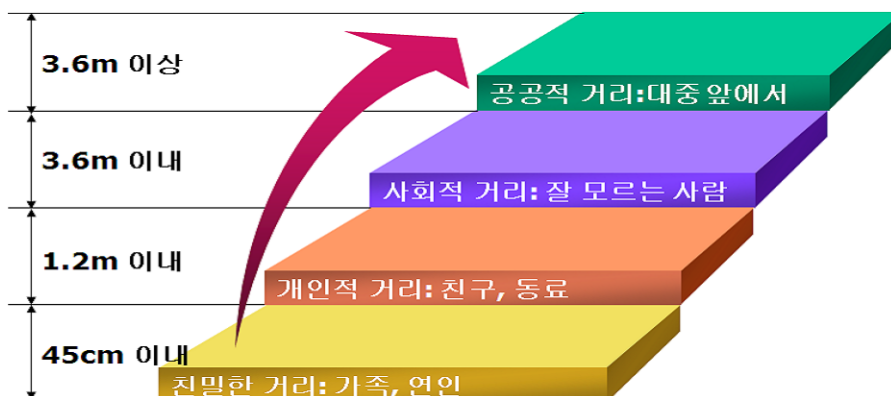
목소리는 온도도 가지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따스한 목소리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판이다.

1.3.2. 근접 거리

대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개별적) 공간으로 주장한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반경 50km 이상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감금되어 사육된 사자는 아주 좁은 공간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추위를 느끼면 서로 접근하여 모여든다. 그러다가 서로의 가시에 찢리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추위를 느끼면 다가오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거리, 즉 최적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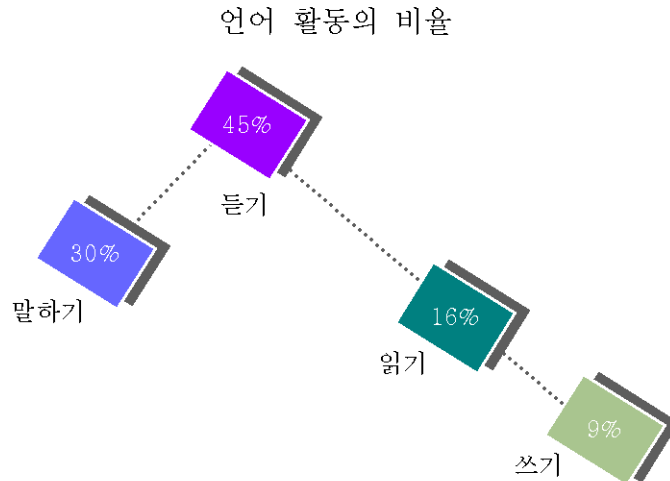
근접 거리는 다음과 같은 4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se, 1987).





2. 효과적으로 듣기

2.1. 듣기의 유형



2.1.1. 듣기 미숙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통 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부정하면서 듣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스로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들은 것의 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들은 지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2.1.2. 듣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 ① 듣기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 ②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듣는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욕구와 동기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1.3. 의미 듣기와 의도 듣기

- ① 의미 듣기: 표현된 말의 단어나 문법을 통해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 ② 의도 듣기: 표현된 말을 넘어 숨겨진 메타-메시지를 찾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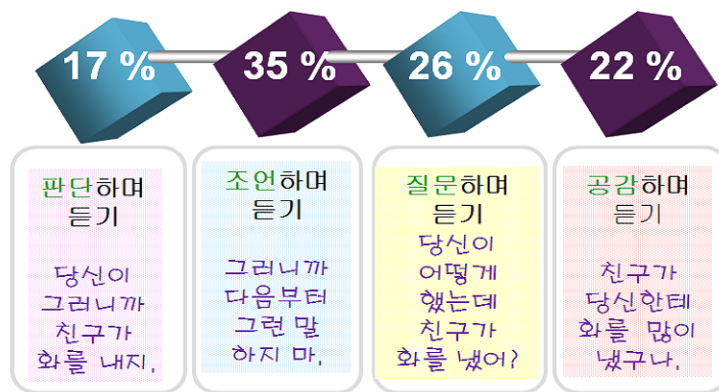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길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2.2. 공감적 경청

2.2.1.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 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②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③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④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⑤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2.2.2. 공감하며 듣기

- ①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 ③ 상대방이 생각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한다.
- ⑤ 상대방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되돌려 준다.

3. 효과적으로 말하기

3.1. 대화의 특징

3.1.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첫째, 대화에서는 반드시 순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자신의 대화가 문장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더 짧게 두어서 이어지는 대화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도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는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시선, 억양 등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이 명시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이야기 되고 있던 화제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화제라고 판단되면 하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조금 더 부연하다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제이거나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현재 화자가 다른 사람을 다음 화자로 지목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화자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현재 화자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자르거나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참여한다. 어떤 대화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적당한 순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특정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주는 등의 동작 언어를 다소 과장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3.1.2. 대화의 중복

현재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화자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가 대화의 중복이다. 대화의 중복이 일어나면 대체로 대화의 흐름이 깨지고 대화자들이 긴장하게 되지만 대화 방식에 따라서는 중복이 나타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의적으로 남의 말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화의 중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반응 발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우연한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끼어든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다.

넷째, 고의적인 방해의 경우는 방해가 일어난 대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



지 못하는 화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거나, 혼자서 대화를 오래 독점한 경우는 끼어든 화자에게 대화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은 자르거나 불필요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섯째,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고려해서 적극 관여형의 사람이 끼어든 경우는 반응 발화로 간주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중복 자체를 방해로 받아들이는 심사숙고형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가급적 끼어들거나 반응 발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3.2.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2.1.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협동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이 된다.

3.2.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2.3.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3.2.4.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3.2.5.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방법의 격률은 한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둘째,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 간결하게 말하라.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3.3. 나-전달법

3.3.1. 나-전달법의 개념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전달법’이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너-전달법은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대화에서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 훈계나 설교, 강의, 지시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너-전달법은 강압 때문에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직접성을 간접화하는 방법이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전달법이다. 상대방인 ‘너’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고, 화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달 효과도 더 확실해져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전달 과정		
메시지	코드	코드 해독-과장
	과장님, 어쩔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화를 내세요?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과장님이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화를 내셔서 서운했습니다.	‘윤계장은 서운하다’

3.3.2.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명백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행동이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는 영향을 밝혀야지만, 상대방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를 들자면 실망, 분노, 슬픔, 당황, 걱정, 두려움 등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3.4. 대화의 내용: 인간관계 지능

3.4.1. 대화의 단계 (Powell, 1969)

- 1단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다.
Peak Communication / 필요(Needs)
-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Gut-level Communication / 느낌(Feelings)
- 3단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Evaluative Communication / 견해(Opinions)
- 4단계: 사실 보고 수준의 대화이다.
Factual Communication / 사실(Facts)
- 5단계: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이다.
Phatic Communication/ 상투어(Cliche)



3.4.2. 인간관계 지능

감성 지능, 다중 지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지능은 스테판 그로스(Stefan F. Gross, 1997)에서 제시되었다. 인간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때 감사, 칭찬, 존중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비난, 무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관계 지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불평**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비난**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무시**이다.

3.4.3. 정중어법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학자들은 ‘정중어법’ 또는 ‘공손법(Politeness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정중어법이란 한 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1)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2)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3) 찬동의 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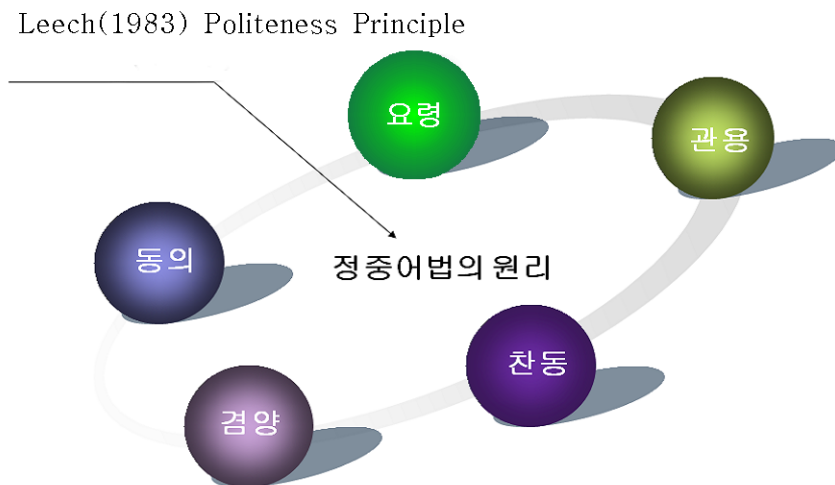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4) 겸양의 격률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5) 동의를의 격률

동의를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한 유형이다.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쓰다듬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야가와’는 말의 이러한 두 측면을 으르렁거리는 말(snarl-words)과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로 나누었다(Hayagawa 1978). 이런 점에서 한 마디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말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탁구와 같이 빈번한 움직임이 상호 간에 오고 가는 행동이다.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고난도 게임인 것이다.

참고 문헌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113 -12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F. Stefan. 1997. *Beziehungs intelligenz*, 박정미 역, 2000. 인간관계지능, 청년정신.
- Hayakawa, S.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Pease, Allen. 1987[1981]. *Body language: How to read other's thoughts by their gestures*, London: Sheldon Press.
- Powell, John.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Niles, IL: Argus Communications.
- Satir, Virginia.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편집: 김문오(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관)

집필: <목차 순>

한글 맞춤법: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글 맞춤법 연습: 유하라(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띄어쓰기: 정희창(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띄어쓰기 연습: 권미영(전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표준어 규정: 최용기(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표준 발음법: 최혜원(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외래어 표기법: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김세중(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

우리말 다듬기: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공문서 바로 쓰기: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박종덕(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교수)

생활 글쓰기: 이가령(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김주원(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협력적 의사소통: 구현정(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국립국어원 2010-03-09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

2010년 2월 24일 인쇄

2010년 3월 4일 발행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